

4-16. 중랑장부사직공파(中郎將副司直公派)

연주현씨(延州玄氏) 일원분파도(一元分派圖)

파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계파	지역총친회	
1	玄覃胤단암운 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惠憲公경원공 고려의종,영종1174	德秀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영종1215	元烈원렬 太僕尹태복윤 고려충렬왕1290	敬輿경어 典客令 전객령	族금 左贊成 좌찬성	1 致龍지룡 都食議事 도침의사사	1 玉亮옥량 禮曹判書 예조판서 고려공민왕1370 조선태조1390	1 用武용무 司賓監副正 사제감부	珪규 古鄆郡守고부군수 吏曹參議이조참의 조 선 세 종 대 1420~1440년대	1 得元득원 星州牧使진주목사 조선세종,단종대 1440~1450년	星州牧使派 성주목사공파	청송(명진) 재원(명필)	
2										2 得亨득형 南海縣令남해현령 조선세종대	南海縣令公派 남해현령공파	예천(정섭)	
3										3 得利득리 全州判官전주판관 조선세조대	全州判官公派 전주판관공파	양주(동후)/예산관봉(상경)/영암 종중(영호)/아산(덕주)/영속공문 중(영대)/전안(학순)/충남서부(돈 석)/충남연기·공주(정호)	
4										4 得貞득정 進士진사 문종대	進士公派 진사공파	금산(홍선)	
5								2 用休용휴 文 司評문사평	1 景祚경조 郡守군수	瑞進 牧使목사	司評公派 사평공파	문경(한근)	
6									2 命祚명조 通德郡通덕령	佑우 進士진사	司評公派	남해(연두)	
7										厚澤후택 晉州廣侯진주후	司評公派		
8								3 用富용부 開國功臣,判尹 개국공신,판윤 조선태조대1390년대	良積양적 實惠大夫자헌대부	禎정	判尹公派 판윤공파		
9										白백 敎員同正산원동정	存夫존부 判官판관	判尹公派	함흥(태욱)
10						2 允寧윤녕 會同正영동정		熙희 昭威將軍소위장군 조선태조1390	瑞琛서침 校尉교위	佑澤후택 勳尉校尉여절교위	昭威將軍公 소위장군공파	13세 절손	
11										佑邦오방 昭威將軍公	昭威將軍公	평택(현춘)(홍식)	
12										瑞近서근 有年유년	昭威將軍公	13세 절손	
13					2 繼龍계룡 會同正영동정	浩明호명 彰彰校尉장신교위	環환 郡將남장 세종23년1441년생		仁亨인형 主簿주부 세조12년1466년생	壽수 訓鍊倉正훈련창정	倉正公派 창정공파		
14										義良의량	義良公派		
15										溫溫 敎正정령	義良公派 의량공파		
16										智지	義良公派		
17										吉길	義良公派		
18									仁良인량	禹績우적 義州府尹의주부윤 상종1480	府尹公派 부윤공파	익성부(명권) 박원(동호)	
19									尙文상문	啓山계산 保功將軍보공장군	保功將軍公 보공장군공	정주(연식)	
20								珍진 進士진사	明遠명원 兵馬節度使병마절도사 세종 1440	奎奎 版圖都判도판	兵使公派 병사공파	경주(경대) 성주(동수) 운암(수환)	
21					3 瑞龍서룡 左丞좌승선	浩然호연 生員생원	琇수 門下評理문하평리	彦연	瑞漸중점 精勇中郎將 정용중랑장	左承宣公派 좌승선공파 (서용공)	상주(명철)		
22		元미元美 會同正,順天府院君 영동정,순천부원군	雨보 會同正영동정	秉性병성 判少駙馬判소부마	忠守충수 承旨승지	成성 五衛將오위장	光壽광수 版圖判書판도판서 고려공민왕1370	之佑지우 典客副令전객부령 고려공민왕1370	仁亮 節度使절도사	仁亮 承旨公派 승지공파			
23		元빈元賓 都領都령도영랑	敬祖경조 司評사평	박 박 中郎將중랑장	桓현 文科문과	昇平승평 進士진사	明秀명수 敎使敎사	守수 星州牧使진주목사	雨우	中郎將公派 중랑장공파	증랑장수겸서용(교승)/제주(명구)/ 부사직공서용(봉주),홍천 (홍환),밀암(영대),정원(수철)		
24						權(권) 佐宣좌승선	昇泰승태	暎園영문	重厚중후	系長계장 (관공)	左承宣公派 (관공)		
25		仁烈인렬 文科문과	禹圭우규 主簿주부	瓊환 進士진사	應和응화 進士진사	伯元백원 文科문과	佑仁우인 進士진사	思敬사경 星州牧使제주목사 태종1400	壽仁수인 修義校尉수의교위	濟州巨老派 제주거로파	제주거로파(진수)		
26										富仁부인 濟州神山派 제주신산파	제주신산파(용평)		
27										貴仁귀인 廣海將軍어모장군	濟州洋衣幕派 제주양의막파	제주양의막파(명식)	
28								佑禮우례	思義사의 大司諫대사간	孟仁맹인 大司諫대사간	司諫公派 사간공파	11세 절손	
29										仲仁중인 通政大夫동정대부	司諫公派	구례(홍근)	
30										季仁계인 文平府令문평시령	司諫公派	고흥(근섭)	
31								佑智우지	思恭사공	世平세평	司諫公派	13세 절손	
32		利厚이후 按察使,廣城君 안찰사,광성군 고려영종1215	元肅원도 門下侍郎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文弘문홍 軍器寺監 군기시감	倣정	順和순화	浩俊호준	章장 延州郡將연주남장	章장	廣城君派 광성군파			
33	德裕덕유 大司諫,權原君 대사간,좌원군 고려영종1215	界승 吏部典書이부전서	瑞경 關門底侯 각문지후	簡간 府使부사	台老태로 門下侍郎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元義원의 禮曹典書예조전서	孝生효생 軍器少尹군기소윤	碩圭석규 刑曹判書,左贊成 형조판서,좌찬성 세종23년1441년생	俊준 司諫사간	贊成公派 찬성공파	괴산(홍수)사숙계 강원(재송)사급계 산원(재수)사원계 평택(학금)(현수)사우계		
34							惟義유의 平章평장사	孟淡맹담 祇祇지후	士元사원 敎正정령	健건 郡守군수	平章公派 평장사공파	덕산(종호)	
35				瑞장 樞密院事 주밀원사	文徽문익 都元帥도원수 원종11(1270)	佑우 典客승전객령	之後지후 黃海監司황해감사 세조11년1465년	仁貴인귀 水使수사	季孫계손 主簿주부	明義명의 內禁衛尉내금위장	典客승公派 전객령공파	철원(종호)지정계 연천(화원)군(덕순)지정계 남양주용암(재수)지정계	
36				象巖상악 判三司事판삼사사	觀직 中書舍人 중서사인	一寬일관 門下評理判衛尉事 문하평리판위사	廣遠경원	系生계생 入杜門洞七十二賢 입두문동칠십이인	長壽장수	舍人公派 사인공파	면목상봉(승택) 논산(일환)		

호虎, 15세, 중랑장공파 14세 수검의 4남, 중랑장부사직공파 중시조, 부사직(副司直)

파 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23	玄담윤覃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景憲公경헌공 고려의종, 명종 1174	덕수德秀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1215	원빈 元憲 都領郎將 도영랑장	경조 敬祖 司評 사평	박搏 中郎將 중랑장	원檀 文科 문과	승평 昇平 進士 진사	명수 明秀 僉使 첨사	수수 麗州牧使 여주목사	우우 雨	귀남 貴南 생원 생원	숙량 淑良	준후 俊後 부사직 副司直	수검(壽謙) 장예원판결사 掌隸院判決事	무武 용龍 작雀 호虎 황黃

중랑장공파 14세 壽謙(수검)의 4남으로 1542년(중종 37년)생이다. 부사직(副司直)벼슬을 지냈다. 1606년(선조 39년)에 돌아가셨다. 2016년 9수보(修譜) 전자족보(電子族譜) 편찬 때 찬성공파(贊成公派) 계보(系譜)에서 분리하여 독립 계파를 구성함으로써 중랑장부사직공파(中郎將副司直公派)의 중시조(中始祖)가 되었다.

* 부사직(副司直) : 조선 시대 오위에 속한 종오품 무관 벼슬

	
중랑장부사직공파 묘소 입구	중랑장부사직공파 묘소 전경
	
부사직 호(15세)公 묘비	부사직 호(15세)公 묘소



十四世 判決事公 諱 壽謙과 配淑夫人 安東金氏의 墓(合葬)
所在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옛날)



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14세 수겸(壽謙)公, 15세호(虎)公 묘소_이장(移葬) 직전 마지막 묘제(墓祭) 모습_2005년

중랑장공과 14세 수겸(壽謙)公의 가계는 조선 후기 명문 가계였다. 조선 시대에 역과 배출 순위와 당상관(堂上官) 순위에서 네째 가는 집안이었다. 역과방목(譯科榜目)에 의하면 잡과나 주학 입격자가 213명인데 이들 모두가 수겸(壽謙)公의 후손들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7세기 초반에서부터 과거제도가 폐지된 갑오개혁(1894년) 직전에 이르기까지 근 300년 동안이다. 잡과 입격자는 직업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기술, 학문적 교양을 갖추어 시문에 능하였기에 조선 시대에 고위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조선 후기 사회의 실무관료로서 엘리트로 행세했다. 또한 실무 직위를 통해 경제적 부호를 축적하며 조선 후기에 이르면 지식층으로서 당대 문화를 선도하는 주요 계층으로 성장했다.

당상관(堂上官) : 정3품 상계(上階) 이상의 품계를 가진 관리. 정1품부터 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까지가 당상관에 해당

조선시대 과거제도 중, 잡과에는 역과, 의과, 율과, 운과가 설행되었다. 역과는 통역관(중국어, 여진어, 왜어 통역관)을, 의과는 의관(의사)을, 율관은 법률관(법률가)을, 운관은 천문관(천문가)과 지리관, 화원(畫員, 화가)을 뽑는시험이었고, 주학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호조에서 뽑는 취재라는 시험이었다. 역과(譯科)의 초시는 사역원에서, 복시는 예조와 사역원에서 주재하였는(한학, 몽학, 왜학, 여진학의 네 분과가 있었다. 역과에 합격한 자를 기록한 명부 역과방목(譯科榜目) 2권 2책이 전하는데 1498년에서 1891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호(虎)공의 직계 후손들은 조선조 왜학에서만 20여 명의 합격자를 내어, 역관(譯官) 명문 집안이 되었다. 역관은 외교사에서 실무의 주축이 되어 외국 사신의 영접, 외국으로 가는 사신단의 수행과 통·번역 등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였던 전문직 관원이었다. 후손들은 사행 무역과 국내 상업 활동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에 榮辱(영욕)의 국가대사에 헌신하였다. 후손들의 영향력은 조선왕조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뛰어난 어학력을 구사하며 많은 고관을 배출했다.

시조 담윤(覃胤)공의 손자인 3세 都領郎將(도령랑장) 원빈(元)公의 6세손이자 원빈公의

손자인 5세 中郎將(중랑장) 박(樸)公의 현손(玄孫)인 9세 수(守)公은 여주목사(驪州牧使)를 지냈다. 수(守)公이 퇴임 후에 여주(驪州) 천령촌(川寧村)에 자리를 잡고 산 연유로 후손들이 수(守)公을 시조(始祖)로 본관(本貫)을 천녕(川寧, 여주의 옛 이름)으로 정하고 천녕현씨(川寧玄氏)로 지내왔다.

1892년(고종29년) 가을에 대한제국 원수부총장을 역임하신 24세 暎運(영운)公이 근 400년간 失傳(실전) 되었던 9세 贊成公(찬성공) 碩圭(석규)公 부부(夫婦)의 멸실(滅失)된 墳墓(분묘)를 찾은 후 선산을 점유하고 있던 벽진이씨(碧珍李氏) 집안으로부터 선산을 매입하고 墳墓(분묘)를 정비했다. 贊成公(찬성공)系(계) 후손들과의 緣通(연통)이 되지않자 暎運(영운)公의 만형 경운(擎運, 소설가 현진건의 부친)公이 주도하여 매년 伐草(벌초), 歲祀(세사) 등을 지내왔으며, 후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1982년에 재실(齋室) 청단재(靑端齋)를 건립하는 등 최근까지 130여 년을 봉사해왔다.

1924년 甲子譜(갑자보, 5수보) 編修(편수) 때, 14세 장례원판결사(贈掌隸院判決事) 수겸(壽謙)公의 4남인 15세 虎(호)公을 형제들과 분리하여 찬성공의 神主養子(신주양자)로 入籍(입적)하면서 15세 호(虎)公의 아들 16세 철상(哲祥)公의 차남 17세 한일(漢一)公 후손들을 찬성공(贊成公) 후손들과 함께 고려시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내신 6세 태로(台老)公을 중시조로 하는 태로파(太老派)의 경성(京城) 지역 계보로 족보에 등재했다. 이때 15세 호(虎)公의 아들인 16세 철상(哲祥)公의 3남 오일(悟一)公, 4남 승일(承一)公의 후손들은 5세 중랑장(中郎將) 박(樸)公을 중시조로 하는 중랑장공(中郎將公) 박파(樸派)로 등재했다.

1957년 정유보(丁酉譜, 6수보) 編修(편수) 때, 3세 도령랑장(都領郎將) 원빈(元賓)公의 후손인 천령현씨(川寧玄氏) 수겸(壽謙)公의 세 아들 무(武)公, 용(龍)公, 작(雀)公 후손들이 중랑장공 박파로 등재했다.

1957년 정유보(丁酉譜, 6수보) 서문에 “전일 보첩에 목사공파(牧使公派; 성주목사공파) 및 도령랑장공파(都領郎將公派; 3세 원빈의 후손, 중랑장공파)와 동보하지 못하게 되어 동조(同祖)의 자손으로서 항상 유감으로 여기던 中 이번엔 합보가 되어 소원을 성취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14세 수겸(壽謙)公의 아들 중에 무(武)公계, 용(龍)公계, 호(虎)公계의 일부는 중랑장공(中郎將公)박(樸)派로, 4남 호(虎)公계인 17세 한일(漢一)公 후손은 평장사공(平章事公)태로(태로)派 분리 등재되어 1982년 임술보(壬戌譜, 7수보)까지 계보를 이어왔다. 천안 지역에 거주하던 3남 작(雀)公의 후손 일부는 판관공파 계보에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경진보(庚辰譜, 8수보) 編修(편수) 때, 호(虎)公계 17세 한일(漢一)公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9세(세) 贊成公(찬성공) 碩圭(석규)公(공)을 中始祖(중시조)로 하는 贊成公派(찬성공파)를 만들어 호(虎)公 후손 전체를 贊成公파(찬성공파)로 등재했다.

2016년 전자족보(電子族譜) 9修譜(수보) 編修(편수) 때, 15세 호(虎)公을 贊成公派(찬성공파) 系譜(계보)에서 분리하여 15세 호(虎)公을 중시조로 하는 중랑장부사직공파(中朗將副司直公派)로 獨立系派(독립계파)를 구성했다.

현재 중랑장부사직공파(中朗將副司直公派)는 15세 호(虎)公을 모시는 서울 본파를 위시하여 18세 덕윤(德潤)公을 모시는 밀양종친회와 창원종친회, 16세 철상(哲祥)公과 철상(哲祥)公의 4남 승일(承一)公을 모시는 홍천종친회 등으로 분화했으며, 23세 창원재판소판사(昌原裁判所判事) 학표(學杓)公 후손들은 별도로 부산밀양종회(釜山密陽宗會)를 만들어 22세 내부협판(內部協辦) 호민(好敏), 22세 내부협판(內部協辦) 경민(敬敏) 공 계열 개화기 선조들의 시제(時祭)를 모시고 있다.

*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 : 조선 시대 노비 관련 문서와 소송을 담당하던 정삼품의 관아인 장례원(掌隸院)에서 송사의 판결을 담당한 으뜸 벼슬로 정삼품 당상관이다.

*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 고려 시대 최고 중앙 의정 기관인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에 둔 정이품 벼슬.

* 낭장(郎將) : 고려시대 중앙군조직에서 중랑장 바로 아래 직위인 다섯번째 계급. 정6품관으로서 이군육위에 222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응양군을 제외한 각 영(領)에 5인씩 배속되어 200인으로 조직된 부대의 지휘관

* 중랑장(中郎將) : 고려 시대 둔 정오품의 무관 벼슬. 장군(將軍)의 아래, 낭장(郎將)의 위로, 각 영(領)에 두 명씩 두었다

* 목사(牧使) : 조선 시대 관찰사의 밑에서 지방의 목(牧)을 다스리던 정삼품 외직 문관. 병권(兵權)도 함께 가졌다.

* 장예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 : 조선 시대 노비 관련 문서와 소송을 담당하던 정삼품의 관아인 장례원(掌隸院)에서 송사의 판결을 담당한 으뜸 벼슬로 정삼품 당상관이다.

*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 고려 시대 최고 중앙 의정 기관인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에 둔 정이품 벼슬.

중랑장공파(천령현씨)의 세거지(世居地;대대로 살고 있는 고장)는 현재 서울의 중심지인 한양 중촌(中村)이다. 중촌(中村)은 개천(현재의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종로 일대를 말한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동네였다. 근처에 궁궐과 주요 관청, 시전이 있어 생활이 편리하였다. 이곳에는 주로 역관, 의관, 율관 등 전문직 관리나 관청에서 근무하는 서리인 경아전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다. 역관으로는 수진방(청진동 주변)의 천녕현씨와 장통방(관철동 주변)의 무안박씨가 있었고, 의관으로는 대묘동(종묘 주변)의 안산이

씨가 알려져 있다. 한편 시전의 상인들은 다동과 상사동(청진동 주변) 등에 살았다.

호虎(수검의 4남) 계보(系譜)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수검 壽謙 장예원 판결사	4 호虎 부사직	철상 哲祥	1 우일 宇一	덕만 德萬	태심泰心 계자 조선통신사 押物通事 압물통사										
			2 한일 漢一	1 덕문 德文	태규泰奎										
				2 덕명德明	3 태기泰箕										
				3 덕윤德潤 부산훈도 釜山訓導	1 태벽泰壁 전의교수 典醫教授	1 상 호 商 祐	시정時成 만호萬戶	응건應健 생부時遇 역과판관 譯科判官	1 學然 학연	1 ○○ ○○	1 壬健 임건 생부海運	1 元柱원주	1 哲涉철섭 수철수철 파출소장 생부호주	1 柄估병길 검사 2 柄在병재 교사	
					2 태익泰翼 조선통신사 堂上官 당상관 首譯수역	1 상 정 商 禎	1 시철時喆	종민琮敏	학명學明	地運지운	成健성건	徹柱철주	병덕炳德	1 勇相 용상	
							2 시복時復	4 升敏승민	1 學錫학석	1 載運재운	1 善健선건	1 浩柱호주	2 哲涉철섭 수철수철 파출소장 생부호주	1 柄估병길 검사 2 柄在병재 교사	
					3 태심泰心 출계덕만 조선통신사 押物通事 압물통사										
				4 덕창德昌 절충장군	1 대원泰元 전의직장 典醫直長	1 상 록 商 祿 역 과 譯 科 증참판 贈參判	1 의돈義敦	1 응순應淳 계공랑 啓功郎	학명學明 사역가선 司譯嘉善	暎運경운 역과주부 譯科主簿	容健용건	1 爽柱석주 병호 병천	병호 병천	동훈 東勳	
								2 응조應祖 역과절충 譯科折衝	윤빈胤斌 사역봉사 司譯奉事	병운秉運	대건大健	영주永柱	병오 炳午	승훈 昇勳	
											형건亨健	1 홍주鴻柱 주미대사	준용 俊容	진욱 軫旭	
												2 완주完柱	주용 周容	경욱 景旭	
												3 봉주俸柱	승용 承容	찬욱 璨旭	
							2의온 義溫 역과자현								
						2 상 윤 商 尹 출 계 태 형									
						3 상 열 商 說 활 인 참 봉 活 人 參 奉	1 의순義洵 송목지주 崇祿知樞								
							2 의준義浚	2 응우應祐	1 학영學永	2 경운景運					
					2 태형泰衡 1718~ 증통정대부 贈通政大夫 公 조참의	2 상 윤 商 尹 계자 증 호 조 참 의 戶	시석時錫 증 호 조 참 판 戶曹參判 1754~	1 한민漢敏 증 호 조 판 서 戶曹判書 1782~	1 학주學周 사역원판관 司譯院判官	1 창운昌運 1834~ 승정원지침 崇政院知僉	양건養健 첨정교수 僉正教授	弼柱필주 직장直長			

					工曹參議	曹參議 1736~									
											동건 출계성운				
										2 석운普運 탁지부대신 度支部大臣	태건台健 生父正健 통훈대부 通訓大夫	택주宅柱 生父正健 한 의사	3 炳奎 병규 육군대위		
										3 명운明運 동래부윤 東萊府尹 1845~	상건尙健 시종원시종 고종 밀사 한성임시정부 평정관	정주正柱 대한축구 협회회장	1 병구炳九	승균 丞均	
												2 병무炳武	석균 錫均		
												5 병柔 병유	이사벨 라 강 작가,배우, 가수		
												채미采薇 동양화가			
										4 星運성운 1850~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	東健동건 生父장운 문과장원 비서원승				
									2 학로學魯 송정지주 崇政知樞	정운晶運 점주점樞	최남선 六堂 崔南善 문학운동가				
										승운昇運 남포현감 藍浦縣監 1834~					
								2 호민好敏 贈 내부협판 內部協辦	학두學斗 계자系子 시종원부경 侍從院副 卿	1 백운百運 예식원예식관	定健정건 完健완건 在健재건 成健성건	東株동주 泰柱봉주 민인 彬인 旭옥 政錫정석 明昊명호	程善정선 程奉정모 程皓정호		
										2 희운僖運 연극인 철(哲)	종건宗健	완주完柱			
								3 경민敬敏 贈 내부협판 內部協辦	1 학규學珪	2 보운普運 주일공서관 이등참서관	진건鎭健 계자系子 소설가, 기자 鐘和 子婦	화수와壽 소설가朴 鐘和 子婦			
										3 성운成運	명건命健 오사가매일신 문서유흥파원	동주東柱 가수현인	正一정일		
									2 학표學杓 창원재판소 판사	1 경운敬運 대구전보사장	1 홍건鴻健 육군참령 陸軍參領 2 석건奭健 판사, 변호사 3 정건鼎健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의원 4 진건鎭健 出系보운 5 성건聖健 한 의사	태주泰柱 漢柱한주 庚壽경수			
										2 철운徹運 용궁군수 龍宮郡守					
										3 영운映運 원수부총장	부건富健	덕주德柱	인성仁聖 응준應俊		
											윤치오 尹致許 중추원참서관 (玄松子)				
										4 양운暘運 한국최초축구 선수, 장예원전 사 草禮院典祀	1 용건龍健 고교 교장	장주章柱	재병才丙 병혁炳赫 병욱炳旭 두병斗丙 병진丙珍 정범政凡 소라	병석炳碩석진(碩眞) 보옥寶玉 하운荷允 하온荷溫	
												필주弼柱 흥주興柱	정범政凡 소라 응서應瑞	주해主該, 주아, 주빈, 주람	

덕윤의 3남이다. 큰아버지 덕만(德萬)에게 양자로 갔다. 1713년(숙종 39년)에 태어났다. 1735년(영조11년) 증광시 왜학에 합격하였다. 자는 子定으로 倭學敎海(왜학교수) 正이었다. 1763년 정사 조엄을 따라서 押物通事(압물통사)로서 일본에 갔다.

교회(敎誨) : 사역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역관 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물이었다. 이들은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가르쳤으며, 국가의 외교와 통역 업무를 지원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했다

압물통사(押物通事)는 조선시대 대외 사행, 특히 명(淸)나라로 가는 부경사행이나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행에 참여한 역관의 직책 중 하나이다1. 이 직책은 역관의 품계나 경력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주로 물품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과] 영조(英祖) 11년(173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2위(10/19) · 자(字) · 생년 · 합격연령 · 본인본관 · 거주지 자정(子定) 계사(癸巳) 1713년 (숙종 39) 23세 천녕(川寧) 미상(未詳)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이력사항] · 선발인원 · 전력 · 관직 · 전공 19명 [一等3· 二等5· 三等11] 교회(敎誨) 정(正) 왜학(倭學)
[부(父)] · 성명 · 품계 [생부(生父)] · 성명 · 품계 · 관직 · 전공 [조부(祖父)] · 성명 · 품계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품계 현덕만(玄德萬) 절충장군(折衝將軍) 현덕윤(玄德潤)[譯]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同知) 역과(譯科) 현우일(玄宇一) 통정대부(通政大夫) 현철상(玄哲祥) 통정대부(通政大夫)	

고전번역서 > 해행총재 > 해사일기 > 해사일기 > 3월 > 최종정보
 해사일기(海槎日記) 4 / 3월 15일(병인)
 陰雨灑。留三島。○曉行望賀禮於館庭。從事官以手瘡不得同參。島主送伴以爲富士川舟橋。因雨漲毀傷。今方改鋪。決難作行

흐리고 비가 뿌림. 삼도에 머물렀다.
새벽에 관정(館庭)에서 망하례(望賀禮)를 행하였는데, 종사관은 수종(手瘡) 때문에 같이 참례하지 못하였다. 도주가 심부름꾼을 보내어,
“부사천(富士川)의 주교(舟橋)가 빗물이 불어나 부서져서 이제야 바야흐로 고치고 있어 결코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근자에 4~5일 동안 비가 끝내 꽤히 그치지 않았으므로 큰 냇물이 범람하였다는 것은 실로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지만, 지난 달 대원참(大垣站)에서 머무를 때 주량(舟梁)의 일로 핑계했던 것으로 보면 오늘 말도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형세가 부득이하여 걸음을 멈추게 되니 답답하다.

역관 **현태심(玄泰心)**이 갑자기 괴질(怪疾)에 걸려 미친 소리와 허망한 말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스스로 칼을 빼어 배를 가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형 수역 태익(泰翼)이 간신히 칼을 빼앗았으나, 잠깐 혼미하였다가 잠깐 정신을 차렸다 하면서 증상이 고약하므로, 문밖으로 내보내고 모든 의원들로 하여금 약물(藥物)을 의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들으니, 그는 일찍이 광질(狂疾)이 세 차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조금 낫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런 묵은 병을 품고 60된 나이에 이처럼 만 리 걸음을 한 것이 본디 무식한 소치이지만, 이미 통역을 맡았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도리어 가엾고 민망하다.

云。近者四五日雨勢終不快止。大川之漲溢。固無足怪。而以前月大垣站留住時。托於舟梁事言之。則今者之言亦未可信也。雖然勢不得已停行。可鬱。譯官玄泰心猝發怪疾。狂言妄說。或哭或笑。至於自拔其刀。欲爲刳腹之境。其兄首譯泰翼。僅奪其刀。而乍昏乍明。症情怪惡。出送門外。使諸醫。議用藥物。聞渠曾發狂疾三次。幸得差愈。而抱此宿症。六十之年。作此萬里之行。固涉無識。而既係譯舌。其安得不然也。還可憐悶。

事言之。則今者之言亦未可信也。雖然勢不得已停行。可鬱。譯官玄泰心猝發怪疾。狂言妄說。或哭或笑。至於自拔其刀。欲爲刳腹之境。其兄首譯泰翼。僅奪其刀。而乍昏乍明。症情怪惡。出送門外。使諸醫。議用藥物。聞渠曾發狂疾三次。幸得差愈。而抱此宿症。六十之年。作此萬里之行。固涉無識。而既係譯舌。其安得不然也。還可憐悶。

十六日丁卯雨注終日留三島。○滯雨終日頗覺愁鬱。夕間島主送伴以爲明日發向吉原。以待富川橋梁之成否云。奉行輩私謂首譯曰。吉原只是晝站。如或多日滯留。則支供易致荷艱云。其意似在於希望除滅。故以事體所在。不可闕捧。第以準數待令之意。使之分付。

十七日戊辰晴宿吉原。○今日即余生日也。追念劬勞之恩。不勝悲感。在京時如逢此日。必與寅弟相會。今日我遠來殊方。孔懷之情。弟兄想一般也。飯後發行二十餘里。暫憩茶屋。庭前梅樹。去時開花。清香遠襲。歸日成實。渴喉可潤。又有一叢異卉。爛開白花。花如薔薇。葉似薄荷。摘花而見。一棟將至數十歧。劈破之。則散作數十花瓣。問其名於彼人。謂以小天萬里。此必是俗音。而未知草譜果載本名否。非但此花。前後客館及路傍所見花卉中。未曾見不識名者。不知其幾百種。且多怪鳥幽禽。而莫能知之。誠愧於多識乎鳥獸草木之名矣。日本以其處於南海島中。日氣溫和。四時長春。好事者多尙花草。一草一木之稍有

4호-철상-2한일-3덕윤 계系

한일漢一, 17세, 호(虎)의 손자, 자(字) 여주(汝胄), 자헌대부(資憲大夫), 1635년(인조 13년)에 태어나서 1724년(경종 4년)에 90세로 돌아가셨다. 4남 3녀를 두셨다. 부인은 온양방씨(溫陽方氏), 평산유씨(平山劉氏) 두 분을 두셨다. 묘소는 양주군 별내면 화접리에 있었으나 2007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로 이장했다.

덕윤(德潤), 18세, 역과동추(譯科同樞) 부산훈도, 학자, 문장가 서예가

호(虎)의 증손자, 한일(漢一)의 3남. 1676년(숙종 2년) 태어나서 1737년(영조13년)에 돌아가셨다. 조선후기 부산훈도로 용양위 부호군을 역임한 역관(譯官), 학자, 문장가이다. 자는 도이(道以), 호는 금곡(錦谷)으로 1705년(숙종 31년)에 왜학에 합격 후 부산 훈도로 근무할 때 **왜관(倭館)**을 중수하여 **성신당(誠信堂)**이라는 편액을 지어 걸었다. 1711년 제8차 조선통신사를 수행하여 일본을 방문했고, 1718년(숙종44)엔 품계가 올라 **문위역관사(問慰譯官使)**로 대마도를 다녀왔다. 이듬해 제9차 통신사 때는 대마도에 들어가 실무를 협의했다. **대마번**의 '**아메노모리 호슈**'를 상대로 외교 교섭을 하면서 깊은 신뢰를 쌓았다. 현덕윤이 사재를 털어 역관 숙소를 고치고 그곳에 '성신당'이란 편액을 붙인 사실을 안 호슈는 탄복하여 '성신당기(誠信堂記)'를 써 현덕윤에게 준다. "... 경치 좋은 곳에서 경치를 찾지 않고 성신이라 이름한 뜻이 가상하다. 교린(交隣)의 길은 성신에 있고, 지금은 물론 훗날에도 그리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당을 보고 교린의 책임자가 된 사람,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진심으로 교류하자는 의미를 담은 글이다. 부산훈도 임무를 마치고 퇴직할 때 초량 주민들은 현덕윤의 업적을 칭송하기위해 1731년 공덕비를 세웠다.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고(待人以誠)/어짊으로 사물을 접하니(接物以仁)/관방의 땅에 공적이 크고(功大關防)/은혜가 고을 백성에게 젖어 들었네(惠洽鄉民)' 이것은 역관 훈도에 대한 최초의 공덕비였다. 그 뒤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위계를 받고 부호군을 지냈다. 시와 문장에 능하였고, 서예에도 뛰어나 초서와 예서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역과동추(譯科同樞) : 역과는 조선 시대 통역사와 번역가와 관련된 직책이다. 외국어 교육과 통역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사역원(司譯院)의 일부였다. 同樞는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가리킨다. 동지중추부사는 주로 문무의 당상관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구의 일원으로 기능했다

왜관(倭館) : 조선시대에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통상과 외교 활동을 하던 특수 시설이었다. 왜관은 일본인들을 위한 접대 시설이자 거주 구역으로, 조선 정부가 일본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問慰譯官使(문위역관사) : 조선 후기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특별한 외교 사절단이다. 조선이 대마번(쓰시마번)의 소씨(宗氏)에게 파견한 외교사절로 왜학역관을 정사(正使)로 하여 구성되었다. 역관사(譯官使) 또는 도해역관사(渡海譯官使)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주요 임무는 쓰시마 번주의 경조사 문위, 쇼군 가문의 경조사 문위, 번주 소씨의 산킨코타이(參勤交代) 후 귀환 축하였다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 교환의 창구 역할을 했으며 쓰시마번과의 경제 활동에 관여했다. 18세기 이후에는 '쇼군 가문에 대한 사절'로서의 성격도 겸비했다.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 및 무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양국 간 정보 교환의 주요 통로였다. 쇼군 습직 축하라는 공식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도해역관과 쓰시마번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협조, 지원, 관행이 존재했다.

문위역관사는 조선 정부가 파견한 공식 사절이면서도, 많은 사안들이 도해역관 차원에서 처리되는 특수성을 가졌다. 이는 조선과 일본 간의 복잡한 외교 관계를 반영하는 독특한 제도였다.

대마번(對馬藩) : 에도 시대 일본의 번(藩) 중 하나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및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세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다. 대마도(對馬島)에 위치하여 한반도와

일본 본토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실무를 전담했다. 조선에 관한 정보가 유입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했으며 조선 국왕과 막부 장군 사이의 관계를 대등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양국의 자국중심주의를 만족시키면서 갈등을 조절했다. 일본은 은과 동을 주고 조선 인삼을 구입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부산에 설치된 왜관을 대마번의 '朝鮮屋敷' 또는 '日本館'으로 인식하면서 왜관을 통해 조선과의 교류 및 무역 활동 수행했다. 에도 시대 전반에 걸쳐 조일 관계의 중심 역할 수행했다. 1869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이 대마번의 조선 사절 파견을 금지하고 외무성으로 업무를 이관했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 : 에도 시대 일본의 대마번에서 활동한 중요한 외교관이자 유학자, 어학자였다. 에도에서 유학을 공부한 후 1693년 26세에 대마번으로 부임했다. 1755년 88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마도에서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실무를 전담하면서 7차례나 조선을 왕래하며 조-일 외교의 선봉 역할을 수행했다. 1711년과 1719년에 조선 통신사의 에도 방문을 수행했다. 한문, 조선어, 중국어에 능통했으며 경상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로 조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일본 최초의 조선어 교과서인 《교린수지》(交隣須知), 대조선 외교 지침서로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린제성》(交隣提醒) 등을 저술했다.

[역과] 숙종(肅宗) 31년(1705) 을유(乙酉)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4위(8/11)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부(父)]

- 성명 : 현한일(玄漢一)
- 품계 : 절충장군(折衝將軍)
- 전공 : 청학(淸學)

[조부(祖父)]

- 성명 : 현철상(玄哲祥)
- 품계 : 통정대부(通政大夫)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호(玄虎)

[외조부(外祖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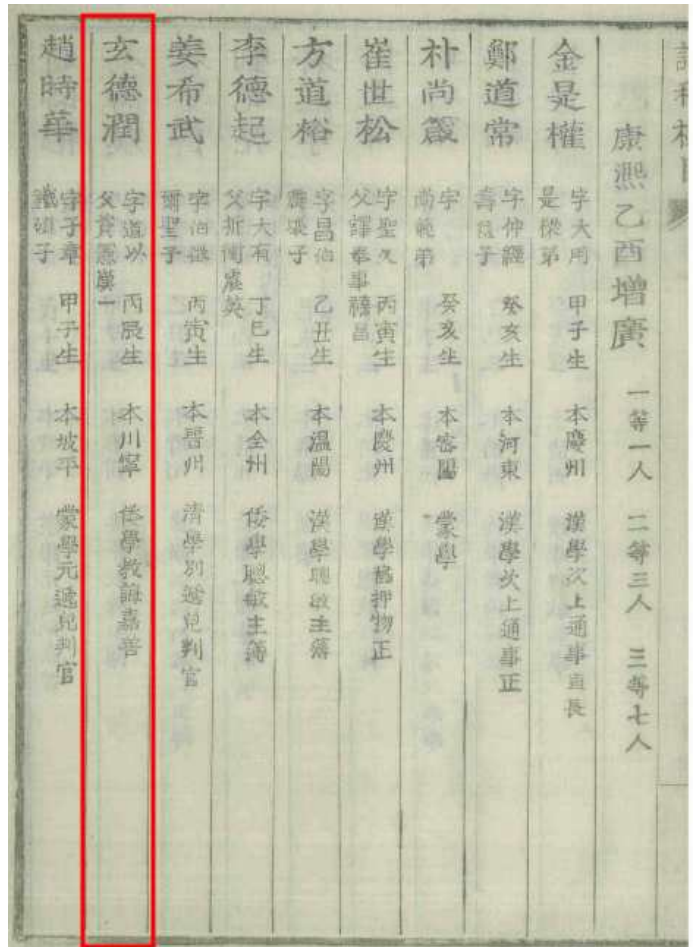
- 성명 : 방효신(方孝信)
- 본관 : 상주(尙州)

[처부(妻父)]

- 성명 : 황만령(黃萬齡)
- 본관 : 창원(昌原)

[안향(鴈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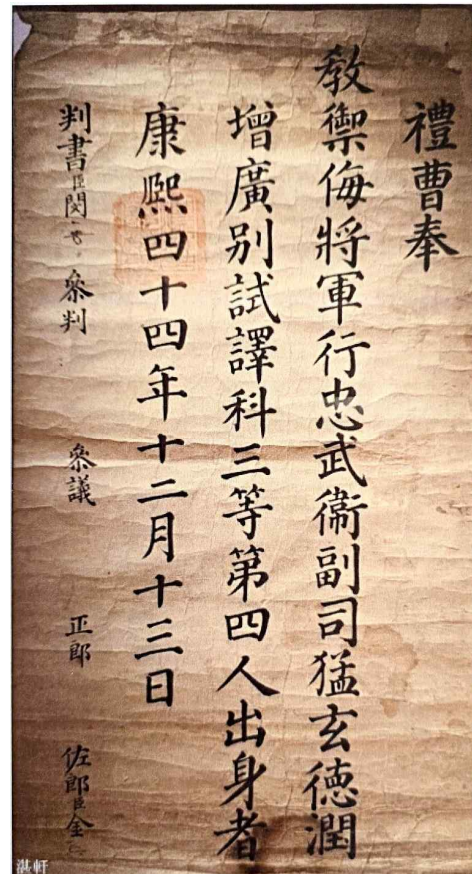
- 형(兄) : 현덕명(玄德明)
- 제(弟) : 현덕창(玄德昌)
- 제(弟) : 현덕화(玄德華)
- 제(弟) : 현덕연(玄德淵)[譯]



- 자(字) 도이(道而)
- 생년 병진(丙辰) 1676년 (숙종 2)
- 졸년 정사(丁巳) (주1) 【補】 1737년 (영조 13)
- 향년 62세
- 합격연령 30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 선발인원 11명 [一等1 · 二等3 · 三等7]
- 품계 가선대부(嘉善大夫)
- 관직 동지(同知)
- 관직 교회(敎誨)
- 관직 주부(主簿)
- 전공 왜학(倭學)



1726년 영조 2년, 조정에서 구리(銅, copper)를 수입해야 상평통보를 만들 수 있는데 일본은 조선에 동(銅)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에 헌덕윤은 1711년 8차조선통신사 교류를 통해서 알고 지내던 대마번 아모노모리호슈에게 편지를 썼다. 아래는 그 편지의 영인본(影印本)이다. 원본은 아메노모리호슈 고향인 다카즈키의 관음노역사자료관에서 소장중이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

是下則十載有餘唯是夢魂有時乎醒：於海外仙山此出感鏤心肝之致而既不能致身於是下塵石又不得終古以俟者久矣將歎之忱曷嘗少弛未知是下亦有一般底懷耶月前獲報抵信我朴今違書則有洪云兩君近況如何之動

命即應厚誼實不知所喻也細惟先矣
是下動止清穆：勉適廣倍常品僕年來忠故連綿感念生痛白髮星已非昔日矣道以者而不幸大昨年又罹匪創同杜摩達直欲溢厥而己今違 顧家以別賢

職物事諸大臣
顧前在事而以不敏實情特遣整齊奉歸七八月而職物聲息甚然無聞先考

營日只隔一朔而自 朝家僅從後事之命前復相望欲歸未歸心緒尤難稍釋

自請奈何依准此時是下在

嚴據左右踰進之地或可有為故人傳便周車之道耶而 國誠信之聞彼所別賢之

事達得誠究則其幸如何古人有詩曰貴人昔未肯成願顧寒微及有登極要

何曾聞布衣豈是下有此事也第念奉別既久貴位且隆未知是下若我

之義比昔如何也伏笑：僕四五年前踰：無惟只與諸浪詩光日事達達於右

山大川而來往之間亦有代斷斷鳴之事：此其惡意不河得肆絕幾至辱目昔

無可觀格調而年前強三郎見僕私稱一篇語及露淫露淫詞伯今使強三郎

是下則十載有餘唯是夢魂有時乎醒：於海外仙山此出感鏤心肝之致而既不能致身於是下塵石又不得終古以俟者久矣將歎之忱曷嘗少弛未知是下亦有一般底懷耶月前獲報抵信我朴今違書則有洪云兩君近況如何之動

命即應厚誼實不知所喻也細惟先矣
是下動止清穆：勉適廣倍常品僕年來忠故連綿感念生痛白髮星已非昔日矣道以者而不幸大昨年又罹匪創同杜摩達直欲溢厥而己今違 顧家以別賢

職物事諸大臣
顧前在事而以不敏實情特遣整齊奉歸七八月而職物聲息甚然無聞先考

營日只隔一朔而自 朝家僅從後事之命前復相望欲歸未歸心緒尤難稍釋

自請奈何依准此時是下在

嚴據左右踰進之地或可有為故人傳便周車之道耶而 國誠信之聞彼所別賢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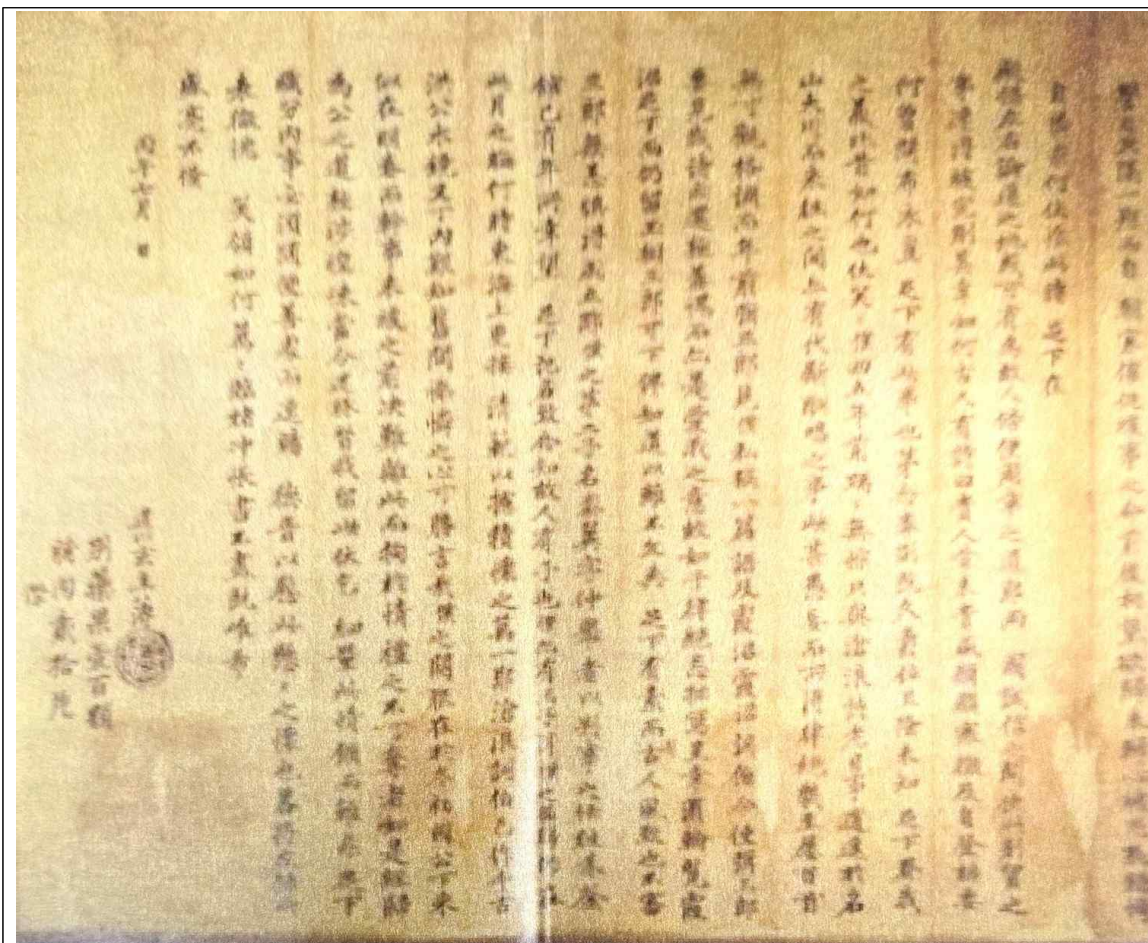
事達得誠究則其幸如何古人有詩曰貴人昔未肯成願顧寒微及有登極要

何曾聞布衣豈是下有此事也第念奉別既久貴位且隆未知是下若我

之義比昔如何也伏笑：僕四五年前踰：無惟只與諸浪詩光日事達達於右

山大川而來往之間亦有代斷斷鳴之事：此其惡意不河得肆絕幾至辱目昔

無可觀格調而年前強三郎見僕私稱一篇語及露淫露淫詞伯今使強三郎



수신: 아메노모리호슈

목적: 철물무역(일본에서 동수입)

왜학훈도 금곡(金谷) 현덕윤(玄德潤)이 아메노모리호슈[雨森芳洲]에게 보낸 편지

죽하와 작별한지 10여년인데도, 꿈속에서 때때로 바다 밖의 선산(山)에 홀을 다니나니, 이는 감흥이 가슴 속에 새겨진 소치에서 나온 것이나, 이미 죽하의 좌우에 이 몸이 갈 수가 없고, 또 서찰을 닦아 문안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쳐다보며 탄식하는 마음이야 조금인들 풀린 적이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죽하께서도 똑 같은 회포를 가지셨는지요? 달포 전에 신재(信哉) 박영(朴令)에게 보낸 서찰을 보았더니, '홍.현(洪玄) 두 군의 근황이 어떠한가'하며 염려해주시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는, 후덕한 마음에 감사하여 실로 무어라 할 말을 모르겠습니다. 멀리 생각건대 늦더위에 죽하의 생활이 편안하시시라 여겨져 구구하게 위안됨이 보통 사람보다 배로 더합니다.

저는 근년에 와서 우환과 사고가 이어져, 걱정이 병이되어 흰머리가 드문드문하니 이미 옛적의 현도이(道以)가 아닌데다, 불행히도 재작년에 또 큰일 [巨創, 부친상]을 당하여 따라 가지 못하여 망극한 마음에 곧장 훌쩍 사라져 없어지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제 조정에서 철물(鐵物)을 별무(別貿: 특별 무역)하는 일을 여러 대신들이 어전에서 확정하였는데, 불민한 저의 이런 심정을 무시하고 특별히 파견하여, 동래 왜관에 와서 칩거하여 7-8개월 동안 지체하고 있는데, 철물과 관련된 소식은 막막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선고(先考)의 기일(忌日)이 단지 한 달 남았는데, 조정에서는 일을 마치라고 재촉하는 명령이 앞뒤로 이어지고 있으나 돌아가려 해도 돌아가지 못한 채 심정만 더욱 극히 어지럽고 놀라우니, 스스로 가련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이런 때에 족하께서는 도노사마 [殿様 : 태수 즉 對馬島主]의 좌우에서 도리를 논하는 처지에 있으니, 혹여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위하여 곁에서 주선해 줄 방도가 있을까요? 두 나라가 성신(誠信)으로 교류하는 사이에 이 별무(別貿)의 일을 속히 완수할 수 있다면 그 다행함이 어떻겠습니까?

옛날 사람의 시에, “귀한 사람이 예전에 귀하지 않아서는, 모두들 한미한 사람 돌보아주기를 바라지만, 요직에 오르면서부터는, 언제 벼슬 많은 사람 사정 물은 적 있더냐?”라고 하였는데, 족하께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작별한 지 이미 오래이고, 작위(爵位)가 또한 높으시니 족하께서 나를 돌봐주는 의리가 예전에 비해 어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웃습니다.

저는 4-5년 전에 홀몸이 되어 즐길 일이 없고 단지 창랑(滄浪) 시로(詩老)와 더불어 날마다 명산대전(名山大川)에 놀러다니기를 일삼았는데, 오가는 사이에 또한 서투른 솜씨로 시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어리석고 망령된 일이나, 지은 율시(律詩)와 절구(絶句)가 거의 수 백 수에 이릅니다. 불만한 격조(格調)는 없지만, 연전에 셋째 아드님(彌三浪)이 저의 사고(私稿) 한 편을 보고는 카쇼우(霞沼)에게 언급하였는데, 카쇼우 사백(詞伯)이 이제 셋째 아드님을 시켜 나의 시를 보고 싶다고 하니 도리어 극히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또한 나를 사랑하는 생각인지라, 그러므로 약간의 율시와 절구를 치졸함을 잊고 베껴 올라오니, 카쇼우 족하에게 돌려 보여주셨다가, 그대로 보배로운 세 아드님(玉樹三郎)의 서안 아래 놓아두시어, 저 도이(道以)가 비록 글은 못하지만 족하와 평소의 친분이 있으며, 옛 사람의 풍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세 아드님은 탈이 없이 모두 성립하였는지요? 저의 둘째 아들, 이름을 태익(泰翼)이라 하고 자를 중거(仲舉)라 하는 자가 판사(判事)의 임무로 부산 왜관에 왕래한 지 이미 해인데, 족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어, 옛날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아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 이달 그믐에 있을 터인데, 어느 때 동쪽 바닷가에서 다시 훌륭한 모습을 접하여 쌓이 회포의 만분의 일이나마 더듬어 보겠습니까? 창랑(滄浪) 사백(詞伯)은 이미 천고(千古)의 객이 되어버렸고, 수경(水鏡) 홍공(洪公)도 내간상(內艱喪, 모친상)을 당하였으니,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의 참담하고 가련한 심사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시즈오카현(静岡県)의
세이겐지(清見寺) 편액
"동해명구(東海名區)"는
현덕윤(玄德潤)의 솜씨다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2년 병진 > 2월 14일 영조 12년 병진(1736) 2월 14일(무인) 아침에는 흐리고 저녁에는 맑음	12-02-14[13] 임소에 있는 동래부 훈도 현덕윤 등을 서리 등을 보내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이중협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동래부 훈도(東萊府訓導) 현덕윤(玄德潤), 별차(別差) 신영래(愼榮來) 등을 잡아다 처리하도록 전지를 계하하셨습니다. 현덕윤과 신영래가 현재 임소(任所)에 있으니,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書吏)와 나장(羅將)을 보내 모두 잡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李重協, 以義禁府言啓曰, 東萊府訓導玄德潤, 別差愼榮來等拿處, 傳旨啓下矣。玄德潤·愼榮來時在任所, 依例發遣府書吏羅將, 竝拿來, 何如? 傳曰, 允。	

勢速棄駒上表事下諭何如 傳曰依臣○入心侍海院言
 勝曰本院彰陰授說書鄭俊一拜疏承批之後上呈若等
 無意出書事甚王安以爲輕視察任何如 傳曰九○以東書
 以朴師公終不進履職傳旨及說書鄭俊一終不進履職傳旨
 傳于李重協曰推有傳旨林入○李重協以義禁府言 傳曰
 東萊府到道守玄德潤別差慎榮未等拿處 傳旨降下玄
 德潤慎榮未時在任以依例發遣府書吏羅將並拿未何
 如 傳曰九○李榕以宗簿寺官負以提調言 傳曰今此
 陵幸時每品中驛平副守煙無疏不為信進云事之駭然其
 為甚不可無察責之道特釋其職以爲懲勵之地何如 傳曰
 九○入心接都監言 傳曰以接速接使移文則勅聲香
 然前頭遲速有不可料二十日外更安他日則必有狼狽矣
 妻之妻二十日後知四日今日官吏爲慶擇反時知妻知
 時渴急之弊云令該曹依此舉行之云云 傳曰知道○
 傳于李榕曰上言公道 傳下例也而今番上言世特數不多其不

그 중에 오륙도를 지었는데 말입니다.
 현덕운은 풍요속선 별집유고에 시를 7개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오륙도이다

오륙도(五六島)玄德潤/7言絶句/在釜

海氣陰晴雲不開 奇峰五六鬱崔嵬 百年天地蒼溟穩 重譯常從日域來	바다 기운은 흐리다가 맑다 구름은 걷히지 않는다. 기이한 봉우리 대여섯 개 뾰뾰이 우뚝하네 오랜 세월 천지의 푸른 바다는 안온한데 역관은 항상 일본 경계에서 오는구나.
--	--

공교롭게도 현덕운 차남 태익은 1766년(영조42년) 사촌동생 태형과 함께 問慰譯官使(문위역관사) 정사(正使)로 대마도를 가던 중에 부산 앞바다 오륙도를 떠나자마자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순직한다.

참고문헌/『통문관지(通文館志)』/『근역서화징(謹域書畫徵)』

月十七日。附葬李通墓左。父曰主簿擇中。祖萬戶昌。恆曾祖僉正永康。系出原城。妣坡平尹氏。護軍某之女也。嗚呼。李通有才行。名世佳士也。孺人臨死從容。言中道理。賢婦人也。然相繼夭歿於數月之中。何稽之酷也。李通之夢告以死日。死日之同其母氏。俱可異焉。豈亦有前定者歟。悲夫。

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玄公墓碣銘

國家置訓導官釜山。以通倭好。倭蹂我多變動。必生事。錦谷玄公。至正色。以臨之。倭敬憚。不敢肆。大修辭宇。蠲供米數百石。事聞。賜秩緋玉。及再任。減送使米。歲百石。以去宿弊。陞從二品。既歸。釜山人立碑頌德。自置訓導來。未有也。蓋公仕象院。積四十年。恪謹公幹。不辭劇易。識慮周詳。善於應變。故能處重地。制異類。使國勢屹若銅柱。甚可偉也。公諱德潤。字道以。錦谷號也。系出驪州。其先曰守。高麗令同正。高祖曰壽謙。贈判決事。曾祖曰虎。幼學。祖曰哲祥。通政。考曰漢一。資憲。妣溫陽方氏。學生信孝女。平山劉氏。禦侮。鑄女。皆貞夫人。公其方氏出也。自知讀書。已若成人。文理日進。不煩誘掖。事父母怡愉。在側務順適。其心於兄弟。衣食百用。與共無常主。所交遊。雖醜酸。

浣巖集 卷四

嘉善大夫 行龍驤衛副護軍 玄公諱德潤之墓 貞夫人昌原黃氏附左。

國家 置訓導官釜山 以通倭好 倭蹂我多變動 必生事。錦谷玄公 至正色 以臨之 倭 敬憚 不敢肆。大修(解)宇 (蜀)供米數百石 事聞賜秩緋玉及再任 減送使米 歲百石 以去宿弊 陞從二品。既歸 釜山人立碑頌德 自置訓導來 未有也。蓋公仕象院 積四十年恪謹 公幹不辭 剖易識慮 周祥善於應變 故能處重地 制異類 使國勢屹若銅柱 甚可偉也。公諱德潤 字道以 錦谷號也。系出驪州 其先曰守 高麗令同正 高祖曰守謙 贈判決事 曾祖曰虎幼學 祖曰哲祥通政 考曰漢一資憲 妣溫陽方氏 學生信孝女 平山劉氏 禦侮博女 皆貞夫人 公其方氏出也。自知讀書 已若成人 文理日進 不煩誘掖事 受母怡愉 在側務順(緒?)其心於兄弟 衣食百用與共 無常主所 交遊雖(鹹?)酸異趣 各得其歡 其自日本 若馬島還 宕裝動千金 輒與昆弟以及知舊貧者至自窘之而無憾焉。其素(養?)有 素(無?)可知 已生於肅宗丙辰 三月二十九日 至歲重甲丁 劉夫人憂 今上丁巳 八月十日不勝喪以卒 聞者咸惜之曰 象胥無人矣。是年潤九月二十二日 葬揚州別非谷向巽之原 配昌原黃氏 僉知萬英女 生于乙卯 二月七日生 公十二年而(勿?)有婦德克相夫子 舉三男 泰壁通德郎 聚尹斗昌女 生三男一女 男商祐商禎 女朴道敬 泰翼僉正 聚金慶興女 生一男一女 男商禎 再聚金壽岳女 泰心聚韓斗山女 小室四女 長姜胤基 公爲人寬厚 有度(典?)下美鬚髯 聲若洪鐘 談論(?)之可聽 能詩工草隸 平居致客 戶屢常滿與 柳下公言詠跌宕 積有卷篇史采而錄之 余於公無少年交也 情好老益 密指以晚暮相依而公今逝矣 使余有漠然 無所向之(歎?)而 今國有南憂 憂在乏人益可 以思公也。呼銘曰 可大(受?)也。而卒以小用時耶 命耶 續以(?)詩爲史采有以自解者 在碣而銘維後之詔 母樵母耕善人之墓 崇禎紀元後 再戊午三月 日 豎

進士 昌山 鄭來僑 撰

不肖孤 泰翼 泣血謹書

덕운 묘갈(차남 태익 書)



이장 직전 마지막 시제 모습
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현덕윤(德潤) 묘소_2005년

이장 직전 마지막 시제 모습
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현덕윤(德潤) 묘비_2005년

덕윤공이 왜학에 합격한 후 倭學(왜학) 堂上譯官(당상역관) 40여 명이 배출되어 대일관계를 좌우하고, 일본과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참고로 조선에서 18세기에 배출된 왜학 합격자는 114명이었는데 그 중에 중랑장공파가 11.4%를 점유한 셈이었다,

또 조선 후기에 대마도에 다녀오는 역관사에는 1718년 德潤(덕윤)公이 파견된 이래 9회나 파견되었다. 통신사 수행 역관으로 파견된 사람도 많았다. 통신사행에는 숙종 37년 역시 德潤(덕윤)公이 파견된 이래 1719년의 사행 이외에는 모두 현씨가 당상역관으로 참여하였다. 대일 외교의 일선인 부산훈도로 활약한 인물도 많았다. 무역 활동을 통한 재산의 축적은 현저하였다. 그리고 한말에는 일제 침략을 당하여 왜어 역관 후손들의 활약이 컸다. 이런 사실은 앞으로 《通信使騰錄》 등을 통하여 그 활약이 더욱 규명되어야 하겠다.

태벽泰璧, 19세, 전의교수찰방(典醫敎授察訪)

덕윤의 장남, 1698년(숙종24년) 태어나서 1760년(영조36년) 돌아가셨다. 덕윤공의 장남이다. 전의교수찰방(典醫敎授察訪)을 지내셨다.

태벽 묘비(갈매 선산)	

시성時成, 21세.

태벽(泰璧)의 손자, 자 지숙(智叔), 만호(萬戶), 1751년(영조27년)에 태어나셨다.

응건鷹健, 22세.

태벽(泰璧)의 증손자, 생부 시우(時遇), 자 여강(汝強), 역과판관(譯科判官), 1802년(순조2년)에 태어나셨다.

철섭哲涉, 26세.

생부 호주(浩柱), 자 수철(守哲), 호 청산(淸山), 1946년생, 마산중부경찰서 파출소장, 옥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국가유공자

병길柄估, 27세.

자 동길(東估), 1975년생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

병재柄在, 27세.

자 재길(在估), 1979년생, 창원시교육청교사

태익泰翼, 19세. 왜학교회(倭學敎誨), 조선통신사 堂上官(당상관) 首譯(수역)

덕윤의 차남, 1701년(숙종27년)에 덕윤공의 차남으로 태어나셨다. 1722년 增廣試(증광시) 왜학에 합격하였다. 자는 仲舉(중거)로 敎梅(교회;교수) 資憲(자헌)이었다. 1763년 正使(정사) 조엄(趙暉)을 따라서 堂上官(당상관) 首譯(수역)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통신사 귀국 후 3년 만인 1766년(영조42년) 사촌동생 현태형과 함께 問慰譯官使(문위역관사) 정사(正使)로 대마도를 가던 중에 부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순직하셨다. 20년 후인 1786년(정조 10년)에 승정대부(崇政大夫)로 추증되셨다.

[역과] 경종(景宗) 2년(1722) 임인(壬寅) 증광시(增廣試) 1등(一等) 2위(2/27)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 중거(仲舉) · 생년 : 신사(辛巳) 1701년 (숙종 27) · 합격연령 : 22세 · 본인본관 : 천녕(川寧) · 거주지 :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덕윤(玄德潤)[譯] ·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 관직 : 동지(同知) · 관직 : 교회(敎誨) · 전공 : 왜학(倭學) [조부(祖父)] · 성명 : 현○○(玄○○)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玄○○) [처부(妻父)] · 성명 : 김경흥(金慶興) · 관직 : 만호(萬戶) · 과거 : 무과(武科) · 본관 : 경주(慶州) [안향(鴈行)] · 형(兄) : 현태벽(玄泰璧) · 제(弟) : 현태심(玄泰心)[譯]	[이력사항] · 선발인원 : 27명 [一等3 · 二等7 · 三等17] · 품계 : 자헌대부(資憲大夫) · 관직 : 교회(敎誨) · 관직 : 동지(同知) · 전공 : 왜학(倭學)

李碩胤	宋泰演	朴道贊	金鳳瑞	玄泰翼	李報實	康熙壬寅增廣	宋景濂	金勗成
字大猷 父司直英哲	字元一 父時穆	字惟一 父折衡箕瑞	字瑞世 父瑞弟	字仲舉 父德子	字仲源 父百齡	一等三人 二等七人 三等十七人	字士源 父世烈	字信成 父鶴子
丁亥生	壬午生	乙酉生	乙酉生	辛巳生	壬午生		庚辰生	甲申生
本陝川	本竹山	本務安	本牛峯	本川寧	本安山		本礪山	本泰安
漢學	蒙學	漢學教誨正憲知樞	漢學教誨正憲	後學教誨資憲	漢學通政		漢學	漢學偶得新龜兒直表
								初名玉相

* 문위행(問慰行) : 조선 후기 조선에서 일본의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파견한 공식적인 외교사절이다. 조선시대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로는 조선국왕이 막부장군(幕府將軍)에게 파견하는 '통신사(通信使)'와 예조참의의 명의로 대마도주에게 파견하는 '문위행'이 있었다. 통신사가 막부와 우호관계 수립 및 그 유지를 위한 사절단이라면, 문위행은 통교의 실무자인 대마도주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절단이었다.

대마도주가 에도 참부(參府)를 마치고 대마도에 돌아오거나, 도주나 장군의 경조사에 문위하는 등, 긴급한 외교 사무를 처리할 때 예조참의의 명의로 당상역관을 대마도주에게 파견하였다. 이들 문위행의 구성과 파견 절차 및 행로는 통신사 파견에 준하여 행해졌다. 평균 4~5년에 한 번씩 파견된 문위행은 20~30년에 한 번 파견된 통신사행에 비해 실질적으로 두 나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문위행은 1811년(순조 11) 통신사가 단절된 이후에도 계속 파견되어 양국의 외교를 지속했다는 데 그 의의가 높다. 1632년부터 1860년까지 모두 54회의 문위행이 파견되었다. 이러한 문위행은 1811년(순조 11) 통신사가 단절된 이후에도 계속 파견되어 양국의 외교를 지속했다는 데 그 의의가 높다. 1632년부터 1860년까지 모두 54회의 문위행이 파견되었다.

변례집요 제1권 / 별차왜(別差倭)

을축년(1745, 영조21)

비변사의 회계에, "예조(禮曹)와 승문원(承文院)에도 역시 천계 갑자년의 등록이 없는데, '도주고휴

차왜(島主告休差倭)를 접대하도록 이미 허락하였으므로 관백이 물러난 것을 알리는 차왜를 접대하지 않기 어렵다.'고 한 것은 진실로 동래 부사가 진달한 바와 같으니 규례대로 접대하도록 하시고, 경접위관 또한 해조에서 차출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또한 승습고경차왜(承襲告慶差倭)가 올 것이며 통신사행까지 있을 것입니다. 경접위관 두 일행에 모두 당상 역관 1인을 뽑아 보내고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왜역 당상(倭譯堂上)은 단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현태익(玄泰翼)**은 작년에 운송 감독[運監]에 관한 범죄를 밝힌 공이 있고, 박상순(朴尙淳)은 사람됨이 가장 뛰어나므로 품계를 올릴 만하니, 이 두 역관을 먼저 가자(如資)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待云者。誠如萊伯所陳。依例接待。京接慰官。亦令該曹差出。前頭。又當有承襲告慶差倭及信使之行。京接慰官兩行。皆以堂上譯官一人差送差備。而卽今倭譯堂上者。只有一人。玄泰翼。有昨年運監罪犯發覺之功。朴尙淳。爲人最勝。可堪陞品。此兩譯爲先加資。

禮曹回啓。關白退休。立其子。告休大差倭。匪久出來。京接慰官預爲差出。依例接待。關白告休差倭。前例無可據之文。惟有關白告訃告慶差倭及島主退休告知差倭接待時。回禮單磨鍊之例。似當以告訃差倭接待時例磨鍊。而令廟堂稟處。

該曹追到關文內。關白告休。前例見失。既無可據。

고전번역서 > 국조보감 > 국조보감 제66권 > 영조조 10 > 최종정보
국조보감 제66권 / 영조조 10
42년(병술, 1766)

○ 6월. 바다를 건너던 왜역(倭譯) **현태익(玄泰翼)** 등이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종행(從行)하던 100명에 가까운 사람과 아울러 모두 익사하였다. 상이 이를 듣고 측은히 여기면서 하교하기를, "의관(衣冠)을 차린 사람이 왕의 일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듣기에 매우 참혹하다. 홀전(恤典)을 거행하되, 혹 아버지가 살아 있는 자는 특별히 음식물을 나누어주고 그 아들은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복(服)이 끝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도록 하라. 그 나머지 함께 갔던 사람들은 서울과 지방으로 하여금 홀전을 거행하도록 하고, 그 처자들도 보살펴주도록 하라. 아, 사내 하나가 제대로 생활을 못 해나가는 것을 가지고도 이윤(伊尹)은 부끄러워하였는데, 차왜(差倭) 6인이 함께 익사하였으니 또한 매우 측은하다. 특별히 수왜(守倭)에게 홀전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처자에게 전해주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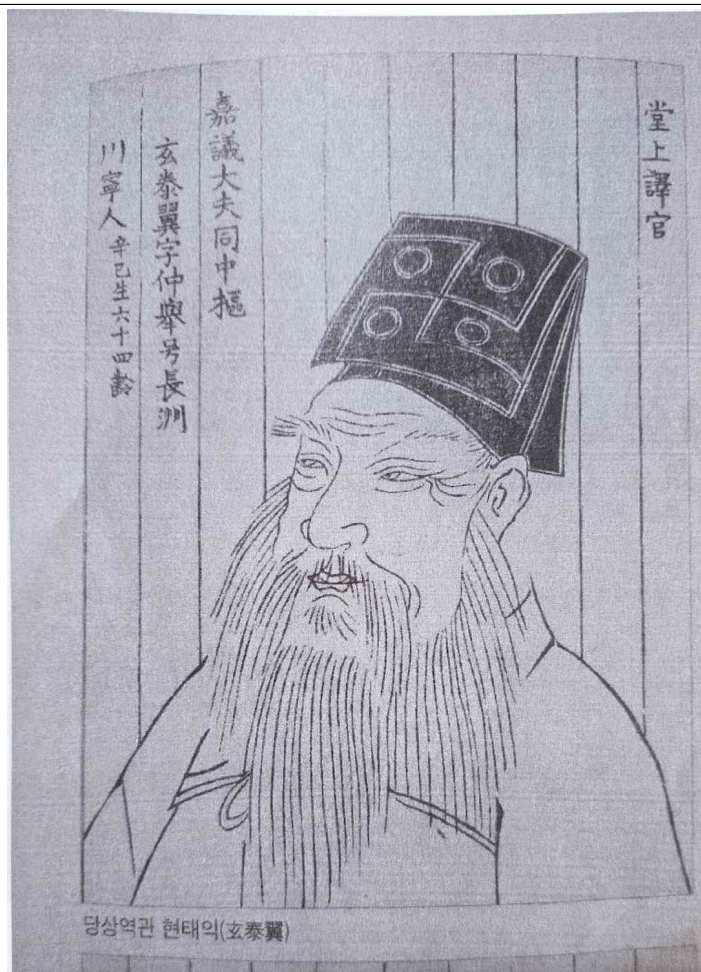
○六月。渡海倭譯**玄泰翼等**。遇風船破。與從行近百人。俱淪沒。上聞之惻然。敎曰。衣冠之人。以王事。至於此。聞甚慘然。恤典舉行。或有親在者。特給食物。其子令該院待闕服調用。其餘同騎人。令京外。恤典舉行。其妻孥。亦爲顧恤。噫。一夫不獲所。伊尹恥之。差倭六人。同藏魚腹。亦甚惻然。特給恤典於守倭處。使之傳給其妻孥。仍命東萊府。設壇海邊賜祭。以慰孤魂。差員統制使並投界。

하고, 이어 동래부(東萊府)에 명하여 해변에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주어 외로운 영혼을 달래도록 하였다. 또 차원(差員)과 통제사(統制使)를 아울러 정배(定配)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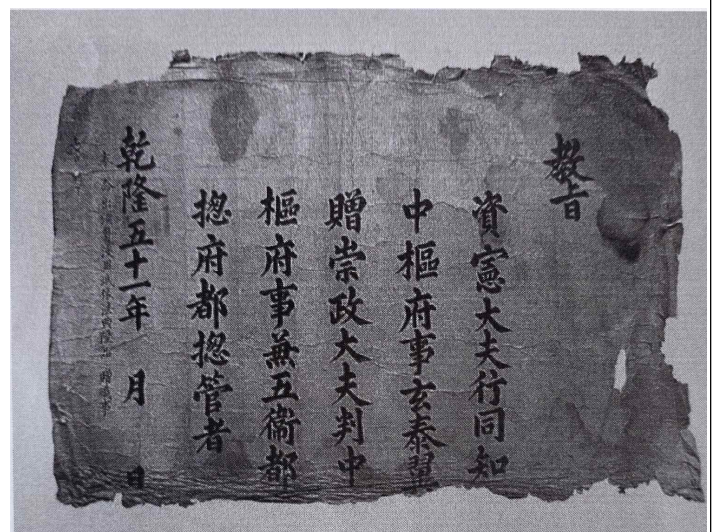
國朝寶鑑 卷六十六

十五歲冲子。復講小學。豈偶然哉。命入侍承旨王堂春坊翰注。各賜弦弓。○六月。渡海倭譯玄泰翼等。遇風船破。與從行近百人。俱湮沒。上聞之惻然。教曰。衣冠之人。以王事至於此。聞甚慘然。恤典舉行。或有親在者。特給食物。其子令該院待闋。服調用。其餘同騎人。令京外。恤典舉行。其妻孥。亦為顧恤。噫。一夫不獲所。伊尹恥之。差倭六人。同藏魚腹。亦甚惻然。特給恤典於守倭處。使之傳給其妻孥。仍命東萊府。設壇海邊。賜祭。以慰孤魂。差員

國朝寶鑑卷六十六 十三



당상역관 현태익 초상



현태익 송정대부 교지



매년 12월 말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초량왜관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위행순국영령추도제가 열리고 있다



태익 상석(갈매)

상정商禎, 20세, 역과(譯科), 어모장군용양위부사맹(禦侮將軍龍驤衛副司猛)

태익의 아들이다, 자 사길(士吉), 1729년에 태어나셨다. 1759년(영조35년)에 역과(譯科) 합격, 어모장군용양위부사맹(禦侮將軍龍驤衛副司猛)을 지내셨다.

정응政應, 27세.

자, **영태(榮泰),** 1959년생, (주)패션브릿지 대표

철섭哲涉, 26세.

생부 호주(浩柱), 자 수철(守哲), 호 청산(淸山), 1946년생, 마산중부경찰서 파출소장, 옥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국가유공자

병길柄估, 27세.

자 동길(東估), 1975년생,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

병재柄在, 27세.

자 재길(在估), 1979년생, 창원시교육청교사

태심泰心, 19세, 倭學敎梅(왜학교회)正, 조선통신사 押物通事(압물통사)

덕운의 3남. 큰아버지 덕만(德萬)에게 양자로 갔다.

4호-철상-2한일-4덕창-1태원 系

덕창(德昌), 18세, 한일(漢一)의 아들. 무인 절충(折衝)장군, 증(贈) 좌윤(左尹)

1681년(숙종肅宗 7년)에 태어났다. 자 대숙(大淑) 절충(折衝) 증좌윤(贈左尹). 1727년(영조英祖 3년) 음력 6월10일 향년(享年) 47세로 돌아가셨다. 덕창(德昌)公의 묘소는 경기도 시흥군 상초리에 있었으나 1968년 강남 개발로 인해 덕창(德昌)公 포함 4基 직계 후손은 경기도 광주시 수양리로 모셨시고, 19세 태원(泰元) 포함 직계 후손 7基는 이천시 양촌리 인근 오천리로 이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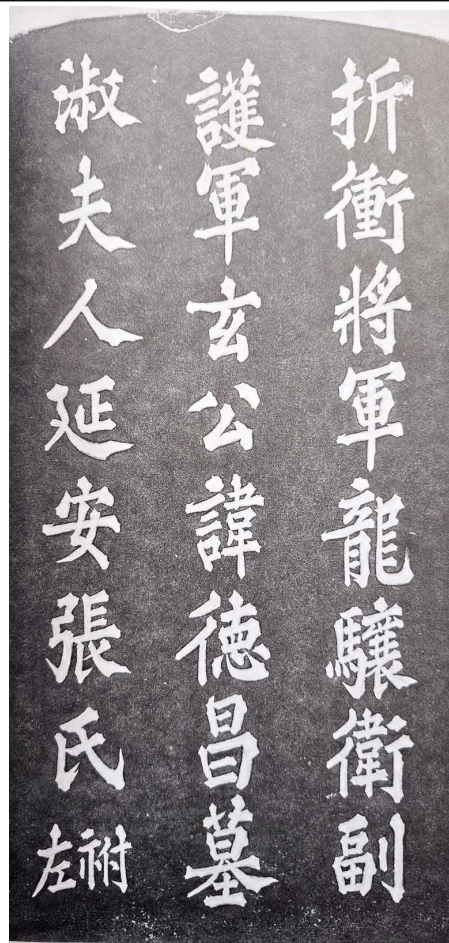


절충장군 덕창(18세) 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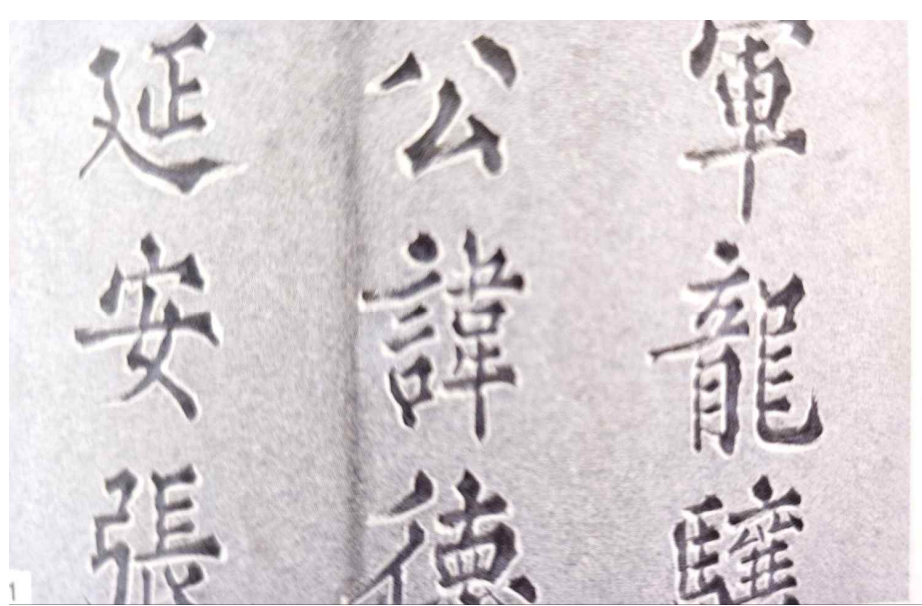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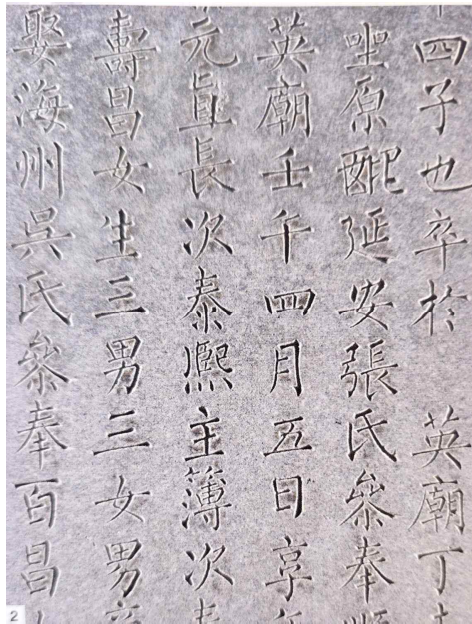
현덕창 묘표의 글씨는 한호(한석봉, 1543-1605)의 글씨를 집자(集字)한 것이다.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국고 지원을 받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금석문 유물을 탁본하고 조사한 <2023년 금석문 탁본 조서 보고서>에 수록되어있다.



묘표 탁본 (前後面) =>



公諱德昌字大叔川寧人高麗令同正諱守之後高祖諱壽謙 贈判
決事曾祖諱虎幼學祖諱括祥通政考諱漢一資憲資憲公聘溫陽方
氏信孝女再聘平山劉氏鏞女公生於 肅廟辛酉十二月二十日方
夫人第四子也卒於 英廟丁未六月十日春秋四十七歲子果川霜
草里士望原醜延安張氏泰奉順謙女生於 肅廟乙丑十月十一日
卒于 英廟壬午四月五日享年七十七附墓于公墓左育三男一女
男長泰元長次泰熙主簿次泰衡命正女適崔震崗泰元娶茂朱崔
氏嘉善壽昌女生三男三女男商祿商尹商說女金雨澤鄭思鑑李宗
植泰熙娶海州吳氏泰奉百昌女無子側出子商麟商鳳泰衡娶密陽
朴氏嘉善尚訥女再娶清州劉氏萬戶克泰女三娶寧海朴氏折衝文
漢女俱無子以泰元第二子商尹為后內外曾玄不盡錄
乾隆庚子 月 日立 前面集韓漢書 陰記集柳公權書



절충장군 덕창(18세)公 묘표

현덕창 묘표는 조선 후기의 무신 현덕창(1681-1727)의 생애와 가계를 간략히 기록한 비이다. 건립 연도는 1780년(정조 4)이다. 현덕창의 본관은 천자는 대숙이다. 자헌대부를 지낸 현한일의 넷째 아들이다. 용양위 부호군 등을 역임하였다. 1727년(영조 3)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비문은 비신의 앞면과 뒷면에 새겨져 있다. 비신 앞면에는 세로 세 줄로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현공휘덕창묘/숙부인연안장씨부좌'라는 제명이 있다. 이는 한호(한석봉, 1543-1605)의 글씨를 집자(集字)한 것이다. 뒷면 비문은 매 행 27자 12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문을 지은 사람은 알 수

없다. 비문의 글씨는 당대 서예가 유공권의 글씨를 집자하였다. 서체는 해서이며, 글씨를 새긴 사람은 알 수 없다.

비는 비신과 하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신과 하대석의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비신은 윗부분을 둥그스름하게 다듬은 형태이다. 비신은 두께가 44cm로, 여느 묘표에 비해 상당히 두껍게 조성된 점이 눈에 띈다. 비신은 지의류로 인한 부분적인 변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신 왼쪽면에 일부 결실된 부분을 보수한 흔적이 있다. 하대석은 직육면체 형태이다. 현재 하대석의 상부만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고, 하부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상태이다. 지상으로 노출된 하대석 상부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다.

현덕창 묘표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44-1에 위치한다. 현덕창 묘는 묘역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덕창 묘표는 봉분 왼쪽에 세워져 있다. 그외에도 묘소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각각 1기씩 배치되어 있다.

<현덕창 묘표에 담긴 내용>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현공휘덕창묘/숙부인 연안장씨부좌

공의 휘(諱)는 덕창(德昌)이요, 자(字)는 대숙(大叔)이며, 천령인(川寧人)으로 고려(高麗) 영동(同正) 휘 수(守)의 후손 이다. 고조(高祖) 휘 수겸(壽謙)은 판서(判書)에 추증(追贈)되었고, 증조(曾祖) 휘 호(虎)는 유학(幼學)이며, 조부(祖父) 휘 철상(哲祥)은 통정(通政)이고, 부친(父親) 휘 한일(一)은 자헌(資憲)이다. 자헌공(資憲公)은 온양방씨(溫陽方氏) 신호(信孝)의 딸을 초취(初娶)하였으며, 평산유씨(平山劉氏) 박(鑄)의 딸을 재취(再娶)하였다.

공은 숙종(肅宗) 신유년(1681년) 12월 20일에 방부인(方夫人)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영묘(英廟) 정미년(1727년) 6월 10일에 작고(作故)하였으니, 춘추(春秋) 47세이다. 과천(果川) 상초리(霜草里) 임좌(壬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연안 장씨(延安張氏)로 참봉(參奉) 순겸(順謙)의 딸이다. 숙종 을축년(1685년) 10월 11일에 태어나, 영묘(英廟) 임오년(1762년) 4월 5일에 작고(作故)하였으니, 향년 77세이다. 공의 묘소 왼쪽에 부장(附葬)하였다.

3남 1녀를 양육하였는데, 장남 태원(泰元)은 직장(直長)이고, 차남 태희(泰熙)는 주부(主簿)이고, 삼남 태형(泰衡)은 첨정(僉正)이며, 딸은 최진강(崔震崗)에게 출가하였다. 태원은 무주최씨(茂朱崔氏) 가선(嘉善) 수창(壽昌)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3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상록(商祿)·상운(南尹)·상(商說)이고, 딸은 김우택(金南澤) 정사(鄭思錫)·이종식(李宗植)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태희는 해주오씨(海州吳氏) 참봉(參奉) 백창(百昌)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지식이 없으며, 측실(側室)의 아들은 상인(商麟)과 상봉(商鳳)이다. 태형은 밀양박씨(密陽朴氏) 가선(嘉善) 상눌(尙訥)의 딸을 초취(初娶)하고 청주유씨(淸州劉氏) 만호(萬戶) 극태(克泰)의 딸을 재취(再娶)하였으며, 영해박씨(寧海朴氏) 절충(折衝) 문한(文漢)의 딸을 삼취(三)하였으나, 자식이 없어서 태원의 둘째 아들 상운(商尹)을 양자(養子)하였다. 내외(內外) 중 현손(玄孫)은 다 기록하지 않는다.

건륭(乾隆) 경자(1780년, 정조 4) 월 일에 세우다. 전면(前面)은 한호(韓濩)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였고, 음기(陰記)는 유공권(柳公權)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였다.

태원泰元, 19세

덕창의 장남, 전의직장(典醫直長), 증(贈) 참의(參議), 1712년(숙종28년)에 태어나셨다.



전의직장(典醫直長) 태원(泰元, 19세)公 묘소



상록商祿, 20세

역과(譯科), 증참판(贈參判), 1732년영조(英祖)임자(壬子)생

[역과] 영조(英祖) 30년(1754) 갑술(甲戌)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3위(13/27)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군백(君百) · 생년 임자(壬子) 1732년 (영조 8) · 합격연령 23세 · 본인 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 사항] · 선발인원 27명 [一等3 · 二等7 · 三等17] · 품계 <u>가선대부(嘉善大夫)</u> · 품계 <u>가의대부(嘉義大夫)</u> · 전공 왜학(倭學)

[부(父)]

- 성명 : 현대원(玄泰元)
- 관직 : 전의감직장(典醫監直長)

[조부(祖父)]

- 성명 : 현대창(玄德昌)
- 품계 : 절충장군(折衝將軍)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한일(玄漢一)
- 품계 : 자헌대부(資憲大夫)

[외조부(外祖父)]

- 성명 : 최수창(崔壽昌)[譯]
- 본관 : 무주(茂朱)

[처부(妻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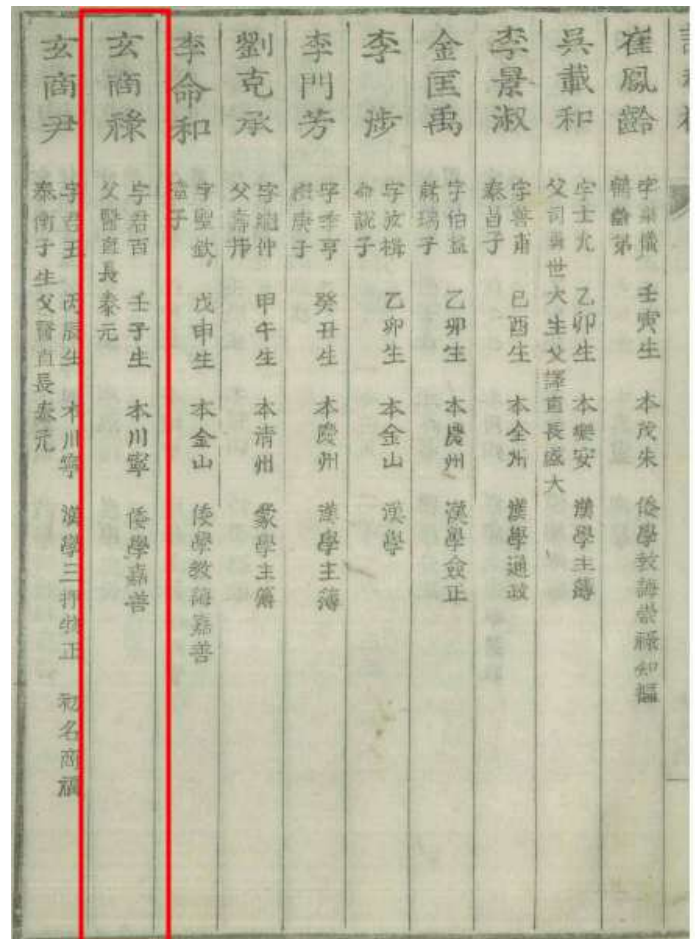
- 성명 : 이인구(李仁耆)
- 본관 : 전주(全州)

[안향(鴈行)]

- 제(弟) : 현상윤(玄尙尹)
- 제(弟) : 현상상(玄尙禧)

[가족과거]

- 숙부(叔父) : 현대형(玄泰衡)[譯]



의돈義敦, 21세.

초휘 시밀(時謚), 자 효안(孝安), 1754년영조(英祖)갑술(甲戌)생

응순膺淳, 2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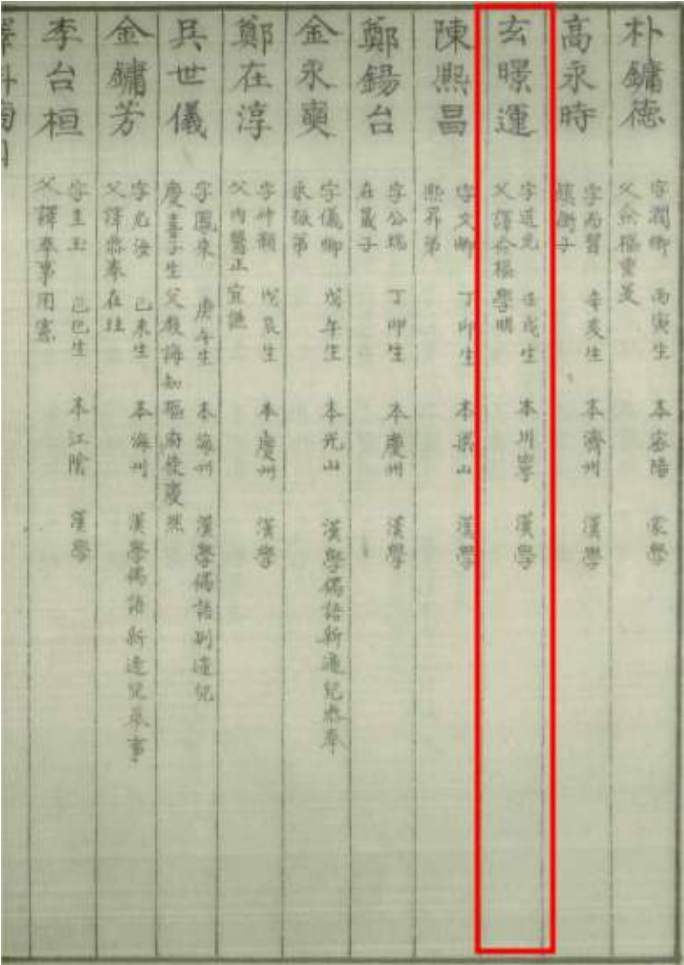
계공랑(啓功郎), 1781년정조(正祖)신축(辛丑)생

학명學明, 23세.

사역가선(司譯嘉善), 1826년순조(純祖)병술(丙戌)생

경운曁運, 24세.

역과주부(譯科主簿), 1861년신유(辛酉)생

[역과] 고종(高宗) 22년(188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3위(17/36)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도원(道元) · 생년 임술(壬戌) 1862년 (철종 13) · 합격연령 24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 선발인원 36명 [一等3 · 二等11 · 三等22] · 전공 한학(漢學) [부(父)] · 성명 현학명(玄學明) · 품계 절충장군(折衝將軍) · 관직 첨지(僉知) [조부(祖父)] · 성명 현○○(玄○○) [증조부(曾祖父)] · 성명 현○○(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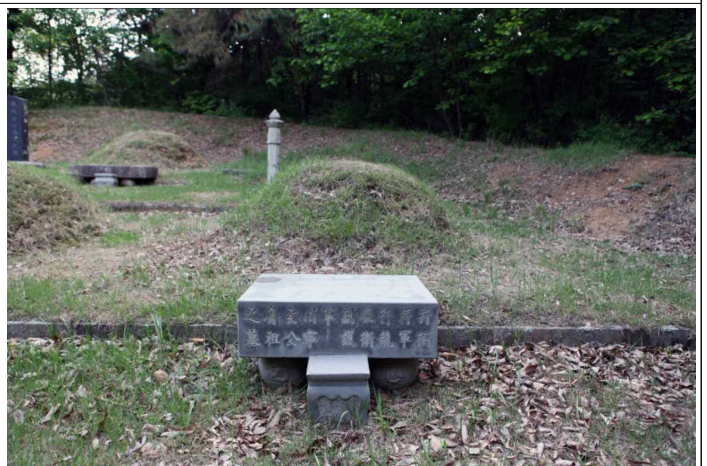
응조鷹祖, 22세.

덕창의 현손(玄孫), 역과절충(譯科折衝), 1784년정조(正祖)갑진(甲辰)생

윤빈胤斌, 23세

사역봉사(司譯奉事), 1831년순조(純祖)신묘(辛卯)생

--	--



의돈義敦(21세), 응순膺淳(22세), 응조膺祖(22세), 학명學明,(23세), 경운暲運(24세) 묘소

홍주鴻柱, 26세, 대한민국 국회의원, 외교관, 정치인, 법조인. 주미대사

1940년 8월 19일 출생. 1978년 2월에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검 검사에서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고검 검사로 승진하였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시, 중앙정보부 대북정책국장 재임하고 있었으며, 1979년 10월 중앙정보부 차장보를 지냈다. 1982년부터 5년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역임하고, 그 후 법제처 처장을 거쳐 1991년 2월 19일 주미대사를 역임했다. 1993년부터 201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에 돌아가셨다.



봉주俸柱, 26세.

1946년병술(丙戌)생, 은행지점장

의온義溫, 21세,

덕창의 증손자, 초휘 시수(時愁), 자 성저(聖箸), 역과자헌(譯科資憲) 1765년영조(英祖)을유(乙酉)생

[역과] 정조(正祖) 22년(179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7위(15/18)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성저(聖著)
 · 생년 을유(乙酉) 1765년 (영조 41)
 · 합격연령 34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상록(玄商祿) [譯]
 ·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 성명 : 현태원(玄泰元)

[증조부(曾祖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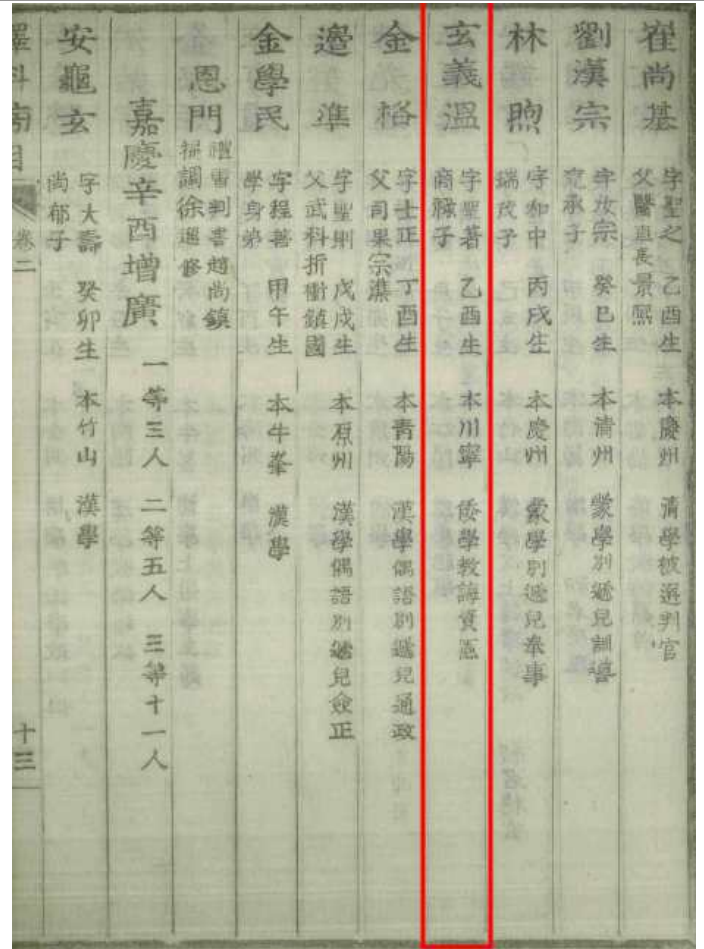
· 성명 : 현덕창(玄德昌)

[처부(妻父)]

· 성명 : 한성철(韓聖哲) [醫]
 · 전공 : 의과(醫科)
 · 본관 : 신평(信平)

[이력사항]

· 선발인원 18명 [一等3・二等5・三等10]
 · 품계 자헌대부(資憲大夫)
 · 관직 교회(敎諭)
 · 전공 왜학(倭學)



일성록 > 순조 > 순조 9년 기사 > 7월 22일 > 최종정보
 순조 9년 기사(1809) 7월 22일(경진)

○ 장계에,
 "훈도(訓導) **현의온(玄義溫)**, 별차(別差) 조행륜(趙行倫) 등의 수본에 '7월 5일 왜(倭)의 비선(飛船) 1척(隻)이 나와서 도해 역관이 비변사와 동래 부사에게 바치는 수본 각 1도(度)와 도해한 일행의 개인적인 편지를 모두 봉한 것 1도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해선(渡海船)의 사정을 탐문하니 대답하기를 「도해한 기복선(騎卜船) 및 호행선(護行船) 등은 지난달 27일 술시(戌時)에 무사히 대마도(對馬島) 좌수포(佐須浦)에 정박하였고 7월 5

09-07-22[06] 동래 부사(東萊府使) 윤노동(尹魯東)이 도해 역관(渡海譯官) 현의순(玄義洵) 등의 수본(手本)이 나왔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狀啓以爲訓導 **玄義溫**別差趙行倫等手本內七月十五日倭飛船一隻出來渡海譯官所呈備邊司 東萊府手本各一度渡海一行私書都封一度來到故探問渡海船事情則答以爲渡海騎卜船及護行船等去月二十七日戌時無事到泊於馬島佐須浦七月初五日到府中云倭等處詰問曰今觀手本則渡海船等去月二十七日到佐須浦待風前進馬島府中計料云而汝等所告中七月初五日到府中云者有何所據耶倭等答以爲七月初五日到府中之說俺等待風所留連時果

일에 부중(府中)에 도착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인들에게 따져 묻기를 「지금 수본을 보니 도해선 등은 지난달 27일에 좌수포에 도착하여 바람이 불기를 기다려 대마도 부중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고한 내용 가운데 7월 5일에 부중에 도착하였다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하니, 왜인들이 대답하기를 「7월 5일 부중에 도착하였다는 말은 저희가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며 체류하고 있을 때 실로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爲聞知故有此納告云
--	-----------

* 일성록(日省錄) : 1760년(영조 36)부터 1910년(융희 4)까지 약 150년간 조선의 역대 임금의 언동(言動)을 날마다 기록한 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73년 12월 31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상윤商尹, 20세, 덕창의 손자, 태원(泰元)의 차남, 태형(泰衡)에게 양자 입적, 증호조참의(戶曹參議),

2용-철상-2한일-4덕창-태원-3상열-계系

상열商說, 20세,

덕창의 손자, 태원(泰元)의 3남, 자 성필(聖弼), 활인참봉(活人參奉), 1746년영조(英祖)병인(丙寅)생

의순義洵, 21세, 상열(商說)의 장남, 자 경천(敬天), 譯科(역과) 승록지추(崇祿知樞), 1765년영조(英祖)을유(乙酉)생

[역과] 순조(純祖) 1년(180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11위(19/19)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성부(聖夫) · 생년 갑신(甲申) 1764년 (영조 40) · 합격연령 38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 선발인원 19명 [一等3・二等5・三等11] · 품계 승록대부(崇祿大夫) · 관직 교회(敎誨) · 관직 지추(知樞) · 전공 왜학(倭學)

[부(父)]

- 성명 : 현상열(玄商說)
- 관직 : 해민서참봉(惠民署參奉)
- 관직 : 활인서참봉(活人署參奉)

[조부(祖父)]

- 성명 : 현태원(玄泰元)
- 관직 : 전의감직장(典醫監直長)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덕창(玄德昌)
- 품계 : 절충장군(折衝將軍)

[외조부(外祖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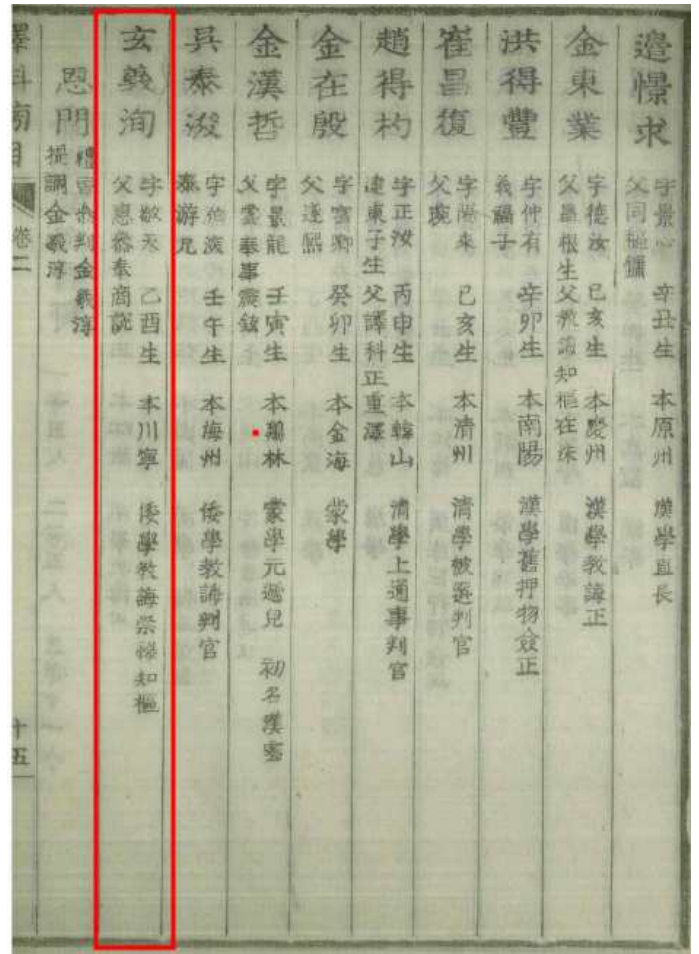
- 성명 : 장숙(張述)[譯]
- 본관 : 인동(仁同)

[처부(妻父)]

- 성명 : 이도민(李道敏)
- 본관 : 남양(南陽)

[안향(鴈行)]

- 제(弟) : 현의준(玄義俊)



일성록 > 순조 > 순조 9년 기사 > 7월 22일 > 최종정보
순조 9년 기사(1809) 7월 22일(경진)

09-07-22[06] 동래 부사(東萊府使) 윤노동(尹魯東)이 도해 역관(渡海譯官) 현의순(玄義洵) 등의 수본(手本)이 나왔다고 급히 장계하였다.

○ 문위 역관(問慰譯官) 현의순 · 변문규(卞文圭), 면의 역관(面議譯官) 최석(崔昔)의 수본에,
“저희 도해 일행은 6월 22일 기복선을 탑니다.
기선(騎船)에는 대마도주 환도 문위 당상 역관(對馬島主還島問慰堂上譯官)인 행 부사직(行副司直) 현의순, 당하 역관(堂下譯官)인 부사맹(副司猛) 변문규가 선장(船將) 1인, 군관(軍官) 11인, 반인(伴人 수행원) 4인, 도훈도(都訓導) 1인, 서계색(書契色) 1인, 예단색(禮單色) 1인, 소통사(小通事) 4명, 소동(小童) 4명, 노자(奴子) 5명, 각항 차비(差備) · 사공(沙工) · 격군(格軍) 등 48명, 도합 80인을 거느리고 함께 탑니다.
복선(卜船)에는 통신행 면의 당상 역관(通信行面議堂上譯官)인 부사직 최석이 선장 1인, 군관 10인, 반인 2인, 도훈도 1인, 소통사 2명, 소동 2명, 노자 2명, 각항 차비 · 사공 · 격군 33명, 도합 53인을 거느리고 함께 탑니다.
당일 미시(未時)에 일제히 승선하여 부산포(釜山浦) 앞

○問慰譯官 玄義洵 卞文奎面議譯官崔昔手本卑職等渡海一行六月二十二日騎騎卜船騎船中對馬島主還島問慰堂上譯官行副司直玄義洵堂下譯官 副司猛 卞文圭率船將一人軍官十一人伴人四人都訓導一人書契色一人禮單色一人小通事四名小童四名奴子五名各項差備沙工格軍等四十八名合八十人同騎卜船中通信行面議堂上譯官副司直崔昔率船將一人軍官十人伴人二人都訓導一人小通事二名小童二名奴子二名各項差備沙工格軍三十三名合五十三人同騎當日未時一齊乘船待風于釜山浦前洋又手本六月二十七日卯時騎卜船與護行裁判差倭船同爲離發同日戌時一齊到泊於對馬島佐須浦更治船中什物待風前進對馬島府中計料

바다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또 수본에, “6월 27일 묘시(卯時)에 기복선과 호행 재판 차왜선(護行裁判差倭船)이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날 술시(戌時)에 일제히 대마도 좌수포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시 선중(船中)의 집물(什物)을 수리하고 바람을 기다려서 대마도 부중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하였다.	
--	--

경운景運, 24세.

상열(商說)의 현손(玄孫), 자 경서(景瑞), 1848년헌종(憲宗)병오(丙午)十二月二十六일생

2용-철상-2한일-4덕창-태형 系

태형泰衡, 19세, 음부사과(蔭副司果) 증통정대부 공조참의(贈通政大夫工曹叅議)

자 치구(致久) 1718년 숙종(肅宗)44년생. 음부사과(蔭副司果) 통정대부 공조참의(贈通政大夫工曹叅議)로 추증되었다. 1766년(영조 42년) 대마도에 문위행(問慰行)역관사로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 사촌형 현태익과 함께 순직했다.

[역과] 영조(英祖) 17년(174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2등(二等) 3위(6/19)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자(字) 치구(致久) ·생년 무술(戊戌) 1718년 (숙종 44) ·합격연령 24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선발인원 19명 [一等3·二等5·三等11] ·전력 교회(敎誨) ·관직 첨정(僉正) ·전공 왜학(倭學)

[부(父)]

- 성명 : **현덕창(玄德昌)**
- 품계 : **절충장군(折衝將軍)**

[조부(祖父)]

- 성명 : **현한일(玄漢一)**
- 품계 : **자헌대부(資憲大夫)**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철상(玄哲祥)**
- 품계 : **통정대부(通政大夫)**

[외조부(外祖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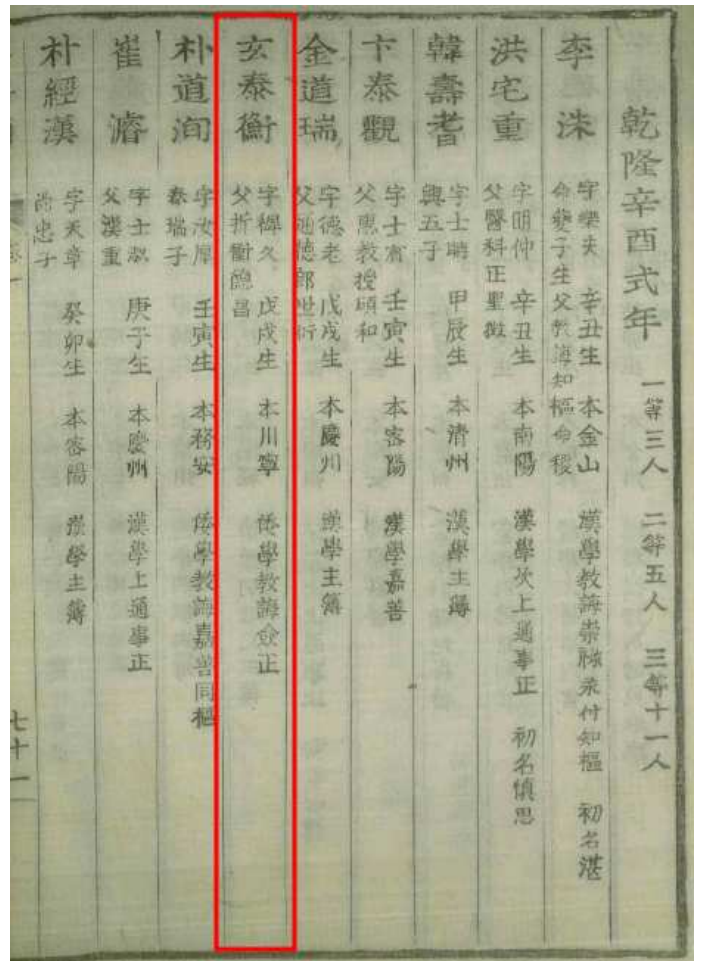
- 성명 : **장순겸(張順謙)**
- 본관 : **연안(延安)**

[처부(妻父)]

- 성명 : **박상눌(朴尙訥)** [譯]
- 품계 : **절충장군(折衝將軍)**
- 전공 : **왜학(倭學)**
- 본관 : **밀양(密陽)**

[안향(鴈行)]

- 형(兄) : **현태원(玄泰元)**
- 형(兄) : **현태회(玄泰會)**
- 제(弟) : **현덕운(玄德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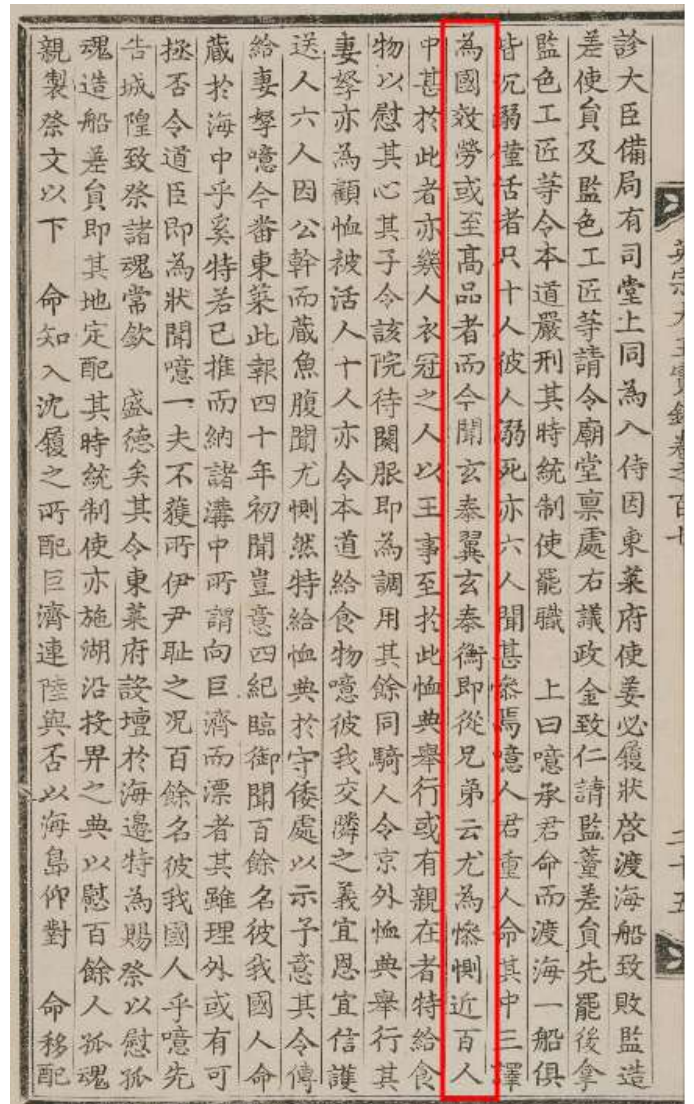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 영조실록 > 영조 42년 병술 > 8월 5일 > 영조 42년 병술(1766) 8월 5일(임인)

동래 부사(東萊府使) 강필리(姜必履)의 장계(狀啓)에 '바다를 건너던 배가 치패(致敗)함을 인하여 감조 차사원(監造差使員)과 감색(監色)·공장(工匠) 등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청하였는데, 우의정 김치인(金致仁)이 감조 차사원을 먼저 파면한 뒤에 나문(拿問)하고, 감색·공장 등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엄형(嚴刑)하게 하며, 그때 통제사(統制使)를 파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 임금의 명을 받들고 바다를 건너던 한 배가 모두 침몰하여 겨우 살아난 자가 10인뿐이며 저쪽 사람의 익사(溺死)도 6인이라 하니, 듣기에 몹시 참혹하다. 아! 임금은 인명을 중하게 여기는데, 그 가운데 세 역관(譯官)은 나라를 위해 수고를 하였으며, 혹은 높은 품계에 이른 자도 있는데, 이제 듣건대 **현태익(玄泰翼)·현태형(玄泰衡)은 바로 종형제(從兄弟)라고 하니**, 더욱 참혹하다. 근 백 사람 중에 이보다 심한 자가 또한 몇 사람이겠는가? 의관(衣冠)을 한 사람이 나랏일로써 이에 이르렀으니 홀전(恤典)을 거행하고, 혹시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음식물을 주어 마음을 위로하게 하며, 그 아들은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복제(服制) 마치기를 기다려서 조용(調

42-08-05[01] 바다를 건너던 배가 치패하자 홀전을 거행하게 하고 친히 제문을 짓다

○壬寅/內局入診。大臣備局有司堂上，同爲入侍。因東萊府使姜必履狀啓，渡海船致敗，監造差使員及監色工匠等，請令廟堂稟處，右議政金致仁，請監差員先罷後拿，監色工匠等，令本道嚴刑，其時統制使罷職，上曰："噫！承君命而渡海一船，俱皆沈溺，僅活者只十人，彼人溺死亦六人，聞甚慘焉。噫！人君重人命，其中三譯，爲國效勞，或至高品者，而今聞玄泰翼·玄泰衡，即從兄弟云，尤爲慘惻。近百人中，甚於此者亦幾人？衣冠之人，以王事至於此，恤典舉行，或有親在者，特給食物，以慰其心。其子令該院，待闋服卽爲調用，其餘同騎人，令京外恤典舉行，其妻孥，亦爲顧恤，被活人十人，亦令本道給食物。噫！彼我交隣之義，宜恩宜信，護送人六人，因公幹而藏魚腹，聞尤惻然。特給恤典於守倭處，以示予意，其令傳給妻孥。噫！今番東萊此報，四十年初聞。豈意四紀臨御，聞百餘名彼我國人命，藏於海中乎？奚特若已推而納諸溝中？所謂向巨濟而漂者，其雖理外，或有可拯否？令道臣卽爲狀聞。噫！一夫不獲所，伊尹恥之，況百餘名彼我國人乎？噫！先告城隍，致祭諸魂，常欽盛德矣。其令東萊府，設壇於海邊，特爲賜祭，以慰孤魂。造船差員，卽其地定配，其時統制使，亦施湖沿投界之典，以慰百餘人孤魂。"親製祭文以下。命知入沈履之所配巨濟連陸與否，以海島仰

對，命移配固城。有李商芝，因右議政金致仁，以商芝有篤老祖母，陳白也。致仁請禁京外各衙門貿穀，允之。



일성록 > 정조 > 정조 10년 병오 > 2월 26일 > 최종정보
 정조 10년 병오(1786) 2월 26일(경자)
 10-02-26[17] 상언(上言) 152건을 각 해사(該司)에 판하(判下)하였다.
 ○ 이조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남부(南部)의 사역원 전함(前啣) 현상정(玄商禎)과 사역원 정(司譯院正) 현상윤(玄商尹) 등의 상언에,
 ‘현상정의 아버지 현태익(玄泰翼)과 현상윤의 아버지 현태형(玄泰衡)은 명을 받들고 바다를 건널 때에 배
 가 침몰하여 빠져 죽었으니, 그 당시에 함께 죽은 역관 이명윤(李命尹)을 증직한 규례대로 동일하게
 여기는 은택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빠져 죽었는데 홀로 은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억울해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함께 《속대전(續大典)》대로 시행해야 마땅할
 것 같으나, 은전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본조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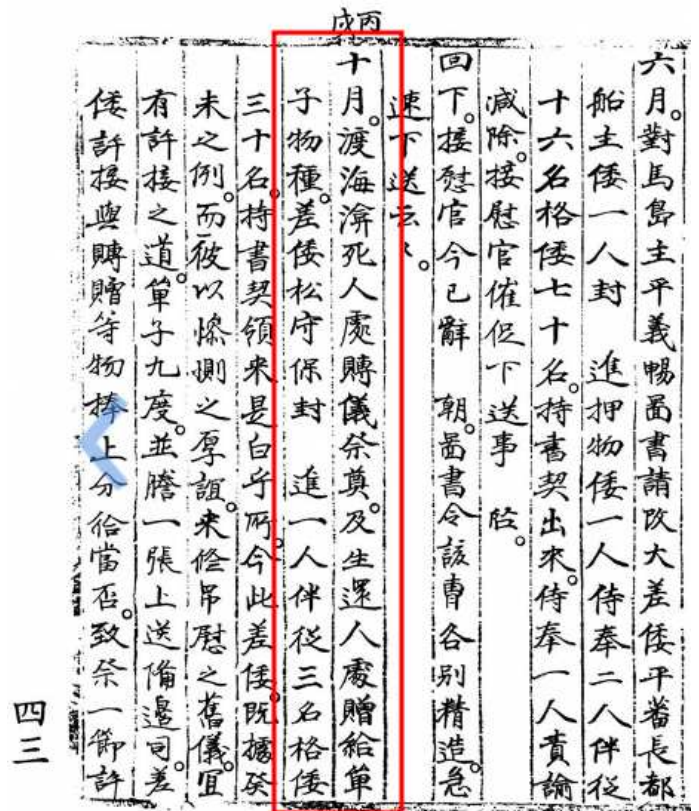
고전번역서 > 변례집요 > 변례집요 제1권 > 별차왜 > 최
 종정보
 변례집요 제1권 / 별차왜(別差倭)
 병술년(1766, 영조42) 10월. “바다를 건너다 빠져 죽은
 사람들에게 줄 부의(賻儀) 및 제전(祭奠)과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지급할 단자(單子)와 물종(物種)을 차왜 송수보

用)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같이 탄 사람은 경외(京外)로 하여금
 홀전을 거행하게 하며, 그 처자(妻子)도 고홀(顧恤)하게 하고,
 살아난 10인도 본도(本道)로 하여금 음식물을 주게 하라. 아!
 저들과 우리가 이웃을 사귀는 도리가 은혜와 신의(信義)로 함
 이 마땅한데, 호송(護送)하는 6인이 공무로 인하여 어복(魚服)
 에 장사하였으니, 듣기에 더욱 측은(惻然)하다. 특별히 수왜처
 (守倭處)에 홀전(恤典)을 주어서 나의 뜻을 보이고, 그 처자(妻
 子)에게 전해 주게 하라. 아! 이번 동래(東萊)의 이 보고는 40
 년 만에 처음 듣는다. 40년을 임어(臨御)하여 백여 명의 저들
 과 우리 나라 인명을 바다 가운데 장사할 것을 어찌 뜻하였
 겠는가? 어찌 자기가 떠밀어서 도랑 속에 넣은 것과 같을 뿐
 이겠는가? 이른바 ‘거제(巨濟)를 향해 표류(漂流)한다.’는 것은
 비록 이치 밖이라 하더라도 혹시 건질 수 있겠는가? 도신(道
 臣)으로 하여금 곧 장문(狀聞)하게 하라. 아! 한 지아비가 의탁
 할 바를 얻지 못하여도 이윤(伊尹)은 이를 부끄러워하였는데,
 하물며 백여 명의 저들과 우리 나라 사람이겠는가? 아! 먼저
 성황(城隍)에 고유하고 여러 영혼(靈魂)에 치제(致祭)하는 것은
 항상 거룩한 덕을 공경함이다. 동래부로 하여금 해변에 단(壇)
 을 설치하고 특별히 사제(賜祭)하여 외로운 넋을 위로하게 하
 라. 조선 차원(造船差員)은 바로 그 땅에 정배(定配)하고, 그때
 의 통제사(統制使)도 호남 연변에 귀양 보내는 율을 시행하여
 백여 인의 외로운 넋을 위로하게 하라.”
 하고, 친히 제문을 지어서 내렸다. 심이지(沈履之)를 정배(定
 配)한 거제(巨濟)가 육지에 연하였는지의 여부(與否)를 알아서
 들이라고 명하였는데, 바다 섬이라고 대답하니, 고성(固城)으
 로 옮겨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이상지(李商芝)를 용서하였으
 니, 우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이상지는 늙은 조모가 있다.’고
 진달한 때문이었다. 김치인이 경외(京外) 각 아문(衙門)의 무곡
 (貿穀)을 금하기를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松守保), 봉진 1인, 반종 3명, 격왜 30명이 서계와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금번의 차왜는 이미 계미년(1703, 숙종 29)의 전례가 있으며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후의(厚誼)로 와서 조위(弔慰)의 예를 표하였으니 마땅히 접대를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단자 9통은 모두 1장에 베껴 비변사에 올려보냈고, 차왜의 접대 및 부의 물품을 받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와 치제(致祭)를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를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장계하였다.

회하하기를, “차왜가 부의 물품을 가지고 온 것은 인호(隣好)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또 계미년의 전례도 있으므로, 향접위관으로 접대하는 것과 부의 물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마땅히 그대로 좇아서 거행하도록 하고, 치제의 일은 사체(事體)상 온당치 못한 점이 있으므로 결코 허락할 수 없다.” 하였다.

병술년(1766, 영조42) 11월. 동래 부사 엄린(嚴璘) 때이다. “바다를 건너다 빠져 죽은 사람 등에게 부의 물품을 가지고 온 차왜 송수보(松守保)는 계미년의 전례에 따라 다례(茶禮)를 행하지 않고 하선연(下船宴)과 상선연(上船宴)의 두 차례 연향만 행하였습니다. 하선연을 향접위관 양산 군수(梁山郡守)가 주관하였으며, 그때 진상(進上)이 없었기 때문에 숙배(肅拜)하지 않고 곧바로 연향청으로 가서 조문하고 부의하였는데, 모두 차왜의 말대로 시행하였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차왜가 바친 서계 2통은 예조에 올려보냈으며, 부의 물품은 즉시 받아 단자를 검사하여 빠져 죽은 사람들의 부모 및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줄 생각입니다.”라고 장계하였다. - 회하는 없었다. -



[주-D001] 바다를 사람들 : 덕천가치(德川家治)가 아들을 낳은 것과 대마도주의 퇴휴(退休)와 승습(承襲)을 문위하기 위해 대마도에 가던 중 배가 침몰되어 사망한 역관 **현태익(玄泰翼)**, **이명윤(李命尹)**, **현태형(玄泰衡)** 등 **일행 93명**을 가리킨다.《宗氏家寶略 義暢君》《增正交隣志 卷6 問慰行》

[주-D002] 계미년의 전례 : 대마도주 평의방(平義方)의 환도(還島)와 구도주 평의진(平義眞)의 죽음을 문위하기 위해 대마도로 향하던 중 파선하여 몰살된 역관 한천석(韓天錫), 박세량(朴世亮) 일행을 가리킨다.《宗氏家寶略 義倫君》《增正交隣志 卷6 問慰行》

조선시대 대일 외교사절

중랑장공파 부사직공계 19세 현태익, 현태형 추도제

중랑장부사직공파 26세 현정주 작성

조선통신사와 함께 조선조 대일외교의 첨병이었던 문위행(問慰行, 쓰시마 도주를 위문하는 외교

사절)의 대표 정사 현태익과 그 사촌동생인 부사 현태형이 1766년(영조42년)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수행원 90여 명과 함께 풍랑으로 순직했다.

조선후기 조선은 통신사를 12차례 에도(현 도쿄) 막부장군에게 보내어 조선국왕의 서계를 전달하였고, 그 사이사이에 54차례 문위행을 쓰시마 도주에게 보내어 위문과 함께 통신사 행차 준비를 하면서 일본 정세를 은밀히 살펴왔다.

이러한 문위행 중에 두 차례 대형 해난사고가 있었다. 1703년(숙종 29년) '23번째 문위행' 때 쓰시마 근해에서 112명 전원이 익사하는 비운을 겪었으며, 현태익이 인솔하는 '39번째 문위행' 때 오륙도 근해에서 93명이 순국했다.

1766년 두 번째 해난사고는 즉각 조정에 보고되어 조선왕조실록, 증정교린지,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때 조선국왕 영조는 매우 슬퍼하면서 후속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정사 현태익과 부사 현태형 사촌지간의 죽음에 더욱 애통해 하면서 서낭당에 성덕을 기리고 동래부사로 하여금 해변에 제단을 설치하여 혼령을 달래도록 하명하였다. 그 승정원일기 원문은 아래와 같다.



承政院日記, 1766年 8月5日, 原文

雖然其中三譯, 爲國效勞, 或至高品者, 而今聞玄泰翼·玄泰衡, 卽從兄弟間云, 尤爲慘惻, 恤典?可舉行, 或有親在者, 特給食物, 以慰其心, 其子令該院待?服, 卽爲調用

[...지금 들으니 현태익과 현태형은 종형제(從兄弟) 사이라 하니 더욱더 지극히 비참하고 측은하다. 홀전을 특별히 더 베풀어 주도록 하고...]

선조 할아버님이 풍랑을 만나서 돌아가셨는데 후손이 먹던 복어의 뱃속에서 그 할아버님 열쇠가 나왔다고 하여 그 뒤로 후손들이 복어 생선을 먹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동보 6수보에 기록되어

있다

泰衡 태형一卷
 字釋久
 肅宗戊戌生蔭副
 司果 贈通政大
 夫工曹叅議英祖
 丙戌七月十九日
 卒公以日本對馬
 島使行渡至中流
 遇颶風沉船而歿
 其後買一海魚得
 鎗鑰於魚腹中即
 公生時手持之物
 嗚呼異哉因以鎗
 鑰及遺衣遺履葬
 于考塋下壬坐有
 表石
 配淑夫人密陽朴氏
 父嘉善尚訥
 墓合封附左

[...일본국 대마도 사절단으로 배를 타고 가던 중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운명했다. 그 후 바다 생선 한 마리를 샀는데 고기 뱃속에서 공이 생전에 지니고 다니던 낚시로 된 열쇠를 발견했다...]
 (연주현씨 대동보 6수보)

이 두 해난사고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오다 1995년 쓰시마 측이 '1703년 문위행' 혼령을 위해 히타카츠 한국전망대에 '문위행역관사순란지비'를 세웠다. 부산초량왜관연구회는 2016년부터 매년 쓰시마를 찾아 추도제를 지내오고 있으며 부산초량왜관연구회(회장 강석환)는 매년 12월 말일에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에서 '문위행 순국 영령 추도제'를 모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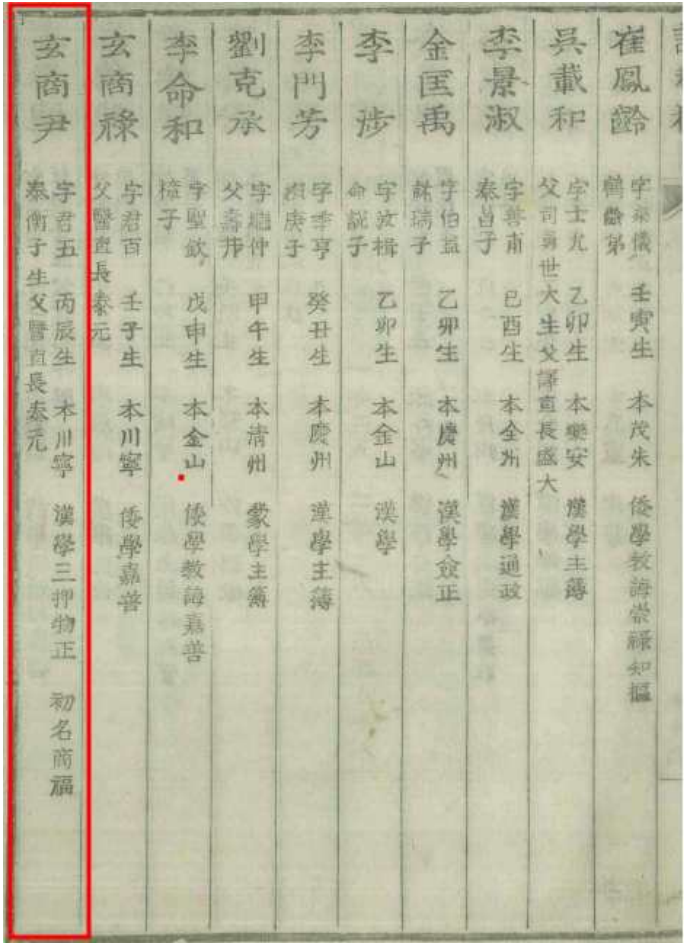


[대마도 조선역관사 순란지비]

부산초량왜관연구회 문위행 해난사고로 순국한 분들을 추도하는 것은 오늘날 굳어진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작은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일본에 이어서 "1766년 문위행" 혼령을 위로하는 추도비 건립을 부산 남구청과 함께 추진해오고있다.

상윤商尹, 20세, 증호조참의(戶曹叅議), 생부(生父)태원(泰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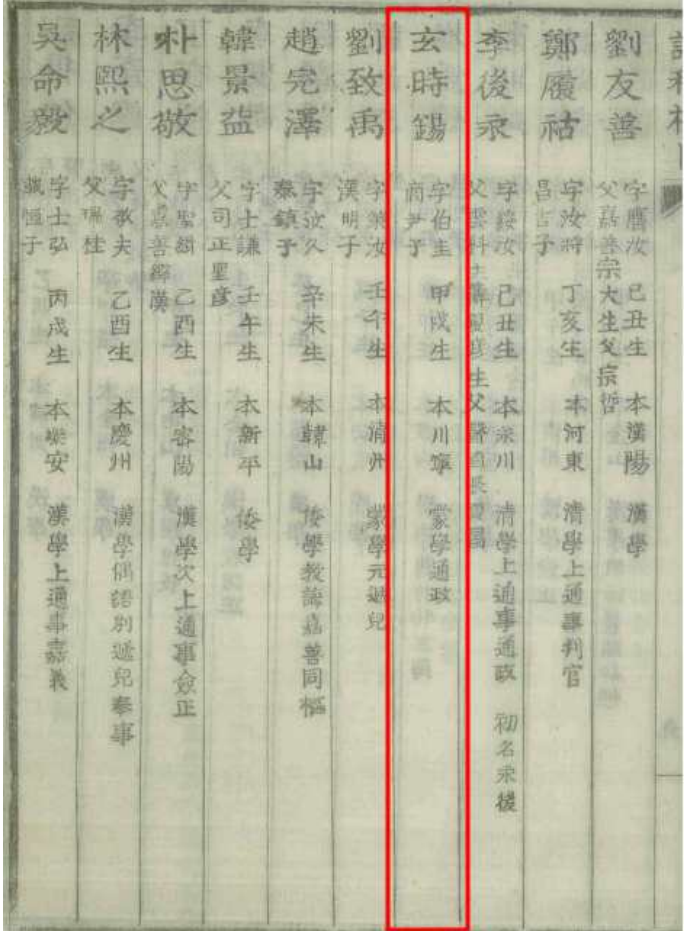
자 군오(君五), 1736년 영조(英祖12년)생, 음부사직(蔭副司直), 증통정대부호조참의(贈通政大夫戶曹叅議)

[역과] 영조(英祖) 30년(1754) 갑술(甲戌)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4위(14/27)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초명(初名) 현상복(玄商福) · 자(字) 군오(君五) · 생년 병진(丙辰) 1736년 (영조 12) · 합격연령 19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태형(玄泰衡)[譯] [생부(生父)] · 성명 : 현태원(玄泰元) · 관직 : 전의감직장(典醫監直長) [조부(祖父)] · 성명 : 현○○(玄○○)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玄○○) [외조부(外祖父)] · 성명 : 유극태(劉克泰) · 본관 : 청주(淸州) [처부(妻父)] · 성명 : 김봉서(金鳳瑞)[譯] · 관직 : 교희(敎誨) · 전공 : 한학(漢學) · 본관 : 우봉(牛峰) [안향(鴈行)] · 본생가 형(兄) : 현상록(玄商祿)[譯]		[미력사항] · 선발인원 27명 [一等3·二等7·三等17] · 전력 압물(押物) · 관직 정(正) · 관직 삼압물(三押物) · 전공 한학(漢學)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43년 병오 > 4월 15일 > 최종정보
고종 43년 병오(1906) 4월 15일(임자, 양력 5월 8일) 맑은 가운데 이따금 흐림
43-04-15[08] 고 부호군 현호민 등에게 추증하였다
○ 고(故) 부호군(副護軍) **현호민(玄好敏)**에게 내부 협판을 추증하고, 고 부호군 **현시석(玄時錫)**에게 비서감 승을 추증하고, 고 부사과(副司果) **현상윤(玄商尹)**에게 예식원 좌장례를 추증하였는데, 이상은 전 시종원 부경 현학두(玄學斗)의 고(考), 조고(祖考), 증조고(曾祖考)에게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시석時錫, 21세, 증가선대부호조참판(贈嘉善大夫戶曹叅判)

자 백규(伯圭), 태형의 손자, 1752년(영조28년)생, 음통정 증가선대부호조참판(蔭通政 贈嘉善大夫戶曹叅判) 증손(曾孫, 24세)들이 개항 이후 특출한 관료 집안을 대표하게 되고 현손(玄孫, 25세) 후손들과 함께 사회나 관료 지배층에서 총체적인 충격을 주었다.

[역과] 정조(正祖) 14년(1790) 경술(庚戌)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6위(16/30)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자(字)] 백규(伯圭) [생년] 갑술(甲戌) 1754년 (영조 30) [합격연령] 37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u>현상윤(玄商尹)</u>[譯] · 관직 : <u>사역원정(司譯院正)</u> ·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 성명 : <u>현태형(玄泰衡)</u>[譯] [증조부(曾祖父)] · 성명 : <u>현덕창(玄德昌)</u> [처부(妻父)] · 성명 : <u>진흥백(秦興白)</u>[醫] · 관직 : <u>내의(內醫)</u> · 전공 : 의과(醫科) · 본관 : 풍기(豊基)	[이력사항] · 선발인원 30명 [一等3·二等7·三等20] · 품계 <u>통정대부(通政大夫)</u> · 전공 몽학(蒙學) ■ 



공조참의 태형(19세)公 묘소



호조참의 상윤(20세)公 묘소



호조참판 시석(21세)公 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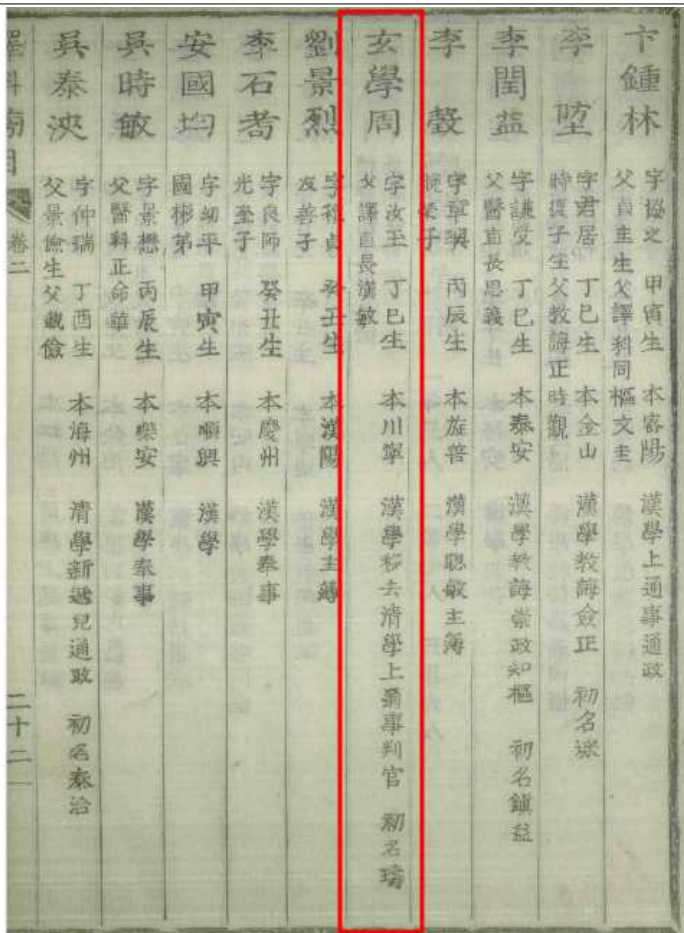
한민漢敏, 22세, 증호조판서(贈戶曹判書)

자 몽뢰(夢賴), 1782년 (정조(正祖)6년)생, 음직장 증정헌대부호조판서(蔭直長 贈正憲大夫戶曹判書)

학주學周, 23세, 사역원판관(司譯院判官), 증호조판서(贈戶曹判書)

자 여옥(汝玉), 1797년(정조正祖21년)생 음사과蔭司果 증자헌대부호조판서贈資憲大夫戶曹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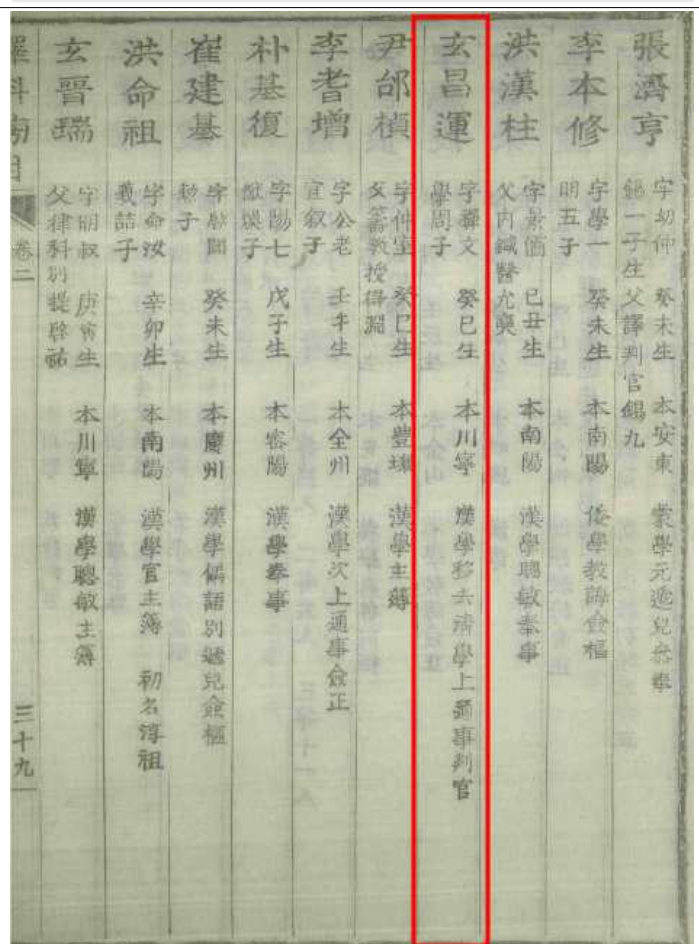
書), 1854년(철종5년)12월5일에 사망하셨다.

[역과] 순조(純祖) 12년(1812) 임신(壬申)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1위(9/19)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고6024-98])
· 초명(初名) 현숙(玄璫) · 자(字) 여목(汝玉) · 생년 정사(丁巳) 1797년 (정조 21) · 합격연령 16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한민(玄漢敏) · 관직 : 차상통사(次上通事) · 관직 : 사역원직장(司譯院直長) [조부(祖父)] · 성명 : 현시석(玄時錫)[譯] · 전공 : 역과(譯科)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상운(玄商尹)[譯] [외조부(外祖父)] · 성명 : 유운복(劉運復) · 본관 : 한양(漢陽) [처부(妻父)] · 성명 : 김우증(金友曾) · 본관 : 고성(固城) [안향(扈行)] · 제(弟) : 현학로(玄學魯)[譯]	[이력사항] · 선발인원 19명 [一等3·二等5·三等11] · 전력 상통사(上通事) · 관직 판관(判官) · 전공 한학(漢學)·청학(淸學)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13년 병자 > 2월 17일 > 최종정보
 고종 13년 병자(1876) 2월 17일(기묘) 맑음
 13-02-17[25] 2차 정사에서 윤영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2차 정사를 하였다. 윤영하(尹永夏)를 평산 부사(平山府使)로 삼았다. 겸직각에 김흥균을 단부하고, 겸 교서관 고리에 김흥균을 단부하였다. 고 판관 **현학주(玄學周)**에게 호조 참판과 그에 따른 예겸(例兼)을 추증하였는데, 동지중추부사 **현석운(玄昔運)**의 **선고**이다. 고 참의 이휘정(李彙廷)에게 이조 참판과 그에 따른 예겸을 추증하였는데, 전 이조 참판 이만운(李晩運)의 **선고**이다.

창운昌運, 24세, 승정원지첨(崇政院知僉)
 자 치문(稹文), 호 죽계(竹溪), 1834년(순조純祖34년)8월14일생. 공의 효행이 순수하고 참되

어 아버지의 병이 심해져 돌아가시려 할때 손가락을 잘라 정성으로 피를 바치니 3일동안 소
 생했다. 공효행순실선대인질극임종단지성혈회소삼일(公孝行純實先大人疾劇臨終斷指誠血回甦
 三일), 1869년(고종(高宗)6년) 11월6일 75세로 돌아가심

[역과] 헌종(憲宗) 15년(1849) 기유(己酉) 식 년시(式年試) 3등(三等) 2위(10/19)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자(字) 치문(稹文) ·생년 계사(癸巳) 1833년 (순조 33) ·합격연령 17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성명 : 현학주(玄學周)[譯] ·관직 : 상통사(上通事)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성명 : 현한민(玄漢敏) [증조부(曾祖父)] ·성명 : 현시석(玄時錫)[譯] [처부(妻父)] ·성명 : 진종환(秦鍾煥)[譯] ·본관 : 풍기(豊基) ·전공 : 한학(漢學)	[미력사항] ·선발인원 19명 [一等3·二等5·三等11] ·전력 상통사(上通事) ·관직 주부(主簿) ·전공 한학(漢學)·청학(淸學)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0년 계미 > 1월 22일 > 최종정보 고종 20년 계미(1883) 1월 22일(갑진) 맑음 20-01-22[17] 《통문관지》 속편을 인쇄하는 데 편집 역사 등을 담당한 교정 한학 당상 현 제보 등에게 가자할 것을 청하는 사역원의 계 ○ 사역원이 아뢰기를, "《통문관지(通文館志)》 속편(續編)을 원 정식에 의거하여 인쇄하였는데, 그 편집 역사(役事)와 간행 비용을 전적으로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담당하여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역사를 끝마친 뒤이 므로 공로에 보답하는 정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정 한학 당상 현제보(玄濟普)·오경연(吳慶然)· 김재신(金載信)·김시옥(金始沃)·방문용(方文鏞)·박재선(朴載銑), 감인 당상 김이주(金履周)·김인식 (金仁弼)·오치검(吳致儉)·이정모(李廷模)·이철무(李哲懋)·진희철(秦喜哲)·윤하정(尹夏楨)·이응상

(李應相) · 오경윤(吳慶潤) · 박유성(朴有性) · 이응선(李膺善) · 김면규(金冕奎), 당하 최창렴(崔昌濂) · 김윤선(金允善) · 박교필(朴敎弼) · 홍한주(洪漢柱) · 이응익(李應益) · 변종서(卞鍾敘) · 이종건(李鍾健) · 오치익(吳致翼) · 한경규(韓慶奎) · 이일형(李日炯) · 박응수(朴應洙) · 박노진(朴魯鎭) · **현창운(玄昌運)** · 방철용(方徹鏞) · 최경환(崔璟煥) · 한기원(韓基源) · 김택희(金鐸熙) · 김병선(金秉善) · 이유수(李柔修) · 백선용(白善鏞)에게 모두 가자하는 상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석운昔運, 24세, 탁지부협판, 수륜원부총재, 봉상사제조,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1837년(헌종3) 탄생, 22세 때인 1858년(철종 9) 식년역과(式年譯科)에서 왜학(倭學)전공으로 합격하여 역관의 길로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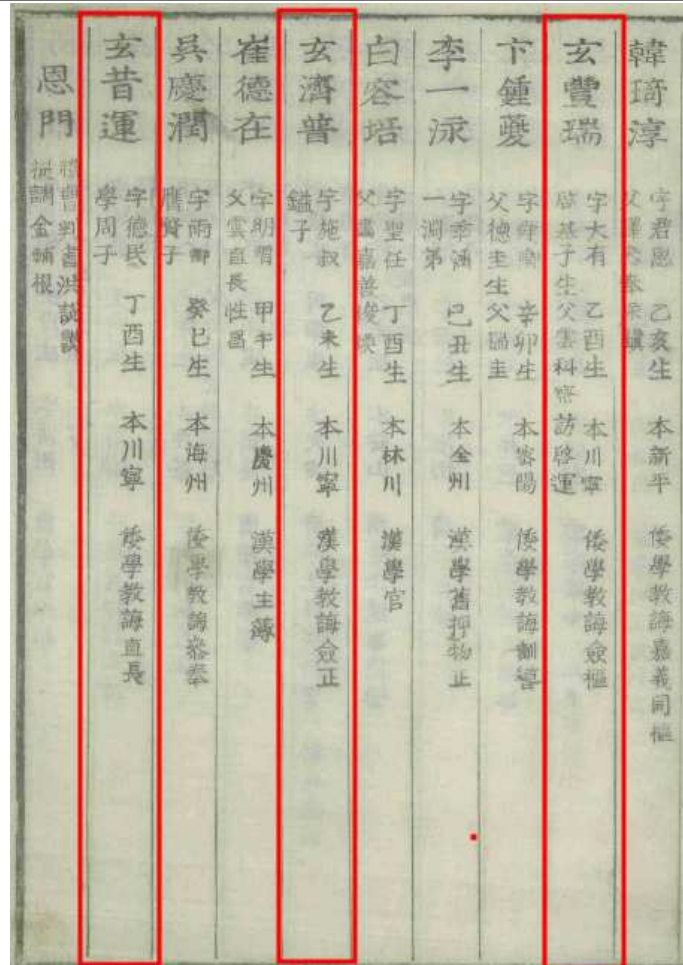
1873년(고종 10)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면서 대일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자, 그동안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수행해왔던 부산훈도 안동준(安東峻)은 이듬해 8월에 유배당하고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조선의 대일정책의 변화 기미를 알아차린 일본이 1875년 4월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벌일 당시 일본 측과의 교섭을 맡았으며, 1876년 1월 일본과의 수교를 위한 강화도회담에도 참여하였다.

이때 대원군으로부터 강화에 반대하는 서한을 받아 접견 대관 신헌(申櫛)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인 1876년 4월 4일에는 수신사 김기수(金綺秀)를 수행하여 당상역관이 되어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 공으로 자헌대부를 받았다.

그 해 10월에 부산훈도가 관찰관(辦察官)으로 개칭되자 관찰관직을 맡았으며, 1878년 부산해관이 설치된 이후 관세권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교회(敎誨)·직장(直長)의 직을 거쳐 1898년 7월에는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되었다.

그후 현감 · 군수, 1903년 2월에 농상공부협판·탁지부협판을 거쳐 탁지아문대신 서리를 지냈다. 10월에는 수륜원부총재(水輪院副總裁)가 되었다. 1906년 6월 봉상사제조를 역임하였고, 중추원 찬의에 올랐다. 1907년 훈2등을 수여받았다. 품계는 종1품 숭록대부에 이르렀다. 1911년에 돌아가셨다.

[역과] 철종(哲宗) 9년(18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16위(28/28)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덕민(德民) · 생년 정유(丁酉) 1837년 (헌종 3) · 합격연령 22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미력사항] · 선발인원 28명 [一等3 · 二等9 · 三等16] · 품계 <u>숭록대부(崇祿大夫)</u> · 관직 <u>교회(敎誨)</u> · 관직 <u>직장(直長)</u> · 관직 <u>총민(聰敏)</u> · 전공 <u>왜학(倭學)</u>

[부(父)] · 성명 : <u>현학주(玄學周)[譯]</u> · 관직 : <u>판관(判官)</u> · 전공 : 청학(淸學) [조부(祖父)] · 성명 : <u>현○○(玄○○)</u> [증조부(曾祖父)] · 성명 : <u>현○○(玄○○)</u> [처부(妻父)] · 성명 : <u>최덕연(崔惠淵)</u> · 전공 : 음양과(陰陽科) · 본관 : <u>직산(稷山)</u> [안향(鴈行)] · 제(弟) : <u>현성운(玄星運)[譯]</u>	
---	---

玄호(虎) 집안은 조선시대에 왜학에서 전통적으로 우세하여, 한학보다 천시되던 왜학에서, 왜관(倭館) 같은 일본에 관계된 부서에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여 상업 및 무역 활동에서 활약했다. 조선의 개항기에 일본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본어에 숙달된 현호(虎) 집안 후손들은 한일관계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구실을 하게 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 조선 측으로 吳慶錫과 더불어 저명한 통역이었던 玄昔運은 이 방면의 대표적인 실례였다.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辦)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

[인물요약]

· UCI	G002+AKS-KHF_13D604C11DC6B4B1837X0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종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후기
· 왕대	대한제국(大韓帝國)
· 본관	미상(未詳)
· 활동분야	관료
· 항목	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辦)

[관인정보]

· 제수년월 1903 [계묘(癸卯) 1월]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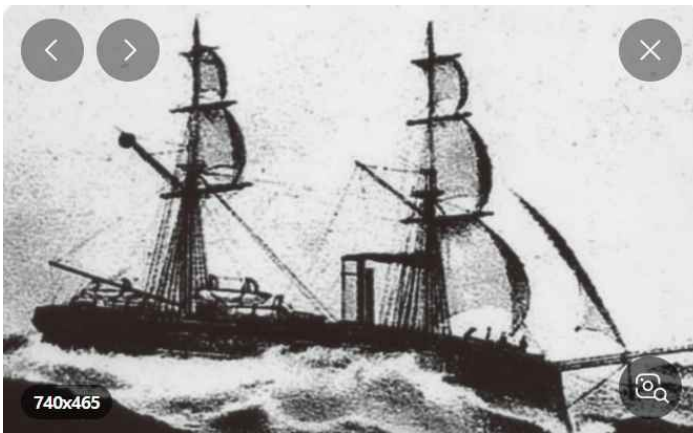
『청선고(淸選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603])

[관련정보]

[사전] 인물 생애 정보

[역과] 철종(哲宗) 9년(18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16위(2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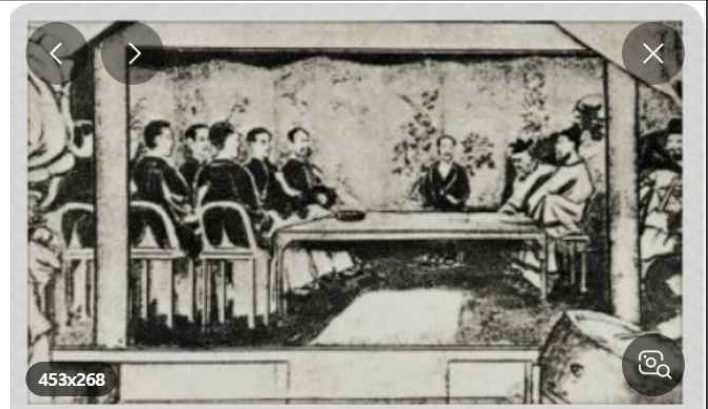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탁지협판(度支協辦)



하늘 위에 추억은 바다 · 네이버 블로그 · 2022.07.03. :
KBS 대하드라마 찬란한 여명 26~40회 등장인물(재작성)



하늘 위에 추억은 바다 · 네이버 블로그 · 2022.08.11. :
KBS 대하드라마 찬란한 여명 강화도 조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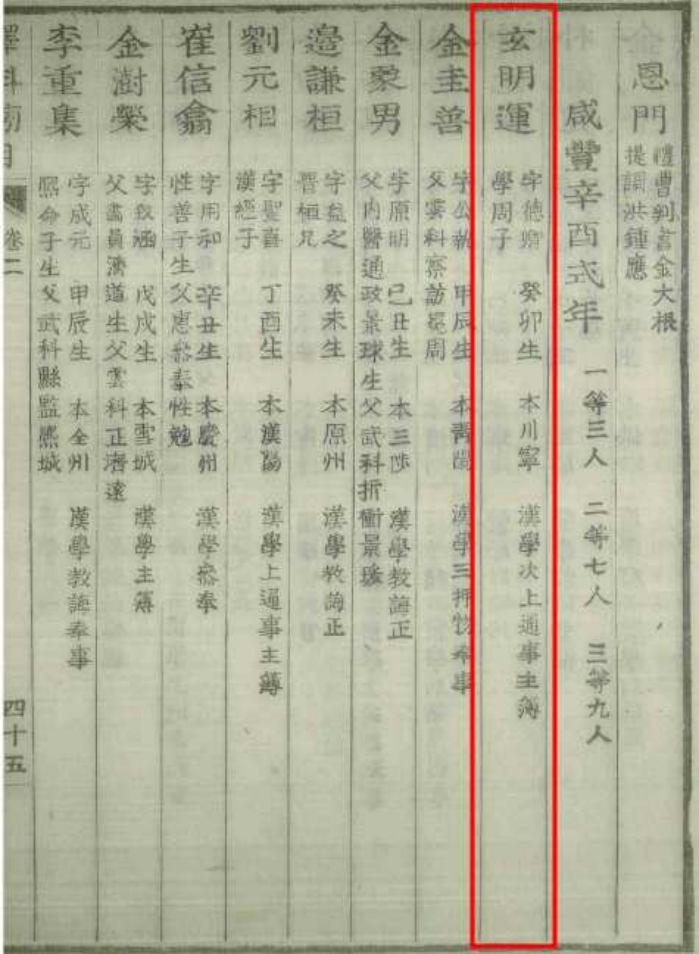


RHEA의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2023.04.12. :
운요호 사건 강화도조약 순서 역사 일본 미국 포함
외교 체결 조선의 개항 내용 불평등조약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조선시대잡과합격자총람』(이성무·최진옥·김희복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한

명운明運, 24세, 동래부윤(東來府尹, 현 부산광역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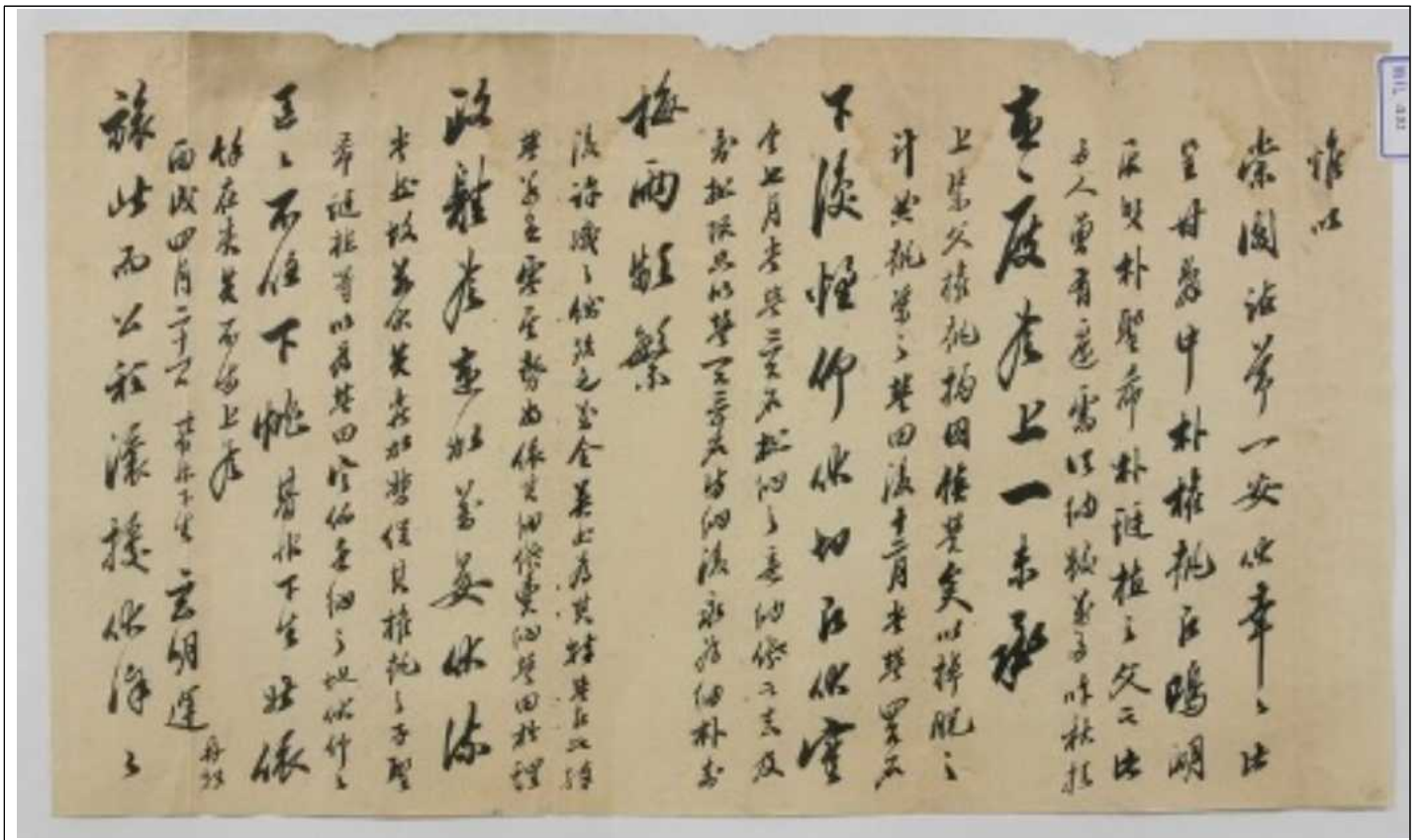
1845년(1843?)헌종(憲宗11년)에 태어났다. 1861년(철종12년)에 식년시(式年試) 장원을 했다. 동래(東萊) 감리(監理) 겸 정3품 동래부윤(東來府尹, 현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했으며, 종2품 가선대부 (嘉善大夫)를 추서받았다. 재직 중 경부철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부산토목합자 회사 (釜山土木合資會社)'를 비롯해 '한일공업조(韓日工業組)', '경부철도경상회사(京釜鐵道慶尙會社)'등의 건설회사를 민관 합작으로 설립하여 대한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1900년 (1902?) 고종(高宗)경자(庚子)에 순직했다

[역과] 철종(哲宗) 12년(186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1등(一等) 1[壯元]위(1/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자(字) 덕경(德卿) ·생년 계묘(癸卯) 1843년 (헌종 9) ·합격연령 19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성명 : <u>현학주(玄學周)</u>[譯] ·관직 : <u>사역원판관(司譯院判官)</u>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성명 : 현○○(玄○○) [증조부(曾祖父)] ·성명 : 현○○(玄○○) [외조부(外祖父)] ·성명 : 김우증(金友曾) ·관직 : <u>내의(內醫)</u> ·본관 : 고성(固城) [처부(妻父)] ·성명 : <u>진계환(秦繼煥)</u>[譯] ·관직 : <u>교회(敎誨)</u> ·전공 : 한학(漢學) ·본관 : 풍기(豊基)	[미력사항] ·선발인원 19명 [一等3·二等7·三等9] ·전력 <u>차상통사(次上通事)</u> ·관직 <u>주부(主簿)</u> ·관직 <u>교회(敎誨)</u> ·전공 한학(漢學)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2년 을유 > 12월 17일 > 최종정보
 고종 22년 을유(1885) 12월 17일(신사) 맑음
 22-12-17[26] 병비의 관원 현황

○ 병비에, 판서 김영수(金永壽)는 나왔고, 참판 윤치성(尹致聖)은 입직이고, 참의 홍재정(洪在正)은 병이고, 참지 조병우(趙秉友)는 병이고, 좌부승지 홍은모는 나왔다.
 이규안(李奎顔)을 지중추부사로, 이원회(李元會)·백남익(白南益)·김동수(金東壽)·손양숙(孫亮肅)을 동지훈련원사로, 한규설(韓圭堯)을 겸 훈련원도정으로, 구연하(具然河)를 선전관으로, 이보헌(李普憲)·윤우검(尹佑儉)을 내금위장으로, 홍필유(洪必裕)를 검사복장으로, 이항재(李恒宰)·**현명운(玄明運)**·정재택(鄭在宅)·조기원(趙基元)·구철희(具徹禧)·이승근(李承根)을 오위장으로, 방경혁(方景赫)·김기순(金基順)을 창덕궁 위장으로, 이한룡(李漢龍)을 훈련원 주부로, 윤용식(尹容植)·이남규(李南珪)를 문신검선전관으로, 윤필영(尹弼永)을 수문장으로, 이희엽(李羲燁)을 황해 중군으로, 최태현(崔泰鉉)을 경상 중군으로, 김만집(金萬集)을 오차포 첨사(吾叉浦僉使)로 삼았다. 지중추부사 가설에 진상옥(秦尙或)을 단부하고, 동지중추부사에 윤우검(尹佑儉)을 단부하고, **침지중추부사 세 자리에 홍필유(洪必裕)·이항재(李恒宰)·현명운(玄明運)을 단부하고**, 동지중추부사 가설에 정경택(鄭經澤)을 단부하였다. 대호군에 김종구(金鍾九), 부호군에 김정묵(金貞默)·이용한(李用漢)·이연화(李連和)·이수화(李秀和)·김석주(金錫疇), 부사직에 심원빈(沈遠彬), 부사과에 맹흠철(孟欽哲), 이상을 모두 단부하였다.

현명운의 친필 서신 (한국국학진흥원 보존)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현명운(玄明運)을 기리기 위해 세운 현명운영세불망비(玄明運永世不忘碑)가 있다. 1901년(고종 38년) 12월에 건립하였다. 1900년(고종 37년) 11월 무안 현감에서 동래 부윤으로 도임하여 1902년(고종 39년) 1월 17일에 사망한 부윤 현명운[1843~1902]을 기리는 선정비이다. 금강 공원 내 임진동래의총(壬辰東萊義塚)으로 진입하는 길의 오른쪽에 모셔 놓은 동래 부사 선정비군 20기 가운데 하나이다.

현명운영세불망비(玄明運永世不忘碑)

비의 앞면에는 ‘부윤 현공명운 영세불망비(府尹玄公明運永世不忘碑)’라는 비제(碑題)와 함께 “공이 이곳에 부윤이 되어 우리 남방을 다스리셨네/ 백성에게는혜로워 폐단을 구해 주고/학교를 일으키고 육성하기 즐기셨다네/정사는 생선 삶듯 조심하셔서/사나운 풍속 사라졌네/이 조그만 돌이 말해 줄 것이니/눈에 새겨 돌지어다 [自公尹茲 鎮我南服 惠民拯瘼 興校樂育 政如烹鮮 俗無佩犢 片石堪言 存之於目]”라고 적혀 있다.	비의 뒷면에는 “광무오년 십이월 일 십이면 립. 행수 군관 사과 정도근, 향장 유학 손재희, 수서기 추한중, 장고 서기 이시응, 호장 서기 문정로, 감동 오위장 추두영, 중군 지사 정한영 [光武五年 十二月 日 十二面立 行首軍官 司果 鄭道根 鄉長幼學 孫在熙 首書記 秋翰中 掌庫書記 李時膺 戶長書記 文正路 監董 五衛將 秋斗永 中軍知事 鄭漢榮]”이라고 되어 있다.
	
동래부윤 현명운 흥학비(興學碑)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1901년 건립	동래부윤 현명운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901년 건립

상건尙健, 25세, 시종원 시종, 고종 밀사, 한성임시정부 평정관, 독립운동가
 경기도 개성 출생으로, 1888년 전보국 주사를 시작으로 궁내부광학국장겸박문원부장, 원수부 육군정위, 시종원 시종, 한성 임시정부 평정관 등을 지냈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5년 무자 > 7월 28일 > 최종정보

고종 25년 무자(1888) 7월 28일(무인) 맑음

25-07-28[10] 주사에 사용 정병로 등을 차하할 것을 청하는 전보총국의 계

○ 또 전보총국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별단(別單) 가운데 감동(監董) 사용(司勇) 정병로(鄭秉魯) · 공학순(孔學淳) · **현왕운(玄旺運)**, 유학 **현상건(玄尙健)**을 모두 본국의 주사로 차하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 판하(判下)하셨습니다. 삼가 판하하신 대로 사용 정병로 · 공학순 · 현왕운, 유학 **현상건**을 모두 주사로 차하하고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하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36년 기해 > 7월 17일 > 최종정보

고종 36년 기해(1899) 7월 17일(임술, 양력 8월 22일) 흐림

36-07-17[15] 비서원 승에 김규형을 임용하였다

○ 비서원 승에 김규형(金奎馨)을 임용하고, 궁내부 번역과장(宮內府繙譯課長)에 **현상건(玄尙健)**을 임용하고, 번역관(繙譯官)에 고희경(高羲敬), **현보운(玄普運)**을 임용하고, 내장원 장원과장(內藏院莊園課長)에 박창선(朴昌善)을 임용하고, 종목과장에 채현식(蔡賢植)을 임용하고, 내장원 주사에 김일병(金日炳)을 임용하고, 장원과 주사에 이장헌(李章憲), 김규진(金圭鎭), 장현규(張顯奎), 윤영수(尹榮洙), 천흥식(千興植), 유신혁(劉臣赫)을 임용하고, 종목과 주사에 장용진(張溶鎭), 유진율(兪鎭律)을 임용하고, 봉상사 주사에 이상철(李象哲)을 임용하고, 영선사 주사(營繕司主事)에 안상설(安商說)을 임용하고, 회계원 주사(會計院主事)에 박기창(朴基昌)을 임용하고, 번역과 주사에 홍병일(洪秉一), 김승국(金升國), 김낙현(金洛鉉), 김낙훈(金洛勳)을 임용하였다. 규장각 주사 오인선(吳仁善) · 장호진(張浩鎭), 전선사 주사(典膳司主事) 나재민(羅在珉)을 겸임 물품사주사에 임용하였다.

규장각 원본국역

〈○〉 詔曰, 命慶尙南道觀察使曹始永爲中樞院議官, 宮內府種牧課長蔡賢植, 物品司長**玄尙健**, 秘書丞宋鍾燁, 開城分奉常司主事金在祚·金秉濟, 種牧課主事張溶鎭·崔萬燮, 內藏司主事劉臣赫[劉臣赫]·金圭鎭·李象哲·李章憲·朴昌善, 黃海道觀察府主事吳奭鎬·趙成海·李民僖依願免本官, 任秘書院丞金奎馨, 任宮內府繙譯課長玄尙健, 任繙譯官高羲敬·玄普運, 任內藏院莊園課長朴昌善, 種牧課長蔡賢植, 任內藏院主事金日炳, 任莊園課主事李章憲·金圭鎭·張顯奎·尹榮洙·千興植·劉臣赫, 任種牧課主事張溶鎭·兪鎭律, 任奉常主事李象哲, 任營繕司主事安商說, 任會計院主事朴基昌, 任繙譯課主事洪秉一·金升國·金洛鉉·金洛勳, 奎章閣主事吳仁善·張浩鎭, 典膳主事羅在珉兼任物品司主事, 任開城府分奉常司主事禹翊漢·金祖源, 命宮內府特進官李正魯, 命太醫院卿徐正淳, 命宮內府特進官金聲根·李承純·任商準·閔泳國·李鑣永, 命掌禮院卿李裕承, 宮內府特進官徐相祖陞正二品, 奉常主事金錫龍, 典膳主事金炳協, 度支主事宋熙元, 太僕主事徐丙炎, 六品李昇九·趙秉澄命追崇都監·追上尊號都監郎廳, 任黃海道觀察府主事崔行敏·李玄器·鄭鉞, 任中樞院議官曹始永, 漢城郵遞司主事吳日炳依願免本官, 任忠州郵遞司主事申台永, 開城電報司主事李昌宇, 任漢城郵遞司主事韓基準, 任農商工部主事吳日炳。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의병 활동에 투신하였다. 3·1운동 이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경기도 개성군 조사원으로 활동하였다. 중국 상하이에서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군자금 모금 등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1903년 용암포사건(龍巖浦事件)을 계기로 러 · 일 양국 사이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8월 광무황제(고종)의 밀사로 러시아와 프랑스에 파견되어 전시국외중립(戰時局外中立)에 대한 유럽 각국의 승인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였다. 1904년 1월 21일 다시 광무황제의 밀명으로 중국 지부로 밀행하여 한국의 국외 중립을 선언하여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등 유럽 각

국으로부터 중립화를 승인받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귀국 후 1904년 2월 일제가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제 체결하자, 이용익(李容翊) · 이학균(李學均) 등과 함께 한일의정서 체결을 결사 반대하였다. 일제로부터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손탁(Sontag)의 집에 피신한 뒤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그 후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왕산(旺山) 허위(許薦)가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상대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자금 모집을 독려하자 이에 호응하여 의병들에게 군자금을 제공하였다.

1909년에는 페트로그라드(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범진(李範晉)이 중심이 되고 러시아 연해주의 이상설(李相高) · 전명운(田明雲), 만주의 유인석(柳麟錫) 등과 함께 상하이에서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 밀사 파견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이 자주독립 국가임과 일제의 만행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1919년 4월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가 조직되자 평정관(評政官)으로 선임되어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선포하였으며, 11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기도 개성군 조사원으로 임명되어 군자금 모집과 민족의식 고취 등 반일 투쟁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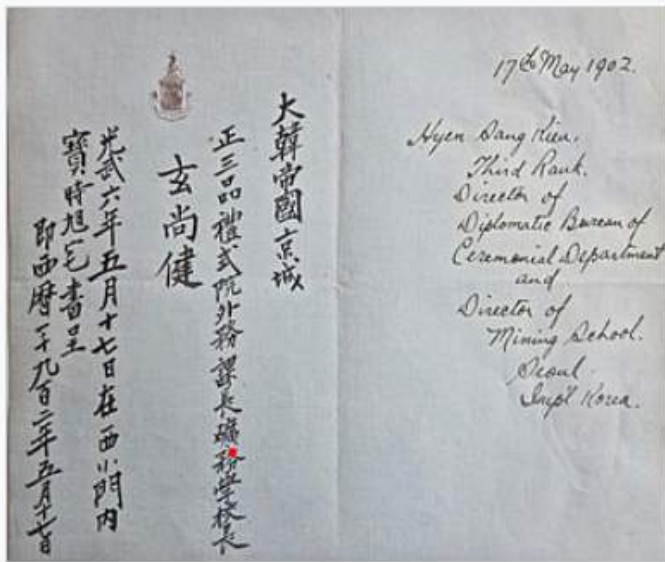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고종황제가 1903년 유럽과 러시아에 밀사로 파견한 현상건.



현상건 (상하이 시절)



현상건의 1902년 자필 명함.

정3품 예식원 외무과장 겸 광무학교장

대한제국과 미국 콜브란이 체결한 전등, 전철, 전화사업 합작계약서. 대한제국을 대표한 이학균(H.K.Ye)과 현상건(Hyen Sang Kien)의 영문 서명이 보인다.

참고문헌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창계, 2017)/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국역 고등경찰요사』 (도서출판 선인, 2010)/『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조선민족운동연감』 별책 2(국가편찬위원회, 2009)/『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국회도서관, 1974)/『독립운동사』 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I(原書房, 1967)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문화회, 1956)

정주正柱, 26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올림픽 대표, 대한축구협회 회장

상건(尙健)의 아들, 1899년(고종 36년) 태어났다. 일본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중학부를 졸업한 뒤 상해 후장대학(滬江大學)에 진학하였다. 재학시절부터 육상 및 축구선수 생활을 하였으며, 1925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7회 극동선수권대회에 중국 대표팀의 선수로 출전하였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에도 중국대표단 임원으로 참가하였고, 1945년에는 상해축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광복과 함께 귀국, 1951년 이후 계속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1952년 헬싱키올림픽대회, 1956년 멜버른올림픽대회, 1960년 로마올림픽대회 등의 대표선수단 섭외임원 또는 회의 대표로 참가하였다.

1954년부터 1966년까지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본부 임원과 아시아경기연맹 평의원을 역임하면서 세계를 향한 우리나라 체육의 도약에 공헌하였다. 1955년에 맡았던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세계인류애한국협회장, 한·오스트레일리아협회장, 서울대학교 후원회장, 주한미군위문협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70년에 돌아가셨다.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현정주(正柱)	

참고문헌

『한국체육사(韓國體育史)』(최경실, 교육연구사, 1983)/『육상(陸上)』(나현성, 동양문화사, 1982)



호조참판 시석(21세)公 묘소



주미대사 홍주(26세)公 묘소

병구炳九, 27세, 공학박사, 서울대 공대교수, 대한민국학술원 정회원

1930년(경오庚午2월11일)생, 경기중고졸, 서울대 공대졸, 공학박사, 서울대 공대교수, 미국 콜로라도스쿨오브마인즈졸, 서울대대학원 교수, 자원개발연구소장, 한국동력자원연구소소장, 대한민국학술원 정회원,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명예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보국훈장삼일장(三一章), 국민훈장모란장(牡丹章)



현병구 박사



현병무 대표이사

병무(炳武, 27세) (주)미주산업 대표이사, 누리물산 회장

병유(炳柔, 2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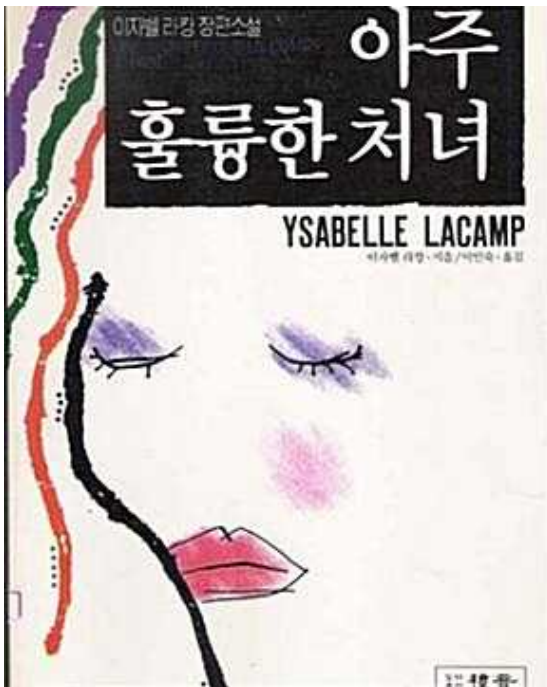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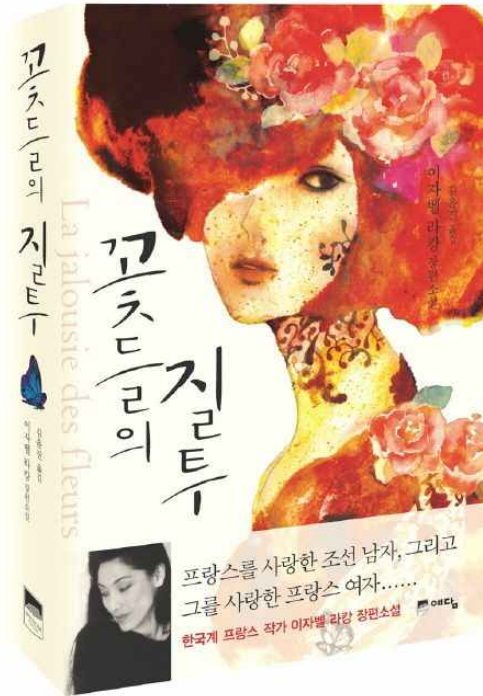
6·25 종군 르피가로지 기자이자 유명한 르노도상을 수상한 소설가이기도 했던 「막스·올리비에·라캉」의 부인, 이대 영문과 졸업. 딸은 베스트셀러 『용의 입맞춤』(원제=Le Baiser du Dragon)을 쓴 프랑스 여류작가 **이사벨·라캉이다**. 라캉은 20대에 패션모델을 직업으로 삼았을 만큼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으며 TV드라마·영화 등에서 주연급 역할을 맡는 현역 배우 겸 가수이기도 하다.

이사벨 라캉(Ysabelle Lacamp)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5452>

채미采薇, 26세, 중국 동양화가, 중국 상하이 농공당(農工黨)의 위원

당대 최고의 동양 수묵화 작가인 장대천(張大千)의 제자인 진종주(陳從周)으로부터 장대천의 동양화 화법을 전수받은 저명한 중국의 동양화가이자, 상하이 농공당(農工黨)의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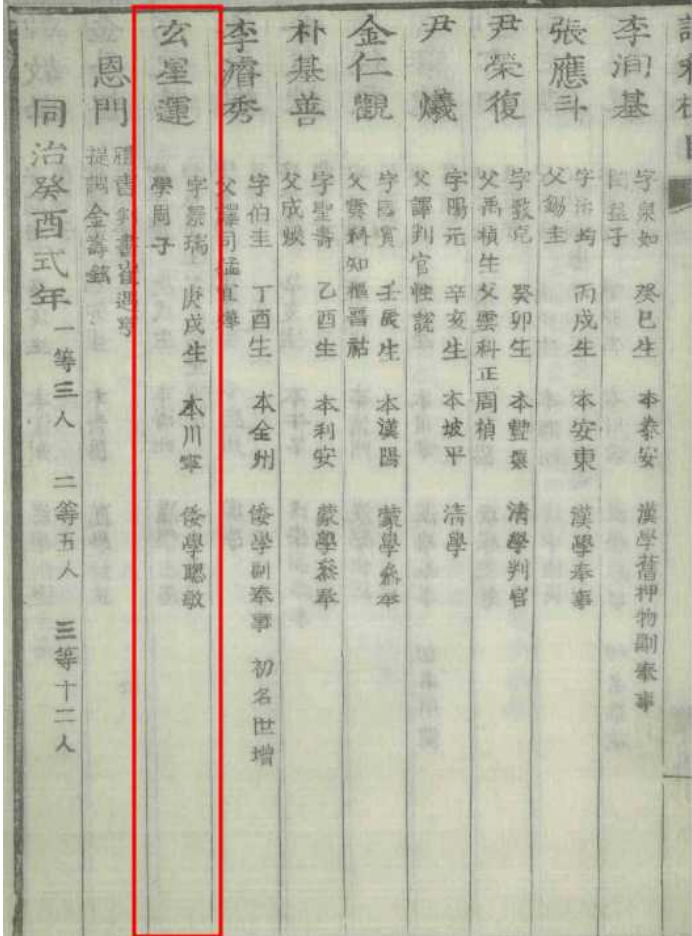


프랑스 여류작가, 배우, 가수 **이사벨 라캉**

<https://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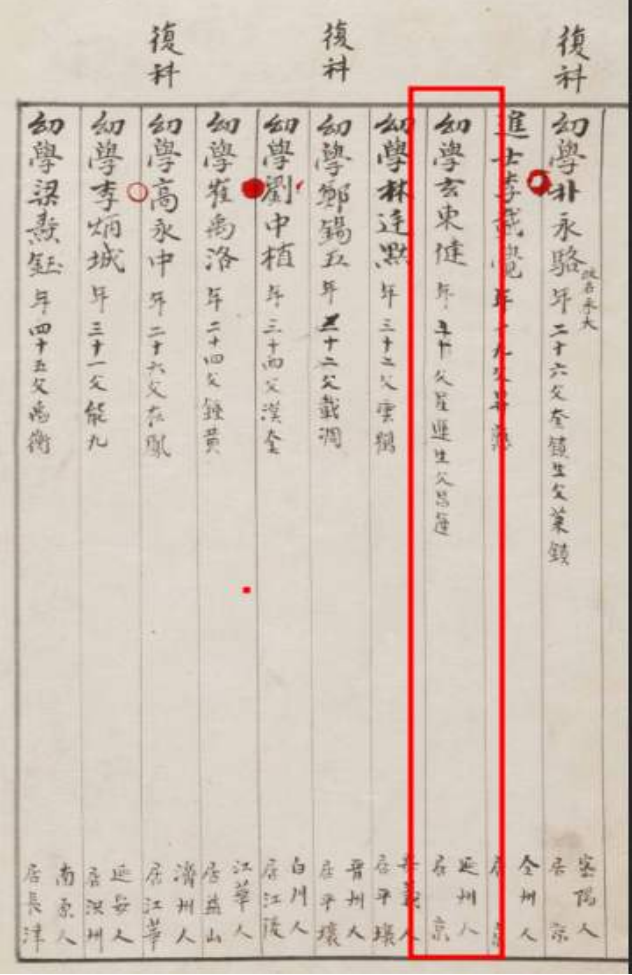
성운星運, 24세, 승록대부동지중추부사(崇祿大夫同知中樞府事)

자 경서(景瑞), 호 남제(南濟), 1850년(철종1년)7월18일생, 승록대부동지중추부사(崇祿大夫同知中樞府事), 1885년(고종(高宗)22년)10월25일에 사망하셨다.

[역과] 고종(高宗) 7년(1870)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9위(19/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 경서(景瑞) · 생년 : 경술(庚戌) 1850년 (철종 1) · 합격연령 : 21세 · 본인본관 : 천녕(川寧) · 거주지 :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학주(玄學周)[謹] · 관직 : 사역원판관(司譯院判官) ·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 성명 : 현한민(玄漢敏)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시석(玄時錫)[謹] [처부(妻父)] · 성명 : 김경우(金景遇) · 본관 : 설성(雪城) · 전공 : 역과(譯科) [안향(鴈行)] · 형(兄) : 현석운(玄昔運)[謹]	[이력사항] · 선발인원 : 19명 [一等3 · 二等7 · 三等9] · 전력 : 총민(聰敏) · 관직 : 교회(敎誨) · 전공 : 왜학(倭學)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17년 경진 > 5월 10일 > 최종정보 고종 17년 경진(1880) 5월 10일(정축) 맑음 17-05-10[41] 신병이 있는 두모포 관찰관 오치묵을 파출하고 후임에 현성운을 차하할 것을 청하는 사역원 도제조 등의 계 ○ 조병식이 사역원 도제조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두모포 관찰관(豆毛浦辦察官) 오치묵(吳致默)이 신병이 갑자기 중해져서 부임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즉시 파출(罷黜)하고 그 대임으로 현성운(玄星運)을 차하하여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하비하게 하여 며칠 안으로 말을 주어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玄星運의 육촌들인 百運, 普運, 哲運, 慶(敬,擎)運과 裝運은 모두 어려서 일본어 학습을 받고, 1890년대와 1900년대에 정부관직에 근무했다.
--	--

동건東健, 25세, 문과 장원, 어사(御史), 삼시(사헌부·사간원·홍문관) 관리
 1863년(철종 14)에 태어났다. 1892년 문과에 장원 합격하고, 어사로 임명되었다. 삼시인 사헌부·사간원과 홍문관을 거치면서 당시 폐단을 고종에게 상소하여 여러 번 위험을 겪었다. 족보 기록에 ‘문과장원 경양사옥당종묘대가자 평리원검사 비서원승 소간불기누경험위(文科壯元 經兩司玉堂宗廟大加資 平理院檢事 祕書院丞 疏諫不己屢經險危)’라 돼있다.

[문과] 고종(高宗) 29년(1892) 임진(壬辰) 별시(別試) 병과(丙科) 43위(47/64)	국조방목(國朝榜目)』 卷之十三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 생년 계묘(癸卯) 1843년 (헌종 9) · 합격연령 50세 · 본인본관 연주(延州) · 거주지 한성([京]) [이력사항] · 선발인원 64명 [甲1 · 乙3 · 丙60] · 전력 유학(幼學) [부(父)] · 성명 현성운(玄星運) [생부(生父)] · 성명 현창운(玄昌運) [조부(祖父)] · 성명 현○○(玄○○) [증조부(曾祖父)] · 성명 현○○(玄○○)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시강원시독관(侍講院侍讀官)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관인정보] · 제수년월 1904 [갑진(甲辰) 3월] [출전] 『청선고(淸選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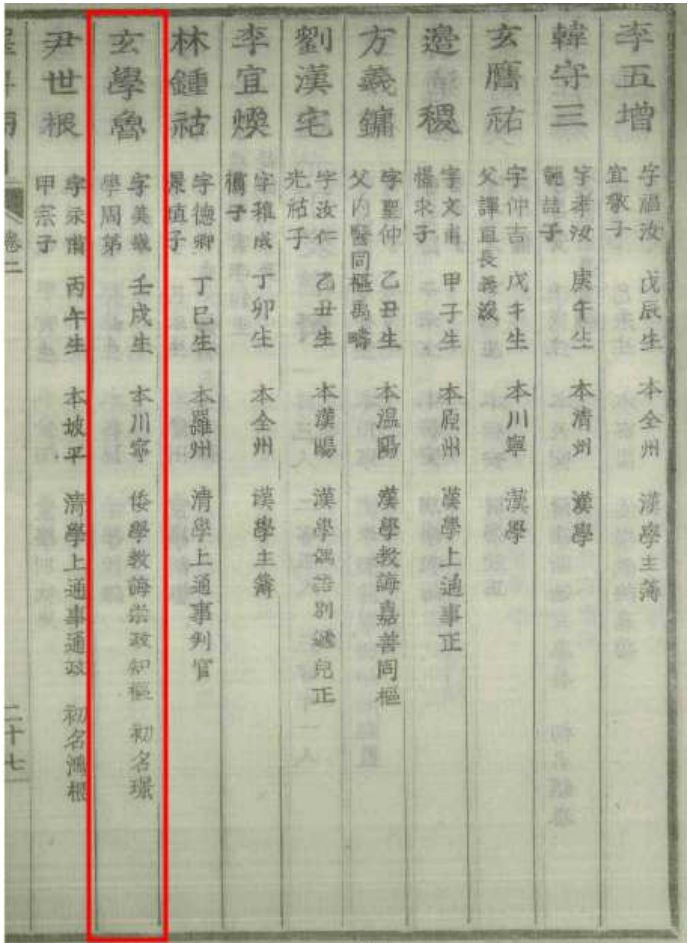
[인물요약]	
· UCI	G002+AKS-KHF_13D604B3D9AC74B1843X0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졸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후기
· 왕대	대한제국(大韓帝國)
· 본관	연주(延州)
· 활동분야	관료
· 항목	시강원시독관(侍講院侍讀官)
[관련정보]	
[문과] 고종(高宗) 29년(1892) 임진(壬辰) 별시(別試) 병과(丙科) 43위(47/64)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9년 임진 > 3월 26일 > 최종정보 고종 29년 임진(1892) 3월 26일(갑신) 맑음 29-03-26[35] 경무대에서 관학 유생의 응제를 방외를 통틀어 시취할 때 행 도승지 이재순 등이 입시하였다 ○ 오시(午時). 상이 왕세자와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방외를 통틀어 시취하였다. 이때 입시한 행 도승지 이재순(李載純), 행 좌승지 박용대(朴容大), 행 우승지 윤용식(尹容植), 좌부승지 민영주(閔泳柱), 우부승지 조만승(曹萬承), 동부승지 이해창(李海昌), 가주서 김태욱(金泰郁)·이희화(李喜和), 기주관 이인형(李寅衡), 별검춘주 윤두병(尹斗炳), 검교직제학 김성근(金聲根)·홍순형(洪淳馨)·김규홍(金奎弘)·김종한(金宗漢), 검교직각 이용태(李容泰)·박창서(朴昌緒), 검교대교 김석규(金錫圭)·김만수(金晩秀)·김한제(金翰濟)·오정근(吳正根), 원임 대교 민형식(閔衡植), 교리 박돈양(朴墩陽), 부수찬 이경직(李庚植)이 차례로 시립하였다.(중략)상이 이르기를, “한림이 봉미를 뜯으라.” 하였다. 윤두병이 봉미를 뜯은 다음 읽어 아뢰었다. 상이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관학 유생의 응제에서 부(賦)에 수석으로 삼하일(三下一)을 맞은 유학 현동건(玄東健), 삼하이(三下二)를 맞은 유학 양도옥(梁燾鉦), 삼하삼(三下三)을 맞은 유학 최우락(崔禹洛)은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하고, 그 다음 초삼하를 맞은 유학 홍우성(洪祐性)·장석하(張錫夏)·김상일(金相一)·육용필(陸用弼)·윤승국(尹承國)·전헌(全櫨)·박승봉(朴勝鳳)은 모두 진사시의 방목(榜目) 끝에 붙여 주고, 그 다음 초삼하를 맞은 진사 이주응(李周應) 등 10인은 모두 직부회시(直赴會試)하게 하고, 그 다음 차상을 맞은 유학 민완식(閔完植) 등 20인에게는 모두 2분을 주고, 그 다음 차상을 맞은 유학 이억(李億) 등 20인에게는 모두 1분을 주고, 그 다음 차상을 맞은 유학 이달원(李達元) 등 20인은 모두 감시(監試) 초시(初試)의 방목 끝에 붙여 주고, 그 다음 차상을 맞은 유학 이계주(李繼胄) 등 20인에게는 각각《규장전운》1건(件)을 사급하라.” 하였다.

2용-철상-2한일-4덕창-태형-상윤-시석-1한민-2학로 系

학로學魯, 23세, 당상역관(堂上譯官), 승정지추(崇政知樞)

자 미재(美哉), 1802년(순조純祖2년)생, 승정지추(崇政知樞).

[역과] 순조(純祖) 25년(182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7위(15/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초명(初名) 현경(玄璟) · 자(字) 미재(美哉) · 생년 임술(壬戌) 1802년 (순조 2) · 합격연령 24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한민(玄漢敏) · 관직 : 차상통사(次上通事) · 관직 : 사역원직장(司譯院直長) [조부(祖父)] · 성명 : 현시석(玄時錫)[譯]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상윤(玄商尹)[譯] [안항(扈行)] · 형(兄) : 현학주(玄學周)[譯]	[이력사항] · 선발인원 19명 [一等3・二等5・三等11] · 품계 숭록대부(崇祿大夫) · 품계 자헌대부(資憲大夫) · 관직 교회(敎誨) · 관직 지추(知樞) · 관직 총민(聰敏) · 전공 왜학(倭學) 

고전번역서 > 증정교린지 > 증정교린지 제5권 > 최종정보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증정교린지 제5권~제6권 신행각년례(信行各年例)
헌종 3년 정유(1837) 관백 가제(家齊)가 물러나 쉬고 그 아들 가경(家慶)이 그 자리에 올랐으나 통신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 5년이 지난 신축년(1841, 헌종7)에 차왜(差倭)가 나와서 통신사를 청하였는데 갑진년

(1844, 헌종10) 봄에 대마도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문득 요청하는 것이 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 (중략) 철종 4년 계축(1853)에 별도로 역관 **현학로(玄學魯)**를 보내서 정사년(1857, 철종8)으로부터 신유년(1861, 철종12)까지 다시 5년을 물렸다. 또 6년 을묘(1855)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여러 해 흉년이 들어 파견할 수 없으므로 다시 대마도로 장소를 바꾸고 시기를 임술년(1862, 철종13)으로부터 병인년(1866, 고종3)까지 5년을 물렸다. 고종 원년 갑자(1864)에 별도로 역관 김계운(金繼運)을 보내서 정묘년(1867, 고종4)으로부터 병자년(1876, 고종13)까지 다시 10년을 물렸다.

1843년(헌종 9년 계묘) 물러나 쉬고 있던 관백 가제(家齊)가 죽고, 대마도주 의장(義章)이 죽어서 아우 의화(義和)가 그 자리를 이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현학로(玄學魯)**, 이학술(李學述)과 당하 최석우(崔錫祐)를 보내어 조위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

고전번역서 > 각사등록 > 경상좌수영계록 > 헌종 > 최종정보
 경상좌수영계록(慶尙左水營啓錄) / 1843(헌종(憲宗) 9년)○경상 좌수영(慶尙左水營) 이승서(李膺緒) 재임 시 장계등록(狀啓謄錄)
 8월 일 승정원 개탁

전 수사(水使) 신(臣) 이정현(李定鉉)이 재임하고 있을 때인 지난달 29일 진시(辰時)에 도착한 부산 첨사(釜山僉使) 장인식(張寅植)의 치보(馳報)에, "방금 도착한 가덕 첨사(加德僉使) 김응수(金應秀)의 전통(傳通)에 의거한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 이동식(李東植)의 치통(馳通)에, '27일 유시(酉時)에 우리 배인지 왜인의 배인지 불분명한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에서 등(燈)을 매달고 나왔는데 1척은 뒤에 처져서 간 곳을 모르겠고, 1척은 거제도(巨濟島)로 표류해 갔다고 망장(望將) 등이 진고(進告 **몸소 나와 보고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차례로 치통(馳通)한 것에 의거하여 치보(馳報)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본진(本鎭)에 올리는 7월 29일에 낸 **도해 당상 역관(渡海堂上譯官) 현학로(玄學魯) · 이학술(李學述)** 당하 역관(堂下譯官) 최석호(崔錫祐) 등의 수본에, '비직(卑職 **자신의 직임을 낮추어 이르는 말**) 등이 7월 28일 술시(戌時)에 재판일행선(裁判一行船) 2척, 비선(飛船) 1척과 함께 출발하여 29일 묘시(卯時)에 무사히 대마도(對馬島) 좌수포(佐須浦)에 이르러 선상(船上)의 집물(什物)을 다시 수리하고 순풍을 기다려 동(同) 도(島) 부중(府中)으로 전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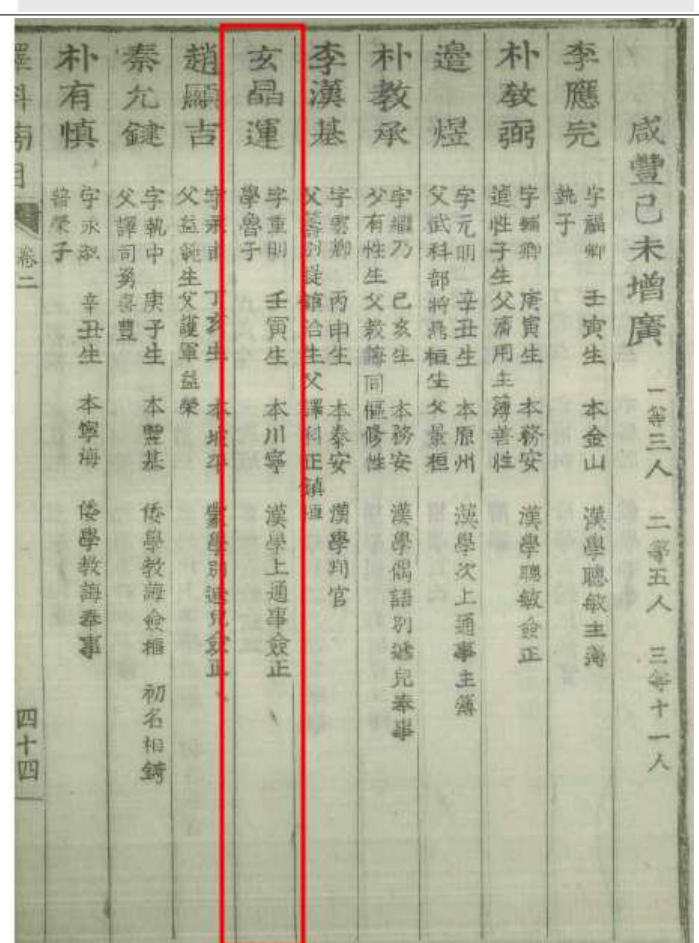
정운晶運, 24세, 자 중명(重明), 첨추(僉樞), 1842년(헌종憲宗8년)8월3일생, 1853년(철종4년) 8월7일에 돌아가셨다. **개화기 문화운동가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을 사위로 맞았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0년 계미 > 10월 23일 > 최종정보
 고종 20년 계미(1883) 10월 23일(경오) 맑음
 20-10-23[13] 이력을 갖춘 한학 역관 이용림 등을 모두 가자하여 임용할 것을 청하는 사역원의 계

○ 사역원이 아뢰기를,
 "한학 역관(漢學譯官) 이용림(李用霖) · 고영주(高泳周) · **현정운(玄晶運)** · 오대진(吳大鎭) · 김태한(金泰漢) · 이조형(李肇炯) · 이교승(李敎承) · 김진규(金鎭圭) · 김성한(金成漢) · 이시혁(李時赫) · 김진식(金鎭湜), 청학 역관(淸學譯官) 김연(金演) · 방한철(方漢哲) · 홍면조(洪勉祖), 몽학 역관(蒙學譯官) 이종철(李鍾徹) · 조현길(趙顯吉) · 한오규(韓五奎), 왜학 역관(倭學譯官) 윤형섭(尹亨燮)이 이력(履歷)을 아울러 갖추었으니, 아울러 가자하여 앞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역과] 철종(哲宗) 10년(1859) 기미(己未) 증광시(增廣試) 2등(二等) 3위(6/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중명(重明) · 생년 임인(壬寅) 1842년 (헌종 8) · 합격연령 18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u>현학로(玄學魯)</u>[譯] · 품계 : <u>정헌대부(正憲大夫)</u> · 관직 : <u>지추(知樞)</u> · 전공 : 왜학(倭學) [조부(祖父)] · 성명 : <u>현한민(玄漢敏)</u> [증조부(曾祖父)] · 성명 : <u>현시석(玄時錫)</u>[譯] [외조부(外祖父)] · 성명 : <u>백광진(白光鎭)</u> · 본관 : <u>선산(善山)</u> [처부(妻父)] · 성명 : <u>이헌양(李憲襄)</u> · 관직 : <u>전의감교수(典醫監敎授)</u> · 본관 : <u>안산(安山[京])</u>	[이력사항] · 선발인원 : 19명 [一等3 · 二等5 · 三等11] · 전력 : <u>상통사(上通事)</u> · 관직 : <u>첨정(僉正)</u> · 전공 : 한학(漢學) 
--	--

승운昇運, 24세, 전라좌도수군우후(水軍虞侯), 남포현감(藍浦縣監), 경상도후영장(後營將) 자 명초(明初), 1834년(순조34년)11월21일생, 무과(武科)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전라도(全羅道) 전라좌도수군우후(全羅左道水軍虞侯) 1862[임술(壬戌)] 11월(十一月)

[인물요약] · UCI : G002+AKS-KHF_13D604C2B9C6B4U9999X0 · 문무구분 : 문관 · 생년 : 미상(未詳) (미상) · 졸년 : 미상(未詳) (미상) · 시대 : <u>조선후기</u> · 본관 : <u>미상(未詳)</u> · 활동분야 : 관료	
--	--

	[관인정보] ·관직명칭 전라좌도수군우후(全羅左道水軍虞侯) ·관직등급 우후(虞侯) ·관청소재 순천(順天) ·현대지명 순천시(順天市) ·부임년월 1862 [임술(壬戌) 11월(十一月)] [도 정보] ·도명칭 전라도(全羅道) [출전] 『팔도총록(八道總錄)』(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27])
--	--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충청도(忠淸道) 남포현감(藍浦縣監) 1865[을축(乙丑)] 9월(九月)

	[관인정보] ·관직명칭 남포현감(藍浦縣監) ·관직등급 현감(縣監) ·관직이칭 마산현감(馬山縣監) ·진관체제 홍주(洪州) 어파(御把) ·현대지명 보령시(保寧市) ·부임년월 1865 [을축(乙丑) 9월(九月)] [도 정보] ·도명칭 충청도(忠淸道) ·관할군현 54관(五十四官) ·도구분 충청무도(忠淸右道) [출전] 『팔도총록(八道總錄)』(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27])
--	---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상도(慶尙道) 경상도후영장(慶尙道後營將) 1882[임오(壬午)] 3월(三月)

	[관인정보] ·관직명칭 경상도후영장(慶尙道後營將) ·관직등급 영장(營將) ·관직이칭 경장(慶將) ·관청소재 경주(慶州) ·현대지명 경주시(慶州市) ·부임년월 1882 [임오(壬午) 3월(三月)] [도 정보] ·도명칭 경상도(慶尙道) [출전] 『팔도총록(八道總錄)』(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27])
--	--

[관련정보]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전라도(全羅道) 전라좌도수군우후(全羅左道水軍虞侯) 1862[임술(壬戌)] 11월(十一月)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충청도(忠淸道) 남포현감(藍浦縣監) 1865[을축(乙丑)] 9월(九月)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상도(慶尙道) 경상도후영장(慶尙道後營將) 1882[임오(壬午)] 3월(三月)

2용-철상-2한일-4덕창-1태형-상운-시석-2호민-학두 계열

학두學斗, 23세, 시종원부경(侍從院副卿)

생부 경민(敬敏), 자 진하(鎭夏), 호 회창(晦倉), 1853년(철종4년)생, 종이품 가선대부 시종원 부경(從二品嘉善大夫侍從院副卿), 1906년(고종43년) 11월8일에 돌아가셨다. 묘는 밀양군 무안면 양호리 선산 찬성공묘 아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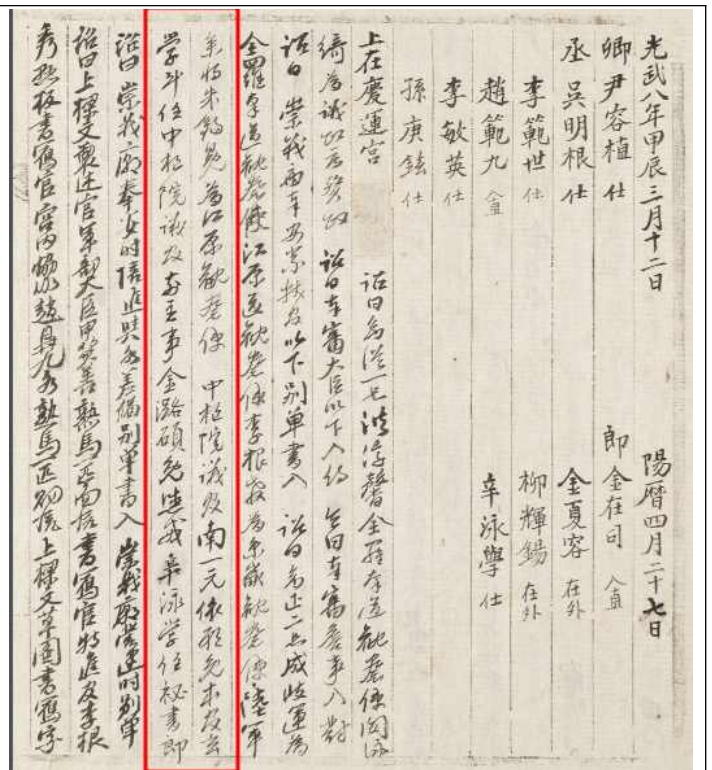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41년 갑진 > 3월 12일 > 최종 정보

고종 41년 갑진(1904) 3월 12일(신묘, 양력 4월 27일)

41-03-12[08] 중추원 의관에 현학두를 임용하였다

○ 현학두(玄學斗)를 중추원 의관에 임용하였다.

○ 玄學斗任中樞院議官。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41년 갑진 > 3월 26일 > 최종 정보

고종 41년 갑진(1904) 3월 26일(을사, 양력 5월 11일) 비

41-03-26[08] 영릉의 주룡 이하 무너진 곳을 보축할 때의 여주 군수 이준규 등에게 시상하라는 조령

○ 조령을 내리기를,

“영릉(寧陵)의 주룡 이하 무너진 곳을 보축할 때의 지방관인 여주 군수 이준규, 검감역인 본릉 영 김동일(金東鎰)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賜給)하

○ 詔曰, 寧陵主龍以下汰落處補築時, 地方官驪州郡守李峻奎, 兼監役本陵令金東鎰各兒馬一匹賜給, 參奉徐相珪陞六, 監董正三品李康夏·金潤煥, 五品洪在能, 四品安奎承, 六品徐載雨·朴奎鼎·裴國泰·孫相健·朴德秀·李邦憲竝加資, 九品李奎鉉·辛完植·李建夏·南廷範·金定濟·林鴻相·張榮玉·鄭義好·金永熙竝陞六, 六品尹泰觀·裴錫泰·李胄相·韓敬烈·嚴達煥·金倫求·趙東元·梁在薰·韓鎮玟·車錫祐·玄學斗竝加資, 九品尹善稷·李龍館·黃喆淵·李秀景·尹教性·金益贊·趙昌熙·崔休哲·

라. 참봉 서상규(徐相珪)는 승록(陞六)하라.(중략) .
6품 윤태관(尹泰觀) · 배석태(裴錫泰) · 이주상(李胄相) · 한경렬(韓敬烈) · 엄달환(嚴達煥) · 김윤구(金倫求) · 조동원(趙東元) · 양재훈(梁在薰) · 한진민(韓鎭玟) · 차석호(車錫祐) · **현학두(玄學斗)**는 모두가자하라.

李圭洛·李丙胄·李文榮·沈憲澤·安秉駿並陞六，其餘領役·牌將·員役等並依判下施賞。



학두묘



희운묘



학두 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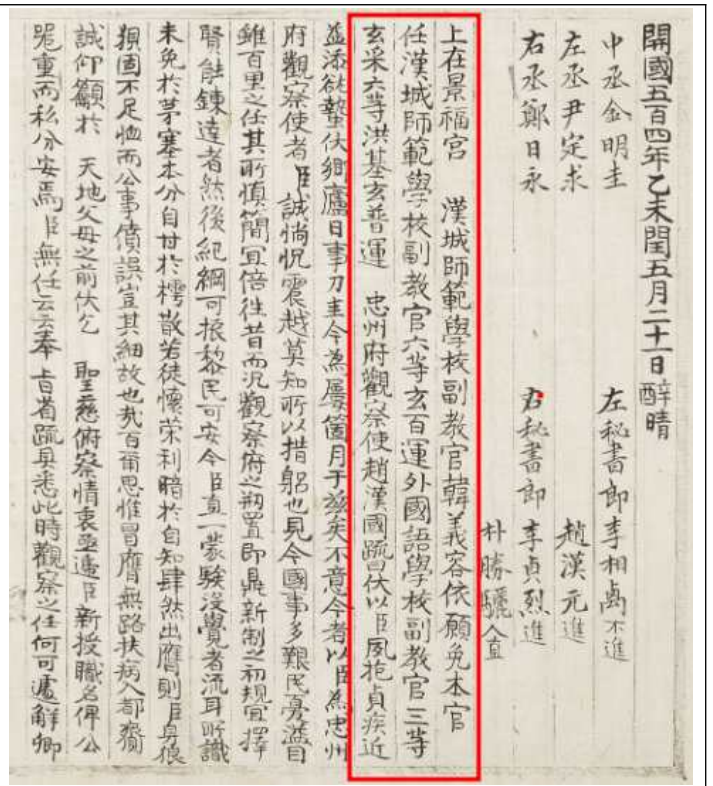
학두 비석

백운百運, 24세, 내장원 공원과장, 예식원 예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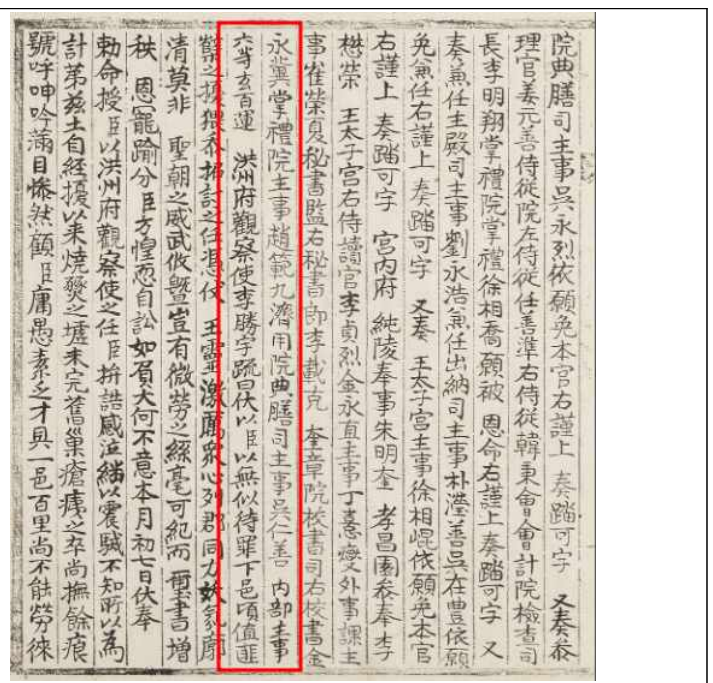
덕창의 6세손, 학두(學斗)의 아들로 1872년(1868?)(고종 9)에 태어났다. 1891년 일어학교에 입학하여 1894년에 졸업했다. 1895년부터 한성사범학교 부교관, 내무아문 주사를 지냈으며, 1898년 光武改革(광무개혁) 때 量地衙門(양지아문)에서 서기가 되었다. 1901년 궁내부에서 의전국원이 되어 1920년대까지 예식원 주사, 예식원 참리관, 내장원 공원과장, 예식원 예식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904년 일본에 가서 궁내성 제도와 사무를 시찰하고 돌아왔고, 1905년 훈5등과 태극장을 수여받았으며, 1909년에는 순종이 남순행(南巡幸)할 때 호종한 공로로 훈4등에 서훈되었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32년 을미 > 윤5월 21일 > 최종정보
고종 32년 을미(1895) 윤5월 21일(신유) 맑음
32-윤05-21[03] 한성사범학교 부교관 6등에

현백운을 임용하였다 ○ 한성사범학교 부교관 6등에 현백운(玄百運), 외국어학교 부교관(外國語學校副敎官) 3등에 현채(玄采), 6등에 홍기(洪基)·현보운(玄普運)을 임용하였다.	
규장각 원본국역 〈○〉漢城師範學校副敎官韓義容, 依願免本官。 任漢城師範學校副敎官六等玄百運, 外國語學校副敎官三等玄采, 六等洪基·玄普運.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32년 을미 > 6월 5일 > 최종 정보 고종 32년 을미(1895) 6월 5일(갑술) 맑음 32-06-05[09] 내부 주사 6등에 현백운을 임용하였다	
○ 내부 주사(內部主事) 6등에 현백운(玄百運)을 임용하였다. 규장각 원본국역 〈○〉宮內府, 純陵奉事朱明奎, 孝昌園參奉李懋榮, 王太子宮右侍讀官李貞烈·金永直, 主事丁憲燮, 外事課主事崔榮夏, 秘書監右秘書郎李載克, 奎章院校書司右校書金永冀, 掌禮院主事趙範九, 濟用院典膳司主事吳仁善, 內部主事六等玄百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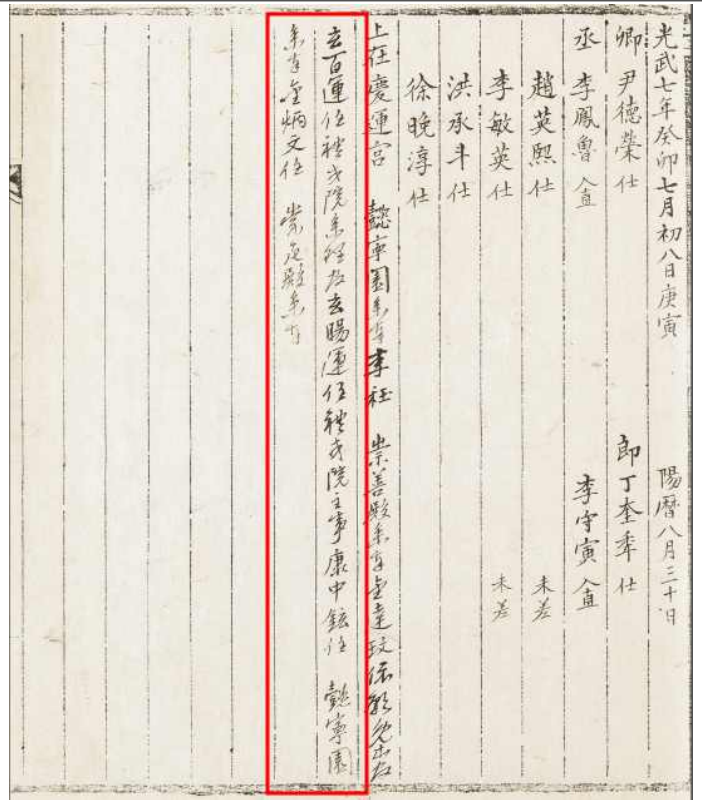
참고문헌

『고종실록』/『일성록』/『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

희운禧運, 24세, 文名 **현철(哲)**, 「소설개요」, 「희곡의 개요」 등을 저술한 연극인. 번역가 덕창의 6세손, 학두(學斗)의 아들로 1891년(고종 28년)에 태어났다. 필명(筆名)은 철(哲)이다. 호는 현당(玄堂), 해암(海巖)이다. 효종(曉鍾), 효종생(曉鍾生), 세류옹(世瘤翁), 해암(海巖), 세류옹(世瘤翁) 등 여러 이칭을 사용했다.

○ **현백운(玄百運)**을 예식원 참리관에 임용하고, 현양운(玄陽運)을 예식원 주사(禮式院主事)에 임용하고, 강중현(康中鉉)을 의령원 참봉에 임용하고, 김병문(金炳文)을 숭선전 참봉에 임용하였다.

〈○〉 **玄百運**任禮式院參理官, 玄陽運任禮式院主事, 康中鉉任懿寧園參奉, 金炳文任崇善殿參奉.



1911년 보성중학(普成中學)을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세이소쿠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에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의학 공부에 뜻을 두었으나 “민족적 의력(醫力)이 발달되지 못한 나라는 연극이 발달되지 못하였다.”는 어느 책 구절을 읽고 감분(感奮 : 감격하여 분발함)된 바 있어, 민족의 의력을 찾고자 연극에 뜻을 두게 되었다. 1913년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 재학 중 일본 신극의 선구자 시마무라(島村抱月)가 경영하는 게이주쓰좌(藝術座) 부속연극학교로 적을 옮겼다. 시마무라의 문하생이 되어 예술좌의 관서지방 공연에 연구생으로 따라나선 것이 연극공부의 시작이었다. 그해 12월 데이코쿠극장(帝國劇場)에서 상연한 예술좌의 <살로메>에 단역으로 처음 출연하였다. 이어 1914년에 입센(Ibsen, H.J.)의 <바다의 부인>, 체호프(Chekhov, A.P.)의 <곰>, 톨스토이(Tolstoi, L.N.)의 <부활>, 나카무라(中村吉藏)의 <조소 嘲笑>, 주더만(Sudermann, H.)의 <고향>, 1915년 투르게네프(Turgenev, I.S.)의 <그 전야(前夜)>, 나카무라의 <반 飯> 등에 계속해서 단역으로 출연하였다.

1917년 연극학교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적어도 새로운 연극운동을 일으키려면 중국의 경우를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상해(上海)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중국의 신극 배우 오우양 세첸(歐陽豫倩)을 알게 되었고, 그가 주재하는 싱지연극학교(星綺演劇學校)를 견학하면서 돕기도 하였다. 그 뒤 1919년 2월 귀국하여 1920년 2월 서울 서대문 근처에 예술학원(藝術學院)을 설립, 연극반과 무용반을 두고 연극인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같은 해 6월 종

합잡지인 《개벽 開闢》이 창간되자 학예부장으로 들어간 그는 왕성한 필력을 발휘하는데, 희곡론에서부터 소설론·연극론·문화시론에 이르기까지 수십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때의 글 중 대표적인 것은 <소설개요>·<소설연구법>·<소위 신시형과 몽룡체>·<문학에 표현되는 감정>·<연극과 오인의 관계>·<희곡개요>·<현당극담>·<문화사업의 급선무로 민중극을 제창하노라>·<비평을 알고 비평을 하라> 등이다.

그 뒤 예술학원이 내분으로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고 말자, 1923년 10월 민중극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해 동국문화협회(東國文化協會)를 발족하고 1924년 12월 조선배우학교 설립에 착수하였다. 처음에는 종로구 와룡동 소재 변사 김덕경(金德經)의 집 2층을 빌려 시작하였으며, 1925년 2월에 창신동으로 이사하였다.

당시 “한국사람의 형편으로서는 문화사업에서 제일 급한 것이 의지력을 기르는 것과 인간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의지력을 배양하는 것과 인간을 알게 하는 것은 연극사업이다.”라는 취지 밑에 동국문화협회와 조선배우학교를 설립한 1년 만인 1926년 2월에 제1기생을 졸업시켰다. 연극배우 복혜숙이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다. 같은 해 9월 입센의 <인형의 집>으로 시연회를 열고 졸업생으로 극계현문까지 형성하려 하였으나, 조선배우학교도 결국 내분으로 1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조선일보 기자생활도 하였고, 1927년 6월부터는 몇 달 동안 조선극장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1934년 5월에는 박승희(朴勝喜)와 함께 토월회(土月會) 후신인 태양극장을 재건하려 하였으나 곧 포기하고, 창극진흥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한국 최초의 미용잡지 <향훈> (1921)을 비롯해서 <부인> <상공세계> <자활> <중성> <위생과학장> (1926) 등 잡지를 발간했으며 한때 화장품 제조에도 손을 댄 적이 있다. 조선 최초의 화장품 연구소<경성미용원>원장을 지냈다.

<조선물산장려회> 영화선전부 주임을 지냈으며(1927), 영화 <숙영낭자전>을 기획했다.(1928), <조선극장>을 경영하면서 공연기획사 <연예학교>를 설치하고 <조선담우회>를 조직했다(1935)

광복 후 동국문화협회를 통하여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잡지를 발간한 적이 있으며, 배우학원을 다시 열었으나 곧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광복 후 1960년 서울특별시문화위원회연극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묘는 밀양군 무안면 양효리 선산 찬성공묘 아래에 있다.

그는 단역배우로 출발해서 조선배우학교(최초의 연극학교)를 세웠으며, 3·1운동 직후 외국문화사조와 외국작가 및 작품, 문학·연극 이론을 소개, 번역한 선구자였다. 번역작품으로는 투르게네프의 <그 전야>를 비롯하여 셰익스피어(Shakespeare, W.)의 <햄릿>을 최초로 소개하였고, 입센과 독일의 표현주의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람도 그였다.

그것이 비록 일본을 통한 간접 소개였다고 하더라도 표현주의 소개는 대단히 앞선 생각이었다. 그는 또 극작가이기도 하였다. 비록 희곡은 모작의 성격을 띤 단막극 <견> 한 편이지만, 초창기에 그와 같은 사실적 작품을 썼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대업적은 문학론과 연극론의 전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벽》에 발표한 <소설개요>와 <소설연구법>은 우리 나라에서 소설의 이론을 체계화하여 논의한 최초의 이론으로, 개화기에 단편적으로 소설을 이야기한 이해조(李海朝)나 김동인(金東仁)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소설론을 전개하였다.

희곡이론과 연극론은 더욱 뛰어난데, <희곡의 개요>에서는 희곡의 구조를 설명하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로부터 프라이타크(Freytag, G.)에 이르는 서양의 희곡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편의 글을 통해서 후진국에서의 연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문학비평이라든가 문예사상론을 펴서 민중계도에 앞장섰다. 특히 민중극운동을 제창하여 롤랑(Rolland, R.)처럼 민중의 의력을 일으키려 한 것은 주목된다. 그는 우리 나라 근대연극사상 신파극으로부터 정통적인 근대극으로 넘어가는 데 징검다리 구실을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신파극(신파극론쟁)으로 유명하다.





참고문헌
『한국신극사연구(韓國新劇史研究)』(이두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6)/『한국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김학동, 일조각, 1972)/『현철(玄哲)연구』 I ~ III(정덕준, 『한국연극』, 한국연극사,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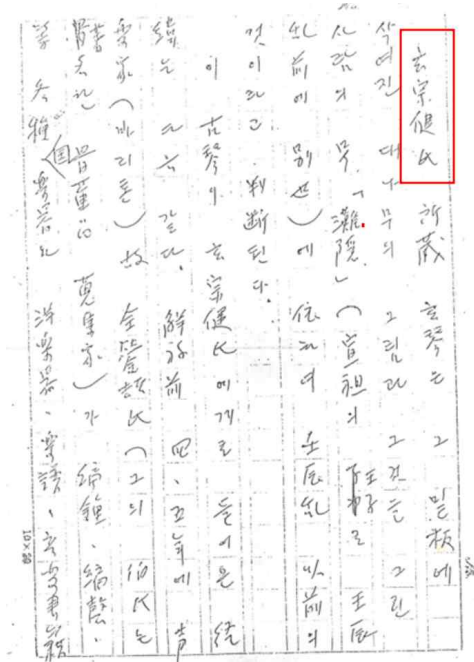
관련 미디어
(1) 현철/다음 슬라이드이전 슬라이드

宗健宗健, 25세, 희운(현철)의 장남, 1927년정묘(丁卯)생, 재미음악가

조선 중기 화가 탄은 이정 이름 새겨진 거문고...47년만에 다시 세상에 나와
탄은은 세종의 현손(玄孫, 손자의 손자)으로 석양군(石陽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유덕장, 신위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묵죽 화가로 꼽힌다. 시와 글씨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중국미술연구소 소장 전문수는 최근 이 거문고를 경향신문에 공개했다. 길이는 161cm, 너비는 20.2cm, 높이는 14.5cm이다. 재질은 오동나무다. 거문고 몸통 판(腹板·복판엔 ‘萬曆丁巳秋 灘隱(만력정사추 탄은)’이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져있다. 만력은 중국 명나라 신종의 연호(1573~1620)로 조선에선 선조와 광해군이 사용했다. ‘정사추’는 정사년인 1617년(광해군 9) 가을을 뜻한다.
이혜구가 기록한 이 거문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도 2건 확인했다. 조선일보는 1959년

5월4일자에 ‘비고를 열고(4) **현철씨의 거문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975년 6월3일자에 “이 거문고는 **재미 음악가 현종건**씨가 소장했던 것으로 문화재관리국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거나 이를 구입하여 민속박물관에 보존할 방침으로 전해진다”고 썼다.

<https://www.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220213121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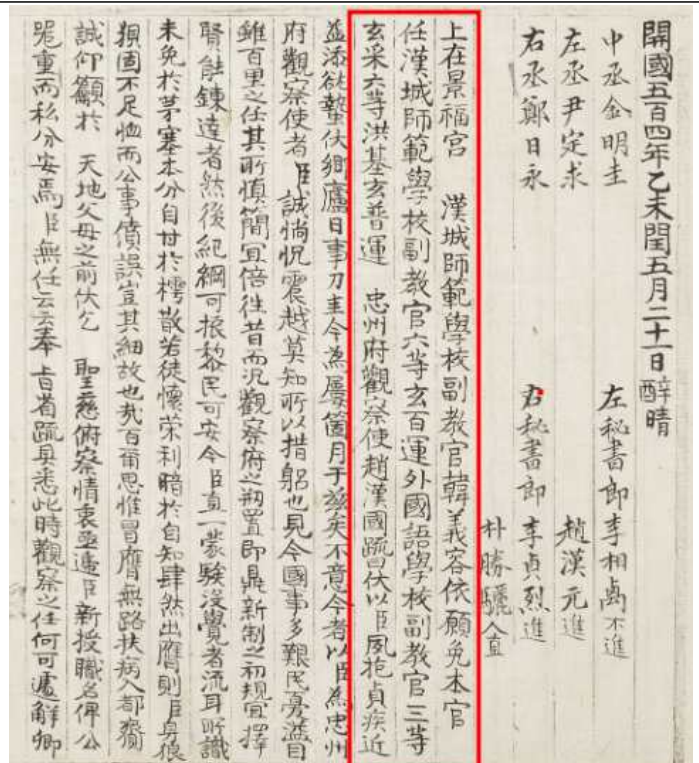
조선일보 1959년 5월4일자 '비고를 열고(4) 현철씨의 거문고'.

중랑장(부사직)공파는 3세기에 걸쳐 210명의 잡과를 배출한 큰 씨족으로서 조선 후기에 모든 방면에 걸쳐서 활약을 보였다. 몇 세기 동안 통역이나 의사, 회계사로서 중랑장공부사직 공파는 행정부나 종교계나 문화와 교육의 상층부에서 새로운 전형적 엘리트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관료계와 비관료계에서 근대세계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사회 신분 향상에 기초가 된 것은 관료적 역할이었다. 19세기 중랑장공부사직공파 후손들은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개화기의 상층 관료계에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했다.

2용-철상-2한일-4덕창-1태형-상운-시석-3경민-1학규 계系

보운普運, 24세, 주일본전권공사관참서관 겸 공사서리, 대구노동학교 설립

1875년(고종12) 태어났다. 의학에 합격, 관립 일어학교를 졸업하고, 1896년 외국어학교교관, 1899년 궁내부번역관, 1900년 예식원 참서관, 1903년 주일공사관 이등참서관, 1905년 육군 정위(陸軍正尉), 주일본전권공사관참서관 겸 공사서리, 대구노동학교를 설립했다. 소설가 현진건의 양부이다. 1919년에 돌아가셨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32년 을미 > 윤5월 21일 > 최종정보 고종 32년 을미(1895) 윤5월 21일(신유) 맑음 32-윤05-21[03] 한성사범학교 부교관 6등에 현백운을 임용하였다	
○ 한성사범학교 부교관 6등에 현백운(玄百運), 외국어학교 부교관(外國語學校副敎官) 3등에 현채(玄采), 6등에 홍기(洪基)·현보운(玄普運)을 임용하였다.	
규장각 원본국역 〈○〉漢城師範學校副敎官韓義容, 依願免本官。任漢城師範學校副敎官六等玄百運, 外國語學校副敎官三等玄采, 六等洪基·玄普運。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36년 기해 > 7월 17일 > 최종정보 고종 36년 기해(1899) 7월 17일(임술, 양력 8월 22일) 흐림 36-07-17[15] 비서원 승에 김규형을 임용하였다	
○ 비서원 승에 김규형(金奎馨)을 임용하고, 궁내부 번역과장(宮內府繙譯課長)에 현상건(玄尙健)을 임용하고, 번역관(繙譯官)에 고희경(高義敬), 현보운(玄普運)을 임용하고, 내장원 장원과장(內藏院莊園課長)에 박창선(朴昌善)을 임용하고, 종목과장에 채현식(蔡賢植)을 임용하고, 내장원 주사에 김일병(金日炳)을 임용하고, 장원과 주사에 이장헌(李章憲), 김규진(金圭鎭), 장현규(張顯奎), 윤영수(尹榮洙), 천흥식(千興植), 유신혁(劉臣赫)을 임용하고, 종목과 주사에 장용진(張溶鎭), 유진율(兪鎭律)을 임용하고, 봉상사 주사에 이상철(李象哲)을 임용하고, 영선사 주사(營繕司主事)에 안상설(安商說)을 임용하고, 회계원 주사(會計院主事)에 박기창(朴基昌)을 임용하고, 번역과 주사에 홍병일(洪秉一), 김승국(金升國), 김낙현(金洛鉉), 김낙훈(金洛勳)을 임용하였다. 규장각 주사 오인선(吳仁善)·장호진(張浩鎭), 전선사 주사(典膳司主事) 나재민	규장각 원본국역 〈○〉詔曰, 命慶尙南道觀察使曹始永爲中樞院議官, 宮內府種牧課長蔡賢植, 物品司長玄尙健, 秘書丞宋鍾燁, 開城分奉常司主事金在祚·金秉濟, 種牧課主事張溶鎭·崔萬燮, 內藏司主事劉臣赫[劉臣赫]·金圭鎭·李象哲·李章憲·朴昌善, 黃海道觀察府主事吳奭鎬·趙成海·李民僖依願免本官, 任秘書院丞金奎馨, 任宮內府繙譯課長玄尙健, 任繙譯官高義敬·玄普運, 任內藏院莊園課長朴昌善, 種牧課長蔡賢植, 任內藏院主事金日炳, 任莊園課主事李章憲·金圭鎭·張顯奎·尹榮洙·千興植·劉臣赫, 任種牧課主事張溶鎭·兪鎭律, 任奉常主事李象哲, 任營繕司主事安商說, 任會計院主事朴基昌, 任繙譯課主事洪秉一·金升國·金洛鉉·金洛勳, 奎章閣主事吳仁善·張浩鎭, 典膳主事羅在珉兼任物品司主事, 任開城府分奉常司主事禹翊漢·金祖源, 命宮內府特進官李正魯, 命太醫院卿徐正淳, 命宮內府特進官金聲根·李承純·任商準·閔泳國·李鑣永, 命掌禮

(羅在珉)을 겸임 물품사주사에 임용하였다.

院卿李裕承, 宮內府特進官徐相祖陞正二品, 奉常主事金錫龍, 典膳主事金炳協, 度支主事宋熙元, 太僕主事徐丙炎, 六品李昇九·趙秉澄命追崇都監·追上尊號都監郎廳, 任黃海道觀察府主事崔行敏·李玄器·鄭鉞, 任中樞院議官曹始永, 漢城郵遞司主事吳日炳依願免本官, 任忠州郵遞司主事申台永, 開城電報司主事李昌宇, 任漢城郵遞司主事韓基準, 任農商工部主事吳日炳。



氏翊容李將參軍陸國韓 氏熙民趙使公韓
氏兩の準基韓 運普玄官書參は列后

진건鎮健, 25세, 소설가, 동아일보 사회부장 ‘손기정 일장기 말소 의거’ 주인공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을 바탕으로 사실주의 소설을 쓴 민족작가이자 언론인이다. 1900년
대구전보사장 경운(擎運)의 4째 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빙허(憑虛)이다. 「빈처」, 「운수 좋은
날」, 「고향」 〈B사감과 러브레터〉등 20여 편의 단편과 《赤道》 등 5편의 장편소설을 남겼다.
그중 말기의 장편 《흑치상지》는 구국의 염원에서 만든 작품이었다

1915년 이순득(李順得)과 혼인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세이조중학(成城中學) 4학년을
중퇴하고 상해로 건너가 후장대학(滬江大學) 독일어 전문부에서 수학하였다. 1919년 귀국하
여 한말 주일공사관 참서관(參書官)을 지낸 당숙 보운(普運)에게 입양되었다.

1920년《개벽 開闢》에 <희생화 犧牲花>를 발표함으로써 문필 활동을 시작하여 <빈처 貧妻>(1921)로 문명을 얻었다. 1920년 7촌 아저씨로 연극 운동을 하던 玄僖運(필명은 玄哲, 고종 28: 1891-?)의 주선으로 조선일보사에 입사함으로써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922년 홍사용(洪思容)·이상화(李相和)·나도향(羅稻香)·박종화(朴鍾和) 등과 함께 《백조(白潮)》 창간동인으로 참여하여 1920년대 신문학운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였다.

1922년에는 동명사(東明社)에 입사, 1925년 그 후신인 《시대일보》가 폐간되자 동아일보사로 옮겼다. 1932년 상해에서 활약하던 셋째 형 정건(鼎健)의 체포와 죽음으로 깊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자신도 동아일보사 사회부장으로 있을 때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선수 사진의 日章旗 말소 의거를 주동하여 구속되었다가 언론계를 떠났다.

1937년 동아일보사를 사직하고 양주군 화접리(세검정 부암동?)에서 닭을 키워 생계를 꾸리면서 창작에 몰두하였다. 빈궁 속에서도 친일문학에 가담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1943년 장결핵으로 사망하였다.

장편·단편 20여 편과 7편의 번역소설, 그리고 여러 편의 수필과 비평문 등을 남겼다. 그의 작품 경향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사실주의 계열로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전적 신변소설, 하층민과 민족적 현실에 눈을 돌린 소설, 1930년대의 장편소설과 역사소설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전적 소설인 <빈처>·<술 권하는 사회>(1921)·<타락자>(1922) 등에서는 순수한 젊은이가 구체적인 생활 안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좌절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한 양심적 지식 청년의 고민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둘째, 창작집 《조선의 얼굴》(1926)을 간행한 시기는 그의 의식이 자전적 세계를 벗어나 식민지의 민족적 현실 및 고통받는 식민지 민중의 문제로 옮겨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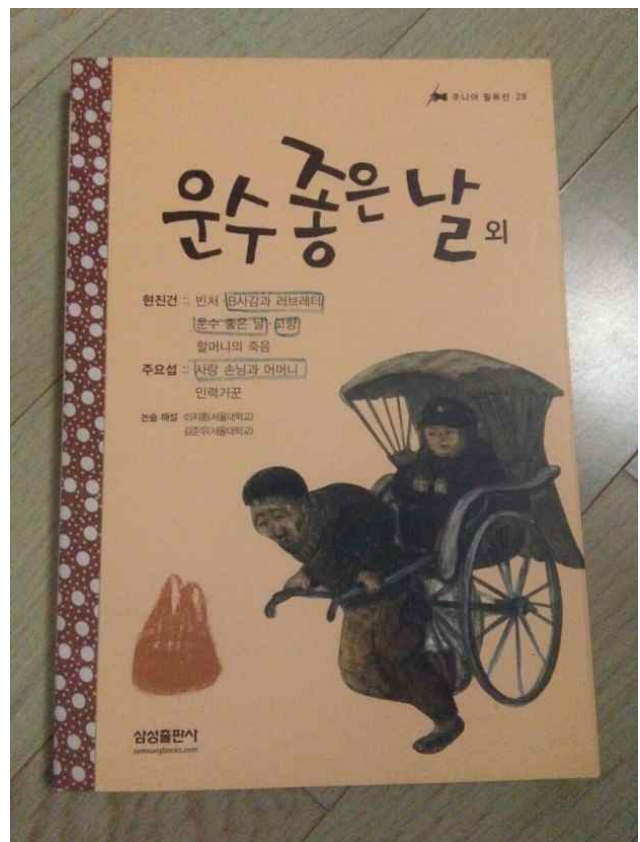
도시하층민의 운명을 추적한 <운수 좋은 날>(1924), 미숙한 성의식(性意識)과 노역으로 고통받는 농촌 여성을 그린 <불>(1925), 땅을 잃고 뜨내기 노동자로 전전하는 한 이농민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고향>(1926) 등은 1920년대 단편문학의 한 정점으로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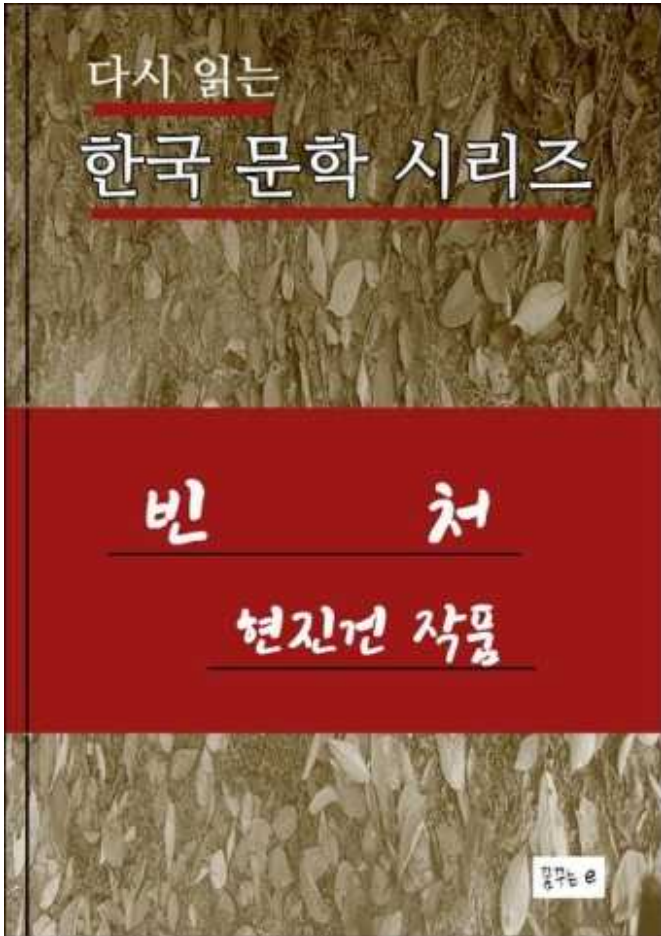
셋째, 장편소설 <적도 赤道>(1933~1934)에서는 삼각관계의 연애소설 구조 속에서, 그리

고 <무영탑>(1938~1939)·<흑치상지 黑齒常之>(1939~1940, 미완)·<선화공주 善花公主>(1941, 미완) 등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민족해방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암울한 시대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외면적인 통속성이 강화되고, 민족정신은 내재화·추상화의 경향에 빠졌다. 이밖에 <조선혼과 현대정신의 파악>(개벽 65호, 1926) 등의 비평문을 통하여 식민지시대의 조선 문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김동인(金東仁)·염상섭(廉想涉)과 더불어 근대문학 초기에 단편소설 양식을 개척하고 사실주의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이다. 특히 식민지시대의 현실대응 문제를 단편기교와 더불어 탁월하게 양식화한 작가로서 문학사적 위치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





현진건 헌장비 건립식(2022.9.2., 대구)

참고문헌

『씨뿌린 사람들』(백기만, 사조사, 1959)/『현진건(玄鎭健)연구』(김열규·신동욱 편, 새문사, 1981)/『현진건(玄鎭健)연구』(최원식, 『현대문학연구』 13, 서울대학교 현대문학연구회, 1974)/『현진건(玄鎭健)소설연구』(현길연, 한양대학교박사학위 논문, 1985)

관련 미디어(9)

현진건/희생화 / 현진건, 빈처 / 현진건, 타락자 / 현진건, 고향 / 현진건 적도 / 현진건, 무영탑 / 현진건

명건命健, 25세, 오사카매일신문서울특파원(大版毎日新聞서울特派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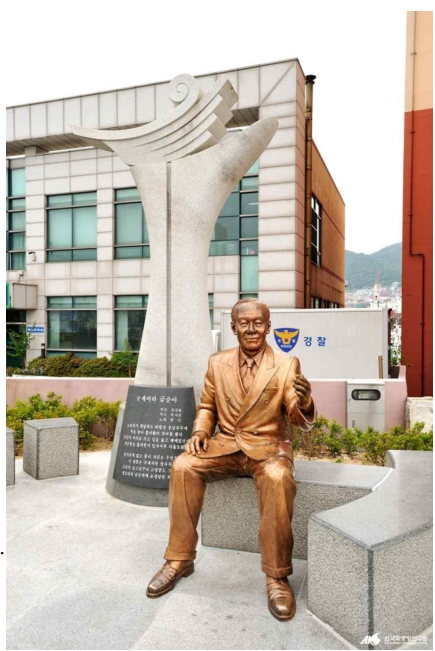
가수 현인의 부친. 자 덕우(德宇), 1877년(고종14년)11월17일생, 일본와세다(日本早稻田)대학 졸, 오사카매일신문서울특파원(大版毎日新聞서울特派員), 1948년5월19일에 돌아가셨다.

동주東柱, 26세, 가수 현인玄仁, 「신라의 달밤», 「비 내리는 고모령», 「군세어라 금순아」 1919년에 태어났다. 1938년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42까지 우에노[上野]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하였다. 그는 1943년 징병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신태양극단'에서 활동하다가 1946년에 귀국했다.

1947년에 작곡가 박시춘(朴是春)의 권유로 대중가요 가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신라의 달 밤」은 그 시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이후 한국전쟁 전까지 「비 내리는 고모령」, 「고향만 리」를, 전쟁 중에는 군예대로 활동하면서 진중가요 「전우야 잘 자라」를 발표하였다. 같은 시기에 대중가요 「군세어라 금순아」와 「인도의 향불」, 「꿈 속의 사랑」, 1950년대 후반에는 「나포리 맘보」, 「불국사의 밤」으로 지속적인 인기를 모았다. 특히 「서울야곡」 등은 직접 작사·작곡한 곡이다. 그는 195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서, 일제강점기의 트로트와 신민요를 소화하였고, 미국식 대중가요가 개화한 1960년대의 팝 스타일의 가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02년에 돌아가셨다.

상훈과 추모

1990년 KBS특별가요대상, 1996년 대한민국영상음반대상 본상(골든디스크 부문), 1999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03년 현인의 고향 부산 영도에 「군세어라 금순아」 가사가 새겨진 현인노래비가 동상과 함께 세워졌다.

현인(玄仁) 노래비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1가 190-1번지에 있는 영도 대교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3m, 가로 4m, 세로 4m이며, 형태는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와 항구가 어우러진 배의 형상에 음반, 음표, 파도와 함께 갈매기가 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노래비의 앞쪽 아랫부분에는 노래 「군세어라 금순아」의 가사를 새기고, 뒷면에는 현인의 약력을 새겼다. 「군세어라 금순아」는 부산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이자 현인의 존재를 대중 속에 각인시킨 가요이다. 1951년 1·4 후퇴 직후에 발표된 이 노래는 1·4 후퇴, 국제 시장, 영도 다리 등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과 장소들을 노랫말에 담고 있으며, 피난민 금순이의 군선 삶을 격려하며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실향민의 애환을 노래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민중의 정서를 대변한 현인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도 다리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참고문헌/『한국대중가요사』(이영미, 시공사, 1998)/『한국가요전집』1~5(세광출판사, 1980)



“삼가 아뢰입니다. 신들이 본래 인품은 미천하고 식견은 보잘것없지만, 임금을 섬김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도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변변찮은 말로써 우러러 밝으신 성상께 아뢰는 것이니, 삼가 살펴 주소서.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세상에 더러 있었다고는 하나 오늘날의 이 흉악한 무리들이 저지른, 만고에 들도 보도 못한 변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체로 역적을 사형에 처하고 그 족속들을 노륙(拏戮)하는 것은 상고 시대 이래 바뀌지 않았던 정법(正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신식(新式)이 제정된 이후로 흉도들에 대해서 단지 당사자만 교수(絞首)하고 그 가족들의 죄는 따져 묻지 않아서, 괴수는 도망쳐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남은 종자들은 버젓이 성상의 영토 안에 살면서 남몰래 금수 같은 짓거리를 하다가 끝내 살무사와 물여우 같은 독기를 부려 오늘날 같은 사고를 초래하게 한단 말입니까. 신식이란 바로 을미년(1895, 고종32)에 흉역(凶逆)한 무리들이 만든 것이니, 그 법은 진실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반해 수사(收司)와 노륙의 형전은 조종조(祖宗朝)의 더할 수 없이 엄격한 준칙입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흉역의 우두머리 김홍륙(金鴻陸)이 전후로 몇 년 동안 외람되이 입은 하해와 같은 큰 은혜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망측한 흥심을 품고 몰래 반역을 꾀한 것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크게 군민(軍民)을 모아 놓고 그의 목을 베고 몸뚱이를 토막 내어 전국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의 살점을 베어 먹고 가족을 베고 누움으로써 울분을 다소나마 씻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신들은 아직 국모(國母)의 원수를 갚지 못하였기에 절치부심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군부(君父)를 해치려고 한 흉적을 보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하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런 역적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유사(有司)에게 엄명을 내려 속히 연좌(連坐)의 형률을 적용함으로써 악역(惡逆)의 종자들이 불어나 퍼지지 못하도록 하고 흉악한 자들이 다시는 몰래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또한 삼가 생각건대, 대궐은 대황제 폐하께서 깊이 거처하시는 지극히 엄격한 곳입니다. 특별히 황제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때때로 특별히 입시하여 문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질(爵秩)이 없는 무리로서 특별히 입시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거리낌 없이 궁궐을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한 흉도와 내통하여 임금의 동정을 염탐하고 암암리에 국가의 기밀을 건네주는 자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계책으로는 엄금하고 차단하여 저 무지한 무리들로 하여금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니, 그렇게 한다면 간사하고 흉악한 일들이 생길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요리는 바로 서양 사람들의 음식물입니다. 무릇 우리 동양 사람의 장(腸)과 위(胃)는 서양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도 진실로 서양 음식을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늘, 더구나 지존(至尊)께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예전의 열성조(列聖朝)께서도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고 다른 나라의 옷을 입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법전에 실려 있으니, 지금 그대로 방치한 채 논하지 않아 나라 안의 신민으로 하여금 다투어 다른 나라의 풍속에 쏠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항을 엄격하게 수립하여 만드는 자와 판매하는 자들을 일절 금단하소서. 그리하신다면 자연 오늘날과 같은 변고는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색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다만 정식으로 바친 것만을 드소서. 그리하신다면 성상의 음식에 대한 걱정이 다소 걷히고 궁궐 안이 맑고 엄숙해질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들이 분한 마음에 격해서 말을 절제할 줄 몰랐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받아 들여 주소서.....”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성토한 것이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다. 말미에 진술한 것은 유념하겠다.” 하였다.

〈○〉 前副護軍玄學杓等疏曰, 伏以臣等, 本以人微識薄, 而粗知事君盡忠之道, 故敢以芻蕘之說, 仰陳於聖明之下, 伏願垂察焉。 亂臣賊子, 世或有之云, 而豈有如今日凶毒之醜, 亘萬古所不聞所不見之變怪乎? 大抵逆賊之戮身滅族, 是上古以來不易之正法, 而夫何新或以後凶徒, 則只絞其首, 不問其族, 使巨魁得以逃_躰[躰]漏網, 而其遺種偃然自居於聖域之內, 暗作烏鼠之行, 竟肆魍蜮之毒, 而致有今日之事, 新式乃是乙未凶逆輩之所創, 則其法固不可施行, 而收司拏戮之典, 自有祖宗朝關石之莫嚴矣。 噫嘻痛矣, 逆魁鴻陸, 前後幾年, 猥蒙山海隆恩者, 果何如, 而反懷罔測之凶肚, 陰謀不軌, 乃至於此哉? 伏願陛下, 大會軍民, 梟其首分其體, 使八域人民, 各自齟肉寢皮, 少洩憤惋之情焉。 臣等未復國母之讐, 方腐心湔血, 而又見此欲害君父之賊, 心膽俱裂, 手足戰栗, 寧死, 不願與此賊竝立於天地之間。 伏乞嚴命有司亟加連坐之律, 使惡逆之種無得滋蔓, 而凶毒之手, 不復暗肆, 且伏念禁中, 是大皇帝陛下深居至嚴之地也。 特蒙皇恩者, 或時別入侍而承候, 而今者無秩之輩, 托於別入侍, 無難出入於禁中者, 抑不無爲凶徒之內應, 窺伺上之動靜, 暗傳國之機密, 則爲今之計, 莫若嚴禁而隔絕之, 使彼無知之輩, 不得出入, 則奸凶之端, 無自而入矣。 且洋料理, 卽泰西人所食之物, 而凡我東土之人, 腸胃異於泰西人, 凡人固不可飲食, 況可進御於至尊者乎? 在昔列聖朝, 嚴禁其國民之食他國食, 衣他國衣, 故至今昭載法典, 則今不可置而勿論, 使國內臣民競趨於殊方之俗。 伏乞嚴立課條, 凡造成者販賣者, 一切禁斷, 則自無今日之變。 伏願陛下, 莫御異饌殊味, 但以惟正之供, 則錦玉之憂少敘, 閤門之內清肅矣。 臣等愚憤所激, 言不知裁。 伏願聖明采

納焉。 臣等無任云云。 奉旨，省疏具悉。 聲討出於公憤，而尾陳，當留念矣。

得以逃匿漏網而其遺種僥倖自居於聖域之內暗作鳥鼠之行竟肆咆哮之
 毒而致有今日之事新式乃是已未山逆黨之所創則其法固不可施行而收司
 擊戮之典自有祖宗朝關石之其嚴矣噫嘻痛矣逆夥鴻陸前後幾年
 懷蒙山海陸路者果何如而及懷國測之凶肚陰謀不軌乃至於此伏願
 陛下大奮軍民島其首領其體使八城人民各自齧肉寢皮少復憤慨之情
 正焉臣等未復國也之離方廣心漸血而又見此飲害君父之賊心膽俱列衣
 手足戰栗寧死不願與此賊並立於天地之間伏乞嚴命有司亟加運使之
 律使逆逆之種無得滋蔓而為逆之手不復暗昧且伏念臣等是奉主上
 澤庭至嚴之地也時蒙 皇恩者或時則人待而承 候而今者無秋之章托於
 別介特無難出入於禁中者抑不為凶徒之內應窺伺上之動靜暗傳國
 之機密則為今之計其若嚴禁而肅絕之使彼無知之輩不得出入則奸凶之端
 無自而入矣且洋料理即奉西人所食之物而凡我東土之人膳胃異於西人凡
 固不可飲食況可進御於至尊者乎在昔列聖朝嚴禁其國民之食他國食
 衣他國衣故至今昭載法典則今不可宜而勿論使國內臣民競趨於殊方之俗伏
 乞嚴立律條凡逆成者敗賣者一切禁斷則自無今日之憂伏願 陛下莫御農饒
 味俾以惟正之德則錦之慶火叙 閣門之內清肅矣 臣等愚心憤所激言不知
 其

光武二年戊戌八月初三日甲晴 陽曆九月十八日
 卿 李道宰 趙善九 八直
 李鍾翊 李肇榮
 金思濟 李鍾完
 趙秉聖 宋鍾氏
 李永淵
 上在慶運宮 太醫院都提調沈舜澤卿閣泳駿少卿趙秉聖 奏曰伏未審
 日間 聖體調攝中氣候若何 寢睡水刺之節何如臣等率諸醫官趙秉聖
 診詳察 聖候為宜 太子宮調攝餘氣候何如臣等不任區區伏慮敷來聞
 安並此仰 聖上高知道今既快復太子宮氣度平復 卿等不必入侍矣 後復石
 儀重修都監都提調沈舜澤謹 奏謹奉 詔勅今十九日 山陵表右堅立後仍
 詣陵上奉當 寢殿一體奉當次臣等進退之意謹上 奏奉 旨依奏
 前副護軍右學初等疏曰伏以 聖上以人微識薄而粗知事君盡忠之道
 故敢以菊荒之說仰陳於 聖明之下伏願 聖上為亂臣賊子世或有之云而
 豈有如今日凶逆之醜巨焉古所不聞所不見之變隆乎大抵逆賊之禍身滅
 誤是上吉以來不易之正法而夫何新式以後主使則必絞其首不問其誤使臣等

경운擎(敬)運, 24세, 대한제국기 대구전보사장(정보,통신,우편 책임자)

1862년(철종 13년)에 창원재판소판사 학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899년 대구전보사장(정보,통신,우편 책임자)이 되었다. 퇴직후 야학을 운영했다. 그의 모든 아들들은 관료계 내에서 상당한 경력을 갖게 되었다. 장자 홍건(鴻健)은 러시아사관학교를 거쳐 러시아대사관 통역관을 하였고, 둘째 아들 석건(奭健)은 明治大學(명치대학) 출신으로 대구에서 변호사가 되었다. 셋째 아들 정건(鼎健, 1892년 고종 29년 탄생)은 上海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평양에서 옥사하였다. 넷째 아들 현진건(鎭健) (1900-1943) 은 소설가이다.

홍건鴻健, 25세, 육군참령, 칭경시에식사무위원(稱慶寺禮式事務委員)

자 범구(範九), 1875년(고종(高宗)12년)10월13일 생, 서사학부교관육군부위(筮仕學部教官 陸軍副尉), 러시아사관학교졸업, 대한제국 육군참령, 외국어학교부교관, 칭경시에식사무위원(稱慶寺禮式事務委員)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39년 임인 > 6월 24일 > 최종정보
 고종 39년 임인(1902) 6월 24일(임자, 양력 7월 28일)
 39-06-24[06] 칭경시 예식사무위원에 특진관 김승규 등을 임명하였다

○ 특진관 김승규(金昇圭)·민영린(閔泳璘), 지계아문 부총재(地契衙門副總裁) 김중환(金重煥),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조동완(趙東完)을 칭경시 예식사무위원(稱慶時禮式事務委員)에 임명하고, 탁지부 주사 김선모(金善模)·이강식(李康湜)·이경상(李慶相)·원응상(元應常), 학부 주사 김황진(金璜鎭)·서상준(徐相準), 외국어학교 부교관 김한규(金漢奎)·**현홍건(玄鴻健)**·한귀호(韓龜鎬), 외부 주사 조원성(趙源誠), 외부 번역관보(外部繙譯官補) 김석영(金奭永)·변표정(邊杓正), 표훈원 주사(表勳院主事) 양필환(梁弼煥), 궁내부 주사 안상열(安商說), 농상공부 기수(農商工部技手) 김현일(金顯一), 한성우체사 주사

(漢城郵遞司主事) 박기홍(朴基鴻), 외국어학교 부교관 오일순(吳一純), 통신사 전화과 주사(通信司電話課主事) 고영원(高永遠), 내부 주사 김영운(金泳運), 내장원 기록과 주사(內藏院記錄課主事) 김희연(金禧演)·김성집(金成集)을 청경시 예식사무위원에 임명하였다.

〈○〉特進官金昇圭·閔泳璘, 地契衙門副總裁金重煥, 侍講院詹事趙東完命稱慶時禮式事務委員, 度支部主事金善模·李康湜·李慶相·元應常, 學部主事金璜鎭·徐相準, 外國語學校副敎官金漢奎·**玄鴻健**·韓龜鎬, 外部主事趙源誠, 外部繙譯官補金奭永·邊杓正, 表勳院主事梁弼煥, 宮內府主事安相說[安商說], 農商工部技手金顯一, 漢城郵遞司主事朴基鴻, 外國語學校副敎官吳一純, 通信司電話課主事高永遠, 內部主事金泳運, 內藏院記錄課主事金禧演·金成集命稱慶時禮式事務委員

光武六年壬寅六月二十四日壬子 陽曆七月二十八日
 尹容植 卽 李義國
 丞 李重五 卽 朴齊璜
 申 禹熙 卽 李秉韶
 安 禹鎬 卽 金夏容
 李 著宰
 沈 遠翼
 上在慶運宮 詔曰金澤城爲尹李漢英爲軍部城治曰高軍部砲臺長官往蓋爲停坪官尹 秘書院丞李倬南章熙弘父 俊佑該安桂和 智張某有李錫駿惠弼之廷主多金炳宙金麟奎 宋王取李圭洪林炳一白春主朴錫旭金榮哲樞樞府相沈沈中 崔院議政金榮哲林炳恒林炳祚姜葵香姜元元宋性默宋元 姜得丙珪內都主事李圭澄仁川管理官主事李錫承徐陽管理官 主事李龍源古昨管理官主事金錫鎬韓信都主事李得沈軍部主 事任在學部主事宋奎老李桂榮宋振燦金錫全初相 金文奎內都主事 尹相德忠清李道歡慶府主事李相錄宋陽

也道歡慶府主事金元煥咸鏡北道歡慶府主事李道植保祿 金相老李著宰沈遠翼任秘書院丞主事元在任弘父俊佑該韓 俊佑任 智張某有李錫駿惠弼之廷主多金炳宙金麟奎 金煥傳議政主事趙東完命 補慶時禮式事務委員度支部 主事金善模李康湜李慶相元應常學部主事金璜鎭徐相準 學部主事金漢奎玄鴻健韓龜鎬外部主事趙源誠外部繙譯官 補金奭永邊杓正表勳院主事梁弼煥宮內府主事安相說農商 工部技手金顯一漢城郵遞司主事朴基鴻外國語學校副敎官 吳一純通信司電話課主事高永遠內部主事金泳運內藏院記 錄課主事金禧演金成集命稱慶時禮式事務委員

석건奭健, 25세, 판사, 변호사

자 문중(文仲), 호 우농(友農), 고종(高宗)계미(癸未)5월22일생, 일본메이지대학법학과졸업, 변호사, 판사

승정원일기 > 순종 > 순종 2년 무신 > 5월 22일 > 최종정보
 순종 2년 무신(1908) 5월 22일(병오, 양력 6월 20일 토요일) 흐림
 02-05-22[03] 김상영 등에 대한 인사를 행하였다

○ 김상영(金相榮)·도변덕지조(渡邊德之助)를 공업 전습소 기수로 임명하고, 종2품 정인흥(鄭寅興)·양주 군수 신재영(申載永), 정3품 태명식(太明軾)·조예석(趙禮錫)·영흥 군수 이병화(李秉和)·법관 양성소 교수 유문환(劉文煥), 정3품 이면우(李冕宇)·김응준(金應駿)·종2품 최문헌(崔文鉉)·한성 재판소 판사 이원국(李源國)·황해도 재판소 검사 권병훈(權丙勳)·제주 재판소 검사 최원순(崔元淳)·(중략)평안남도 재판소 주사 문봉의(文鳳儀)·정3품 이용성(李容成)·이용재(李龍在), 9품 윤태영(尹泰榮)·이기찬(李基燦)·이진우

隆熙二年六月二十日土曜 陰戊申五月二十二日 午
 卿 趙同熙進
 記注官金天洙進
 李龍九進
 典製官金裕成進
 尹喜求進
 上在 昌德宮 奎章閣直閣李忠植馳詣 健元
 陵奉番摘奸仍留監 祭三石局內 諸陵一體奉
 審以來三石 旨奉承言以金相榮渡邊德
 之助任工業傳習所技手從二品鄭憲熙楊州郡守

(李珍雨) · 현석건(玄奭健)을 판사로 임명하였으며,
 정3품 윤성보(尹性普) · 한성 재판소 검사 한동리
 (韓東履) · 칠곡 군수 김상섭(金商燮) · 평리원 검사
 정석규(鄭錫圭) · 전라북도 재판소 검사 윤헌구(尹
 憲求) · 경상북도 재판소 검사 홍순용(洪淳瑢) · 도
 사무관 이희목(李熙穆), 9품 박승빈(朴勝彬) · 김응
 섭(金應燮)을 검사로 임명하였다. (중략) 검사 박승
 빈을 평양 지방재판소 검사로, 판사 윤태영을 진
 주 지방재판소 판사로, 판사 이진우를 대구 구재
 판소 판사로, 판사 현석건을 부산 구재판소 판사
 로, 검사 김응섭을 함흥 지방재판소 검사로 보직
 하였다.

羅瑤龍安郡守丁裕燮漢城裁判所主事成慶永法
 部主事沈遠明漢城裁判所主事鄭燮朝平理院主
 事沈魯旭平安南道裁判所主事文鳳儀正三品李
 寅成李龍在九品尹泰榮李基燦李珍雨玄奭健任
 判事正三品尹性普漢城裁判所檢事韓東履祭
 大郡守金商燮平理院檢事鄭錫圭金羅北道裁
 判所檢事尹憲忠慶尚北道裁判所檢事洪淳瑢道
 事務官李熙穆九品朴勝彬金應燮任檢事判事
 鄭憲熙補大審院部長檢事尹性普補平壤控訴院
 檢事判事申載永補平壤控訴院判事判事大明載

海州地方裁判所檢事判事成慶永補忠州正裁判
 所判事判事沈遠明補海州正裁判所判事判事鄭
 燮朝補全州正裁判所判事判事沈魯旭補原州正
 裁判所判事判事文鳳儀補平壤正裁判所判事判
 事李寅成補公州地方裁判所判事判事李龍在補
 晉州地方裁判所判事判事李基燦補咸興地方裁判
 所判事判事朴勝彬補平壤地方裁判所判事判事
 尹泰榮補晉州地方裁判所判事判事李珍雨補大
 邱正裁判所判事判事玄奭健補釜山正裁判所判
 事判事金應燮補咸興地方裁判所判事判事



석건의 묘

정건鼎健, 25세,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경상도의원

이명(異名)은 읍민(揖民). 1887년 대구(大邱)에서 출생하여 1919년 9월 상하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경상도의원으로 보선되어 활동하였다. 1923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에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 상해파의 일원으로 윤해(尹海)·신숙(申肅) 등과 함께 창조파(創造派)에 속하여 활동하였다. 개조파와 창조파의 의견대립으로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뒤, 창조파가 조선공화국(朝鮮共和國)의 건국을 결정하고 임시헌법과 국호를 제정하자 '이는 전민족의 의사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산당 대표로서 임시정부 계파간의 이견(異見)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24년 6월 인성학교(仁成學校)에 예비강습소가 설치되자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 등과 함께 영어를 담당하였다. 그해 11월 윤자영(允滋英) 등이 조직한 상해청년동맹회(上海靑年同盟會)에 가입하여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1925년 9월에는 상해교민단(上海僑民團)의 의사원으로 선출되었다. 그후 중국사정연구회(中國事情研究會)를 조직,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의열단(義烈團) 창립 제9주년 기념식에서 '재중국국민에게'라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27년 한국유일독립당(韓國唯一獨立黨) 상해촉성회 및 한국독립당관내촉성회연합회(韓國獨立黨關內促成會聯合會)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선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28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일본 총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

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옥 후 옥고의 후유증으로 1932년 병사했다.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出獄後病苦中이든

玄鼎健氏永眠

三十일오후 의전병원서 奮闘와苦難의一生

二十여청상을 하로가리 상해와 만주등지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하던 현정건(玄鼎健)씨는 의전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던바 작 三十일 오후五시경에 별세하였다

씨는 一九二八年봄에 상해경찰에게 검거되어 평양형무소에서 三년의형을마치고 금년七月에 출옥하여 아래 가회동(嘉會洞)자택에서 장구한 해외공사에 시달린고난과 령오생활에 피로한몸을 청양중이더니 복막염(腹膜炎)으로 의전병원에서 수술을받고 치료하였으나 의약의효를 얻지못하고드디어 별세하였다

씨의동지들은 동지장을 거행하기로한다는데 발인과 장지및 상의임원은 다음과갓다

1933년 1월 1일 현정건 선생의 죽음을 알리는 동아일보 기사. '분투와 고난의 일생'이란 제목의 기사로 선생의 죽음을 애도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8%84%EC%A0%95%EA%B1%B4>

현정건의 묘소와 묘비	현정건묘 옛 비석
	



독립의열사 현정건 선생의 묘(獨立義烈先生之墓)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신 현정건(1887.6.20.-1932.12.30) 선생의 묘소는 이곳 연주현씨 선영에 모셔져있다. 先生은 大韓民國 상해 임시 정부 의정원 慶尙道 代表위원으로 1919年 9月17日 選出되어 임시정부의 국사처리를 위하여 많은 活動을 하였고 1924年 6月中 상해로 망명해오는 한국학생을 敎育시키기 위해 김규식, 여운형 선생과 함께 상해교민강습소에서 영어과목을 교수하면서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를 中國韓人총동맹으로 규합하여 청년운동을 주도했다. 연구회 집행위원 選出되고, 상해의열단 창에 분에게 격문(文)을 발표하였다. 상해청년동맹회, 中國사정 연구회 집행위원에 選出되고, 상해의열단 창립 제9주년에는 재중국 국민에게 격문(檄文)을 발표하였다. 1927年 4月11日 독립전선의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하여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축성회를 조직하여 집행위원이 되었고 동년 10月 상해에서 한국독립당 관내 축성회 연합회를 조직할 때 집행위원에 選出되었다 1928年 8月3日 日本경찰에 체포되어 3年동안 옥고를 치렀고 출옥6개월만인 1932年 12月30日 고문과 옥중 휴유증으로 향년 45세로 영면 하셨다. 부인 윤덕경여사(尹德卿女史) 夫君 별세 후 17일 만에 애통한 유서를 남기고 순절하셨다 여기에 烈女 尹氏의 유서를 부기(附記)한다. "시숙시숙이여, 희망없는 이 人生이 살아 무엇하리오 차라리 시숙 동생을 따름만 못하리다 우리내외 四十이 되도록 살았으나 남녀혈육이 없으니 백골인들 누가 가없이 여기리오 같이 썩고자 하오니 합장해주소서." 정부에서는 先生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하였고 종중은 비를 세워 萬代에 전하리라. 2009년 3월 일. 密陽市長. 延州氏氏宗中

* 독립운동가 현정건과 의열단원 현계옥

현정건과 현계옥은 3.1 운동 이후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연인이자 동지였습니다. 현계옥은 대구 기생집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현정건을 만났습니다. 당시 현정건은 일본 유학을 거친 지식인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던 인물이었습니다. 현계옥은 그의 애국심과 뛰어난 식견에 매료되었고, 현정건 또한 현계옥의 용기와 의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현정건은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때 현계옥은 21세의 나이로 그를 따라 만주를 거쳐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의열단에 가입하며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의 길에 함께 올랐습니다. 현계옥은 의열단에서 간첩 활동과 자금 조달에 앞장섰습니다. 영화 '밀정'에서 연계순의 실제 인물이 바로 현계옥입니다. 반면 현정건은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과 연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혹독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1928년 현정건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살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현정건은 1932년 출옥 후 곧 사망했습니다. 현계옥은 연인의 죽음 이후 시베리아로 망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 의열단 최초 여성단원, 독립운동가 현계옥 <https://naver.me/FNmYVaOW>
- 한겨레 - 신청년의 애인 아닌, 독립운동 동지로 살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028376.html>
- 영남일보 [여성칼럼] '밀정'의 여주인공 연계순과 현계옥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60922.010300826540001>



승마복 차림의 현계옥(오른쪽). 1918년 3월5일치 <매일신보> 보도. 가운데는 기생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 정철성. 2 현계옥. 3 1925년 11월6일치 <동아일보>에 실린 현계옥 기사와 사진
1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지컬렉션 갈무리, 2 위키미디어, 3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갈무리



현계옥을 모델로 한 영화 <밀정>의 한 장면

* 현계옥 스토리 이면의 '또다른 신여성' 윤덕경 연구 - 그 삶과 ...

독립운동가 현정건과의 사랑을 꽃피우며 '기생 출신 혁명가'로 입신한 현계옥 스토리의 뒤편길에는 버림 받은 아내 윤덕경의 소외된 삶과 슬픈 최후가 있었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401668>

진건鎮健, 25세, 소설가, 동아일보 사회부장, 보운(普運)의 양자로 입적

중랑장공파 집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수가 20세기를 앞두고 해외 유학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1895년에 福澤諭吉(복택유길)과 유학생 위탁 계약을 맺고 총

195명에 달하는 유학생을 慶應義塾(경응의숙)에 파견하였다. 그 후 수많은 유학생이 일본에 파견되어 그중 귀국 후 관료가 된 자가 197명에 달하였다.

철운轍運, 24세, 안동관찰부주사 겸 용궁군수(安東觀察府主事兼龍宮郡守)
 자 서천(瑞天), 1866년(고종3년)생, 안동관찰부주사겸용궁군수(安東觀察府主事兼龍宮郡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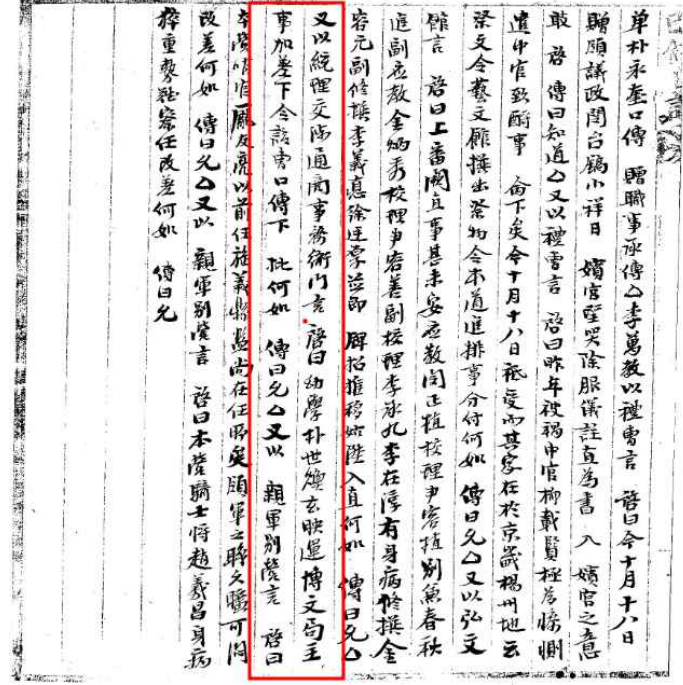
영운瑛運, 24세, 한국 최초 신문 <한성주보> 창간, 원수부 총장 등을 역임한 개화파 관료
 1868년(고종 5년)에 창원재판소판사 학표의 3남으로 태어났다. 9살에 관비유학생으로 일본 유학. 1884년 일본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재학시 동료 10여 명과 함께 김옥균이 일으킨 갑신정변(甲申政變)에 가담하였다. 1885년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졸업. 귀국 후 1885년 박문국 주사로 벼슬을 시작, 1886년에 한국 최초의 신문 <한성주보>를 창간했다.

* 한성-주보 漢城周報 : 고종 23년(1886)에 박문국에서 《한성순보》의 복간 형식으로 펴낸 정부의 관보. 최초의 국한문 신문으로 진보적이었으나, 1888년에 폐간되었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2년 을유 > 10월 16일 > 최종정보
 고종 22년 을유(1885) 10월 16일(신사) 낮에는 맑고 밤에 비 옴
 22-10-16[13] 박문국 주사에 유학 박세환 등을 더 차하할 것을 청하는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의 계

○ 또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유학 박세환(朴世煥), **현영운(玄映運)**을 박문국 주사(博文局主事)로 더 차하하고,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하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규장각 원본국역
 ○ 又以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言啓曰, 幼學朴世煥·**玄映運**, 博文局主事加差下, 令該曹, 口傳下批,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5년 무자 > 6월 7일 > 최종정보
 고종 25년 무자(1888) 6월 7일(정해) 흐림
 25-06-07[17] 병비의 관원 현황

○ 병비에, 판서 민영환(閔泳煥)은 병이고, 참판 이병교(李炳敎)는 병이고, 참의 신병우(愼炳佑)는 입직인데 나왔고, 참지 이상규(李象奎)는 아직 숙	규장각 원본국역 ○ 兵批, 判書閔泳煥病, 參判李炳敎病, 參議愼炳佑
--	--

배하지 않았고, 우부승지 남규희는 나왔다.
 동지 가설에 방우규(方禹規)를 단부하였다. 호군
 에 조종필(趙鍾弼), 부호군에 서의순(徐誼淳)·오
 유선(吳有善)·곽의중(郭儀鍾), **부사과**에 진상묵(秦
 尙穆)·임영휴(林永然)·장박(張博)·오용묵(吳容
 默)·이홍래(李鴻來)·한철중(韓喆重)·추백엽(秋
 栢燁)·정만교(鄭萬敎)·**현영운(玄映運)**·오세창(吳
 世昌)·김득련(金得鍊), 부사용에 이규정(李圭楨)·
 주우남(朱雨南)·심운택(沈運澤)·조병재(趙秉載)
 ·박순(朴杓)·이유덕(李裕惠)·육상희(陸相熙)·
 김동석(金東錫), 이상을 모두 단부하였다. 겸내금
 위장에 남병주(南秉樞)를 단부하고 지금 절충장군
 (折衝將軍)을 가자하였는데, 제수하라는 전지를
 받은 것이다.

入直進, 參知李象奎未肅拜, 右副承旨南奎熙進。
 同知加設單方禹規, 護軍趙鍾弼, 副護軍徐誼淳·吳有
 善·郭儀鍾。 副司果秦尙穆·林永然·張博·吳容默·李鴻
 來·韓喆重·秋栢燁·鄭萬敎·**玄映運**·吳世昌·金得鍊。
 副司勇李圭楨·朱雨南·沈運澤·趙秉載·朴杓·李裕惠·陸
 相熙·金東錫, 以上竝單付。 兼內禁將軍南秉樞, 今
 加折衝除授。

承旨閔丙承旨常招而拘於廳規不得請何以爲之敕 稟傳
 曰召招 南奎熙以吏曹言 啓曰安山郡守中雲祥慈城郡守張世
 國英陽縣監朴昌祐 昭慶園守奉官李友善 永懷園守奉官任
 際寧俱以身病呈狀乞遞并改差何如 傳曰允 南奎熙 啓曰臣
 吏兵批魚進之意 啓 傳曰知道 有政吏批判書金壽鉉牌招
 不進察判趙東冕進泰議金昇圭陳疏右副承旨南奎熙進以吏批言
 啓曰判書金壽鉉牌招不進泰議金昇圭陳疏小臣獨政未安何以爲之
 敢 稟 傳曰仍爲之以鄭漢朝爲同敦摩李顯道爲敦摩都正朴
 和圭爲知義禁李鳳奎爲兵曹參知金聲根爲藝文提學金雲培
 爲齊陵令徐玄輔李載善爲監察徐光淳爲平市主簿李俊統
 爲濟用主簿柳淳永爲尚瑞別提崔德訥爲安山郡守李奎學爲
 慈城郡守金尚英爲青陽縣監盧炯俊爲英陽縣監 觀軍壯
 衛營軍司馬單中學休機罷司事二學金有濟李承一仁川
 港書記官禹慶善仍其職陞六事 承傳 兵批判書閔泳煥
 病恭判李炳教病恭議慎炳佐入直進恭知李象奎未肅拜右
 副承旨南奎熙進同知加設單方禹規護軍趙鍾弼副護軍徐

誼淳吳有善郭儀鍾副司果秦尙穆林永然張博吳容默李鴻來
 秋栢燁鄭萬敎玄映運吳世昌金得鍊副司勇李圭楨
 朱雨南沈運澤趙秉載朴杓李裕惠陸相熙金東錫以上竝單付
 兼內禁將軍南秉樞今加折衝除授

뛰어난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1894년 갑오개혁 당시에 외아문 주사, 법부 법률기초위원을 지냈다.

* 갑오개혁(甲午改革) :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부터 1895년 7월 6일(음력 윤5월 14일)까지 추진한 근대화 개혁으로서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불렸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32년 을미 > 4월 1일 > 최종정보 고종 32년 을미(1895) 4월 1일(임인) 맑음 32-04-01[02] 칙령으로 내각 총리대신 1등에 김홍집을 임용하였다 ○ 칙령(勅令)으로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1등에 김홍집(金弘集), 외부 대신(外部大臣) 1등에 김윤식(金允植), 내부 대신(內部大臣) 1등에 박영효(朴泳孝),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1등에 어윤중(魚允中), 군부 대신(軍部大臣) 1등에 조지연(趙義淵),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재판장(法部大臣兼高等裁判所裁判長) 1등에 서광범(徐光範), 학부 대신(學部大臣) 1등에 박정양(朴定陽),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1등에 김가진(金嘉鎭), 내각 총서(內閣總書) 4등에 유길준(兪吉濬), 외부 협판(外部協辦) 3등에 이완용(李完用), 내부 협판(內部協辦) 3등에 이	<○> 勅任, 內閣總理大臣一等金弘集, 外部大臣一等金允植, 內部大臣一等朴泳孝, 度支部大臣一等魚允中, 軍部大臣一等趙義淵[趙義淵], 法部大臣兼高等裁判所裁判長一等徐光範, 學部大臣一等朴定陽, 農商工部大臣一等金嘉鎭, 內閣總書四等兪吉濬, 外部協辦三等李完用, 內部協辦三等李鳴善, 度支部協辦二等安駟壽, 軍部協辦三等權在衡, 法部協辦三等李在正, 學部協辦三等高永喜, 農商工部協辦三等李采淵, 警務使二等李允用, 內閣總理大臣秘書官兼內閣參書官
---	--

명선(李鳴善),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2등에 안경수(安駟壽), 군부 협판(軍部協辦) 3등에 권재형(權在衡), 법부 협판(法部協辦) 3등에 이재정(李在正), 학부 협판(學部協辦) 3등에 고영희(高永喜),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3등에 이채연(李采淵), 경무사(警務使) 2등에 이윤용(李允用), 내각총리대신비서관 겸 내각참서관(內閣總理大臣秘書官兼內閣參書官) 3등에 윤치호(尹致昊), 내각 참서관(內閣參書官) 4등에 박이양(朴彝陽) · 김득련(金得鍊), 기록국장 겸 내각참서관(記錄局長兼內閣參書官) 4등에 박영두(朴永斗), 외부 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 2등에 조중응(趙重應), 통상국장(通商局長) 3등에 조성협(趙性協),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4등에 육종윤(陸鍾允) · 김교헌(金敎獻) · 김각현(金玆鉉), 번역관(繙譯官) 6등에 현영운(玄映運) · 신태무(申泰茂), (하락)를 임용하였다.

三等尹致昊, 內閣參書官四等朴彝陽·金得鍊, 記錄局長兼內閣參書官四等朴永斗, 外部交涉局長二等趙重應, 通商局長三等趙性協, 外部參書官四等陸鍾允·金敎獻·金玆鉉, 繙譯官六等玄映運·申泰茂, (하락)

當陸鍾允金敎獻金玆鉉(繙譯官六等玄映運)申泰茂內州縣局長二等劉世南土木局長三等南宮穩版籍局長三等尹璠錫會計局長五等崔正益衛生局長四等金仁植內部參書官五等安沂中金始男金教性六等金奎熙視察官六等曹協承洪建祖車學模安宗洙度支部司稅局長二等李鼎煥司計局長二等金在豐出納局長三等鄭恒朝會計局長五等李海萬庶務局長五等金裕定參書官四等嚴柱典六等徐相勛韓昌財務官六等金炳翁李炳奎尹景根金應漢李相島印錫輔嚴柱完尹任禎李裕鼎尹鎬碩崔錫肇李容九金榮漢金時濟副領柳煥魯鄭蘭教泰領尹顯求柳敦秀趙義聞申載永安昌壽林殷明監督二等李周會四等朴道成監督補五等張華植副尉鄭光澈申泰俊金東萬李健榮安用善權甫鎮趙信和正尉權承弼權鍾龍尹詰圭泰尉李熙元金振聲洪淳瓚黃錢軍司五等申佐均金增集六等柳炳詢崔鎮泰理事六等洪祐亨軍部砲工局長柳煥魯經理局長李周會大臣官房長鄭蘭教副長尹顯求軍務局軍事課長安昌壽工兵課長林殷明經理局第一課長朴準成第二課長張

開國五百四年乙未四月初一日駐晴
大臣李載冕不進
協辦金宗漢進
參議鄭萬朝入直
鄭寅不進
朴鏞和進
上在景福宮 勅任內閣總理大臣一等金弘集外部大臣一等金允植內部大臣一等朴泳孝度支部大臣一等魚允中軍部大臣一等趙義淵法部大臣金高壽裁判所裁判長一等徐光範學部大臣一等朴定陽農商工部大臣一等金嘉鎮內閣檢書四等前吉濬外部協辦三等李完用內部協辦三等李鳴善度支部協辦二等安駟壽軍部協辦三等權在衡法部協辦三等李在正學部協辦三等高永喜農商工部協辦三等李采淵警務使二等李允用內閣總理大臣秘書官兼內閣參書官三等尹致昊內閣參書官四等朴永斗朴彝陽金得鍊記錄局長兼內閣參書官四等朴永斗外部交涉局長二等趙重應通商局長三等趙性協外部參書官四

온건개화파(穩健開化派)로 1896년 독립협회에 참여했다. 조선이 1897년(광무 원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고종에게 황제의 칭호를 쓰기를 청하는 상소문에 이름을 올렸다.

* 대한제국 :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 조선이 제국을 선포하여 세워진 전제군주제 국가로, 한국사에서 성립된 마지막 군주국이다. 대조선국의 대군주인 고종이 1897년(건양 2년) 칭제건원하여 황제를 선포하고 국호를 대조선국에서 대한제국으로 변경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수교국들의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이전 조선국의 영문 국호이던 Korea에서 따와 국제적으로 Empire of Korea로 불렸다. 과거 고려왕조가 역성혁명으로 무너져 조선왕조가 개국했던 것과 달리 대한제국의 국체는 조선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1895년(고종 32년) 명성황후가 살해된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일본과 친일내각이 장악한 경복궁을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했고 이후 친러내각을 수립한 뒤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황제에 오르고 대한제국을 건국하였다. 동시에 광무개혁을 통하여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고종 34년 정유(1897) 9월 4일(경인, 양력 9월 29일) 맑음

34-09-04[10] 타당한 여론에 따라 황제의 칭호를 올릴 것을 청하는 치사 봉조하 김재현 등의 상소

○ 치사 봉조하(致仕奉朝賀) 김재현(金在顯), 정1품 이호준(李鎬俊),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영수(金永壽), 특진관(特進官) 민영준(閔泳駿) · 조병식(趙秉式) · 민영소(閔泳韶) · 조동면(趙東冕) · 이종건(李鍾健) · 민영달(閔泳達) · 조정희(趙定熙) · 윤길구(尹吉求) · 김상규(金商圭) · 이도재(李道宰) · 이우면(李愚冕) · 민형식(閔亨植) · 민영철(閔泳喆) · 이은용(李垠鎔) · 김덕규(金德圭), 의정부 찬정 박정양(朴定陽)(중략) 법률기초위원(法律起草委員) 현영운(玄映運)(하략) 등이 상소하기를,

〈○〉 致仕奉朝賀金在顯, 正一品李鎬俊, 弘文館太學士金永壽, 特進官閔泳駿·趙秉式·閔泳韶·趙東冕·李鍾健·閔泳達·趙定熙·尹吉求·金商圭·李道宰·李愚冕·閔亨植·閔泳喆·李垠鎔·金德圭, 議政府贊政朴定陽(중략) 法律起草委員玄映運·權柔燮(하략)

“삼가 아뢰옵니다. 신들은 삼가 생각건대, 우리 폐하께서는 뛰어난 성인의 자질을 타고나시고 중흥(中興)의 국운을 얻으시어 왕위에 오르신 지 34년 동안 총명으로 정사에 임하시고 신무(神武)하여 형정(刑政)을 일삼지 않으셨으며, 밤낮으로 국사에 부지런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잘 다스린 결과 화란(禍亂)을 안정시키고 형벌을 쓰지 않는 것을 기약하게 되었으니, 그 크고 성대한 공렬(功烈)은 우뚝 천고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자주권을 쥐고 독립의 기초를 안정시켜서 마침내 연호를 세우고 조칙을 내려서 모든 제도가 환하게 다시 볼 만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천명과 인심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주(周) 나라’는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이 새롭다.’는 것이니,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다만 거를이 없어서 거행하지 못한 것은 오직 황제(皇帝)라는 큰 호칭을 올리는 것뿐입니다. 신들은 근원을 소급하여 낱말이 진술하기를 청합니다.

무릇 복희씨(伏羲氏)와 신농씨(神農氏)는 ‘황(皇)’이라고 불렀고 요(堯)와 순(舜)은 ‘제(帝)’라고 불렀고, 우(禹), 탕(湯), 문(文), 무(武)는 ‘왕(王)’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대의 연혁은 비록 같지 않지만 그 지존(至尊)이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진(秦) 나라와 한(漢) 나라 이후로는 ‘황’과 ‘제’를 합쳐서 ‘황제’라고 불렀으며, 임금의 자리는 드디어 오작(五爵)의 윗자리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는 문화나 제도가 같지 않고 또한 ‘황’과 ‘왕’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로마 때에 비로소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고, 게르만은 로마의 계통을 이어서 그 위호(位號)를 답습하였고, 오스트리아는 로마의 옛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황제라고 불렀고, 독일은 게르만의 계통을 이었으므로 그 존호를 따랐고, 러시아(俄羅斯)와 터키(土耳其)는 모두 자주국이어서 모두 가장 높은 칭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경(地境)이 중국과 연해 있고 분할과 통합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세 나라는 각각 그 땅의 주인으로 균등하게 왕호(王號)가 있었고, 송양(松讓), 가야(伽倻), 예맥(穢貊), 여진(女眞), 탐라(耽羅) 등의 작은 나라도 각각 왕으로 불렀습니다. 고려(高麗)가 통합하고는 다만 묘호(廟號)만을 사용하였고 우리 왕조가 선양(禪讓)을 받고는 옛것을 그대로 따랐는데, 이것은 당(唐) 나라와 송(宋) 나라 이후로 황제의 칭호를 쓰지 못하도록 견제당한 까닭입니다.

우리 폐하는 성덕이 날로 새로워지고 문교(文教)가 멀리 퍼져서 외국과 교제(交際)함에 있어서 만국(萬國)과 같은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옛날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실로 천심(天心)을 대양하고 백성의 표준이 되는 도리가 아닙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구미(歐美) 여러 나라는 모두가 대등하게 왕래하여 우열을 나눌 수 없는데 아시아의 풍속은 그렇지 아니하여, 그 위호가 우연이라도 같지 않을 경우에는 교제에도 지장이 없지 않으니, 이것은 참으로 충신(忠臣)이나 의사(義士)가 밤낮으로 개탄하는 점입니다. 지금 만약 서둘러 황제의 칭호를 올려서 만국에 밝힌다면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은 날로 사그라지고 우의(友誼)는 더욱 돈독하게 될 것이니, 장차 영원히 천하 만세(天下萬世)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토는 한 나라와 당 나라의 옛 땅이어서 의관(衣冠)과 문물이 모두 송 나라와 명 나라의 남긴 제도를 따르고 있는 만큼 그 계통을 접하고 그 호칭을 답습하더라도 안 될 것은 없으니, 마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똑같이 로마의 계통을 이은 것과 같습니다. 독립과 자주는 이미 만국의 공인을 거쳤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진실로 응당 행해야 할 성대한 의식인데, 폐하께서는 무엇을 꺼려하여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신들이 그 공법서(公法書)를 가져다 보니, ‘임금이 반드시 떳떳한 칭호를 가져야만 황제를 칭하는 나라들과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경장(甲午更張) 뒤에는 독립의 명칭은 있었으나 자주(自主)의 실체가 없어서, 국시(國是)는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의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은 진실로 위의(威儀)를 바르게 하고 눈빛을 의젓하게 하여 민심이 추향하는 바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법서의 소주(疏註)에, ‘러시아 임금이 황제라고 칭호를 고치자 각 나라가 좋아하지 않다가 20여 년 뒤에야 승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일을 행하고 우리가 우리 예(禮)를 쓰는 것은 모두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승인하는 것이 늦고 빠른 것에 대해서는 일에 앞서서 미리 헤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자(論者)가 ‘왕(王)과 군(君)은 한 나라를 소유한 칭호인데, 황제는 여러 나라를 통할하는 칭호이므로 영토를 개척하고 백성을 늘려 각 나라를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컬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한(三韓)을 통합하였고 육지의 영토가 4천 리에 뻗어 있으며, 인구는 적어도 2천만 명이 되니, 오늘날 폐하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누군들 우리 폐하가 지존의 자

리에 올라 지존의 칭호에 응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옛일을 인용하여 오늘을 증명하고 사정을 참작하고 형세를 헤아려 보아도 실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여론을 따르시어 큰 칭호를 받아서 명성을 만국에 알려져 천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종묘사직에 매우 다행이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받은 칙지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짐에게 권면할 바가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너 무도 부당한 칭호를 가지고 말을 하니, 실로 경들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시국을 바로잡을 계책을 궁구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상소문이 수록된 당시의 승정원일기에 상소문에 연명(連名)한 직계 선조들의 이름이 보인다.

〈○〉 致仕奉朝賀金在顯, 正一品李鎬俊, 弘文館太學士金永壽, 特進官閔泳駿·趙秉式·閔泳韶·趙東冕·李鍾健·閔泳達·趙定熙·尹吉求·金商圭·李道宰·李愚冕·閔亨植·閔泳喆·李垠鎔·金德圭, 議政府贊政朴定陽·尹容善·趙秉稷·金明圭, 參贊閔丙奭, 宮內府大臣李載純, 協辦尹定求, 農商大臣李允用, 協辦權在衡, 度支大臣沈相薰, 協辦金永憲, 外部大臣閔種默, 協辦俞箕煥, 內部大臣南廷哲, 協辦申奭熙, 法部協辦李寅祐, 從一品李淳翼·李裕承·李憲植·申箕善·尹宇善, 宗正卿李載完, 太醫院卿閔泳奎, 掌禮卿金奎弘, 殯殿都監提調李信魯, 國葬都監提調趙秉鎬, 山陵都監提調李正魯·金宗漢·李鎬翼, 王太后宮大夫洪淳馨, 侍從卿鄭洛鎔, 正二品金晚植·金世基·金九鉉·申獻求·趙熙一·南廷順·趙鍾弼, 秘書卿金永穆, 會計院卿成岐運, 課長吳顯耆·李漢儀, 漢城判尹李采淵, 少尹李啓弼, 中樞院議官金文鉉·安駟壽·任商準·元禹常·李裕寅·閔啓鎬·李源逸·閔致憲·李暉·吳順泳·閔炯植·李冕相·閔泳柱·閔丙漢·金裕成·尹致昊·金在豐·李周赫·李憲翼·洪鍾億·李承載·閔泳壽·鄭履源·李會九·金重圭·李承淵·金吉鍊·申大均·李鳳魯, 從二品李龍和·朴齊純·朴容大·鄭周永·白性基·姜贊·尹成鎮·徐臣輔·金哲根·李根浩·徐相祖·李根秀·李根豐·金在容·李完用·李軒卿·金興圭·金宗圭·趙東萬·閔泳國·李命夏·李命宰·鄭敬源·趙民熙·任衡準·徐丙勳·洪大圭·李鍾順·鄭寅學·李胄榮·丁觀燮·李勝宇·李仁植·尹泳奎·金景熙·李漢用·尹相衍·李聖烈·具然郁·李熙斌·申性均·李恒儀·宋啓憲·閔泳瓚·鄭漢朝·李在正·高永根, 太僕司長沈相萬, 奉常提調朴鳳彬·趙秉弼·金學洙·金嘯鉉, 景慕宮提調金完秀, 永禧殿提調趙臣熙, 宗廟提調金喆熙, 侍講院詹事宋道淳, 副詹事李容善, 奎章閣直學士金昇圭, 正三品金泰鉉·鄭健植·尹泰興·尹泰元·韓光洙·金甲洙·申炳休·金永奭·洪在駿·池錫永·元世洵·朴噉陽·李始榮·徐完淳·李會元·沈相璜·洪鍾榮·李取榮·金寅植·吳正根·金教獻·李源兢·李普憲·鄭元和·李鎬冕·鄭閔朝·宋榮大·朴齊斌·具興祖·徐相鶴·黃弼秀·沈相說·李容泰·閔泳敦·金容圭·金甲圭·南廷弼·李應翼·李範仁·朴齊聖·李根教·尹忠求·尹鍾永·朴世秉·李鍾弼·徐丙祐·李鍾翊·李秉勳·趙義昌·鄭日永·權鍾夏·尹起晉·鄭翰謨·李敬夏·韓麟鎬·南孝元·朴齊恂·吳根善·廉在明·李敦應·柳榮魯·韓澤履·鄭熙悅·鄭佑默·閔鳳鎬·李宗鎬·金永典·李象彦·李鎬性·吳定善·李正珪, 宮內府參書官申泰兢·李玄植·張鳳煥, 參理官李學均·梁宗彦, 內藏司長玄興澤, 奉常副提調徐丙善·南奎熙·金天洙·閔哲勳·李鍾七·鄭寅燮·趙秉聖·權榮洙, 長鄭寅奭, 侍從院侍從李鎬奭·李容教·金永準·閔泳璇·崔榮夏·李漢英, 農商工部參書官趙秉健·徐廷稷·卞鍾獻·姜寅圭, 局長宋憲斌·李度翼·崔文鉉·金鏞元·金容純, 技師金澈榮·金永燦·河正龍·許燾·金東集·吳承根, 度支部局長柳正秀·鄭恒朝·李海萬·韓鎮昌·金裕定, 參書官嚴柱完·金炳翕, 財務官金奎熙·李容九·韓在鎮·李裕弼·崔錫肇·金榮漢·金喆鉉·尹鎬楨·尹泰觀·姜元魯·申廷植, 議政府總務局長李商在, 參書官尹達榮·趙秉奎, 法部局長金基龍·李忠求·申載永, 參書官李熙憲·皮相範·朴熙鎮·權在運·金教性·趙禮錫·馬駿榮, 檢事李徽善·大明軾, 法律起草委員玄映運·權柔燮, 高等裁判所檢事試補金義濟, 漢城裁判所判事徐相世·尹庚圭, 電報司長白喆鏞, 郵遞司長李正儀, 檢事韓鏞教·咸台永, 內部局長金重煥·尹璫錫·崔正錫, 參書官金始男·吳命煥·玄隲·申泰遊·鄭駿時·李寅哲·吳永烈, 視察官俞鎮哲, 學部局長韓昌洙·李庚植·李敦修, 參書官洪禹觀·尹惠榮·李海德, 技師劉漢鳳, 外部局長金玉鉉·趙性協, 參書官李準榮·丁大有·朴慶陽, 繙譯官朴鏞奎·彭翰周·尹台榮·李建春·朴基駿, 秘書丞金鴻陸·姜友馨·李起鍾·鄭世源, 郎李愚萬·申憲均·金春洙·閔泳晚, 弘文館侍讀李範錫·趙漢元·李範贊·鄭淳元, 軍部參領權用國·李寅榮·李敏燮·李秉武·趙東潤·張基濂·朴箕陽·金在殷·金教赫·尹鎮佑·姜燦熙·權鍾奭, 局長李敏宏·白樂均, 安州參領李容觀, 水原參領南廷植, 王太子妃宮大夫閔泳琦, 弘文館副學士李載現, 成均館長徐相鳳, 警務官李鍾林·金貞植·具範書·魏洪奭·洪應祖·吳鎮運·李珍祐·尹龜榮·李宗夏·金炳駿·安敬煥·張允煥, 尙衣司長李載崐, 典膳司長崔鶴圭, 掌禮申弼熙·趙鎮萬·尹弼殷, 贊儀閔載德, 軍部正尉申昌熙·李錫薰·全佑基·趙復熙·趙聖遠·金龍三·尹定林·權鍾殷·鄭泰奭·李龍漢·吳普泳·金鴻權·李承奎·洪眞吉·朴晶煥·柳炳詢·柳昇東·秦學純·李圭植·安泰承·尹錫天·吳昌成·姜漢駿·金命煥·李惠淳·洪淳明·閔弘植·李恒魯·李龍儀·金元桂·張錫祚·林漢相·申錫溶·金演蒼·吳景根, 副尉申謙熙·鄭禹錫·李承弼·安大亨·徐丙善·李基豹·金昌錫·林相初·李漢肯·趙寧奎·劉

璋·金道鉉·吳聖學·徐景春·白鶴鎮·李漢甲·宋學洙·林炳一·金重鉉·李根英·李克善·全永憲·全惟性·朴文教·李漢昌·李圭甲·李哲和·洪秉晉·趙奉得·朴有泰·李昌根·張駟遠·李寅八·李守鳳·李啓喜·鄭春元·金仁洙·舍在洽·金興猗, 參尉金泰進·崔鳳奎·崔在翊·金盛根·睦永錫·朴興燁·金學秀·朴奎煥·李圭祐·梁在浩·李秉圭·沈宜雲·金基建·金完弼·洪秉壽·文熙善·韓性鎮·全成權·李鍾郁·劉基善·金浚模·李敏稷, 宮內府主事朴澄善·劉永浩·崔泓俊·劉鎮容·吳在豐·金鎮賢·全光默·李熙圭·李章憲·金圭鎮, 營繕司主事劉景學·金瓚洙·金弘基·宋啓昌·崔元章, 貴族院主事金洛鉉·金洛勳, 太僕司主事沈興澤·成周炯·李燾德, 侍從院主事卞鍾聞·全興潤, 議政府主事李啓馨·李喬永·韓永福·張鴻植·李哲圭·金準用·李道相·玄昇奎, 外部主事黃祐永·李秀岳·魚益善·張起淵·印東根·李觀九·趙源誠·李思範·崔浩善·金華圭·尹容求, 內部主事李復榮·慶必永·洪泰貞·丁憲燮·金明逸·玄百運·金泳運·崔時鳴·權宅洙·金在演·金熙祥·金鳳洙·李相衍·吳在珪·李翼龍·李承輔·扈然昌·柳成烈·金能演·劉漢健·金台應·禹用鼎·李升采·崔勳柱·盧鳳洙·權永旻, 度支部主事趙漢商·尹榮兌·柳譚·崔炳吉·沈健澤·金重協·金秉圭·魚浩善·李命植·李銳桓·金鳳煥·李容立·申龍圭·卞志沆·李圭白·李容純, 法部主事姜璉熙·趙敬植·朴齊璿·楊孝健·睦源晟·李弘植·李圭晉·金圭鉉·李道均·尹炳一, 軍部錄事徐相詰·洪燮觀, 主事李東赫·吳敬倫·張顯奎·俞鎮滢·白南準·金炳日·權鍾樂·李聖奎·鄭道永·李徹·洪慶勳·崔采鵬·劉章賢·權箕壽·徐光軾·張容植·方漢鵬·李康年·金漢朝·金鏞聞·曹錫訥·韓在勳·尹濟普·李世永, 學部主事金楨潤·崔恒錫·李貞善·鄭鍾振·白奭萬·韓敦源·柳靖鉉·徐相準, 教授李殷永·韓敬澤·慶賢秀, 教員韓明教·李敦承·李萬奎·李升均·崔廷德·金漢高·李元圭·金聲鎮·朴治勳·丁奎寅·沈承弼·吳裕善·金啓明, 農商工部主事孫永吉·玄濟復·金輔炯·金永基·趙義贊·嚴台永·洪在夏, 中樞院主事白南奎·安錫弘, 漢城府主事金宗植·金源杓·金商直·河圭一·李奎淵, 總巡盧興奎·崔永祚·尹兢植·李宇憲·李種憲·李完培·金泰元·姜台植, 侍御元益常·李相俊·李鍾應·申龍均, 宗正院主事李載洪·金肯洙·李載星·尹秉禧, 典膳司主事崔秉周·張駿遠·羅在珉·金鼎植, 尙衣司主事金光植·鄭東俊·崔萬燮·任泳鎬, 太醫院典醫朴準承·洪哲普·鄭寅鎮·尹豐楨, 主事李禹善·沈永錫·玄東完, 掌禮院掌儀李昌善, 主事李熙相·李宣泰·嚴柱源·金萬源·申奎善·金龍圭·黃義喆·崔奎源·柳漢·李兌斗·權鍾國·鄭光杓·申泰俊·禹鎮亨·權承翼·康台鉉·朴鏞燮, 奉常司主事張斗植·尹泳洙·金昌鎮·李載說, 殯殿都監都廳尹德榮, 郎廳金炳高·鄭允永·李建弘·申鶴均·李鳳植, 監造官金炳斗·宋秉和, 社稷令李鎬淮, 宗廟令尹肅榮, 會計院主事李寅旭·劉永善·吳德默·金漢永·千興植·秦永謙, 侍講院侍讀官金炳玉·趙重穆·成健鎬, 侍從官安志承·徐采淳·李胄夏·金商五·李範喬·李宣珪·李龍九, 內藏司主事鄭仲永·趙善鎬·劉臣赫·朴昌善·金賢培, 國葬都監都廳金教憲, 景陵令李載徹。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광무개혁을 통해서 내정개혁을 단행했다. 영운(映運)은 광무개혁 주역 중의 한 사람이다.

* 광무개혁(光武改革) : 대한제국의 첫 연호(年號)인 광무 연간에 실시한 개혁. 1897년에 성립한 대한 제국이 완전한 자주적 독립권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1904년까지 단행한 내정 개혁이다.

이후 귀비 엄씨의 총애를 받으면서 1898년 궁내부참리관, 1900년 시종원시종, 궁내부예식원 번역관, 칠원군수, 암행시찰어사를 거쳐서 1901년 중추원의관, 1903년 철도원회계과장, 1904년 철도원감독, 군부협판을 지냈다. 1904년에 고종의 밀사로 영세중립국수립 임무를 띠고 주일본특명전권공사로 파견됐다. 육군참장(陸軍參將), 군기창 제리(提理), 원수부 검사국 총장을 지냈으며, 1905년 농상공부 협판(協辦), 농상공아문의 대신 서리를 지냈다. 1905년 탄핵을 받아 면관(免官)되고 향리(鄉里)로 쫓겨나는 처벌을 받았으나, 4개월 만에 징계에서 특별 사면되어 육군참장에 복귀하였다. 그 뒤 1906년 봉상사(奉常司) 제조(提調), 1907년 태복사(太僕司) 장(長)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군부협판(軍部協辦)

[인물요약] · UCI G002+AKS-KHF_13D604C601C6B4B1868X0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종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후기 · 왕대 대한제국(大韓帝國) · 본관 미상(未詳) · 활동분야 관료 · 항목 군부협판(軍部協辦)	[관인정보] · 제수년월 1904 [갑진(甲辰) 2월] [출전] 「청선고(淸選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603])
--	--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검사총장(檢査總長)

[인물요약] · UCI G002+AKS-KHF_13D604C601C6B4B1868X0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종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후기 · 왕대 대한제국(大韓帝國) · 본관 미상(未詳) · 활동분야 관료 · 항목 검사총장(檢査總長)	[관인정보] · 제수년월 1904 [갑진(甲辰) 6월] [출전] 「청선고(淸選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603])
--	--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辦)

[인물요약] · UCI G002+AKS-KHF_13D604C601C6B4B1868X0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종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후기 · 왕대 대한제국(大韓帝國) · 본관 미상(未詳) · 활동분야 관료 · 항목 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辦)	[관인정보] · 제수년월 1905 [을사(乙巳) 5월] [출전] 「청선고(淸選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603])
--	--

[관련정보]

- [\[사전\] 인물 생애 정보](#)
-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군부협판\(軍部協辦\)](#)
-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검사총장\(檢査總長\)](#)
-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辦\)](#)

밀양 기생 출신 배정자(裴貞子)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서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현송자(松子)의 생일이 1899년 5월 16일인 것으로 보아 1898년 경에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배정자가 이토호히로부미의 수양딸이라는 설이 있으나 근거는 남아 있지 않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고종실록』/『일성록』/『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

송자松子, 25세, 1899년 영운과 배정자 사이에 태어났다. 한국 최초의 서양무용가 **배구자**와는 외사촌간이다. 제일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에서 메지로녀자대학(目白女大)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녀는 인텔리 사교계 여성으로 당시 기사에 의하면 "**이와가티 그의 학창시대는 비교적 순조로 그리고 여자로서 배울만한 공부를 최고학부까지 마쳤다.**" 한다. 윤보선 대통령의 큰아버지로 학무국장, 중추원참서관, 중앙학교 4대 교장을 역임한 윤치오(尹致昨)와 결혼해서 아들 영선, 대선, 딸 효선을 얻었으나 이혼하고 이철과 재혼한다. 이 후 **이철**의 음악 사업을 적극 도왔다. 현송자는 이철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 관련 경력을 고려해서 일본 유학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가 음반회사 지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 이철이 1933년 ‘오케레코드사’를 창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오케레코드사’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음반회사이다. 1978년에 돌아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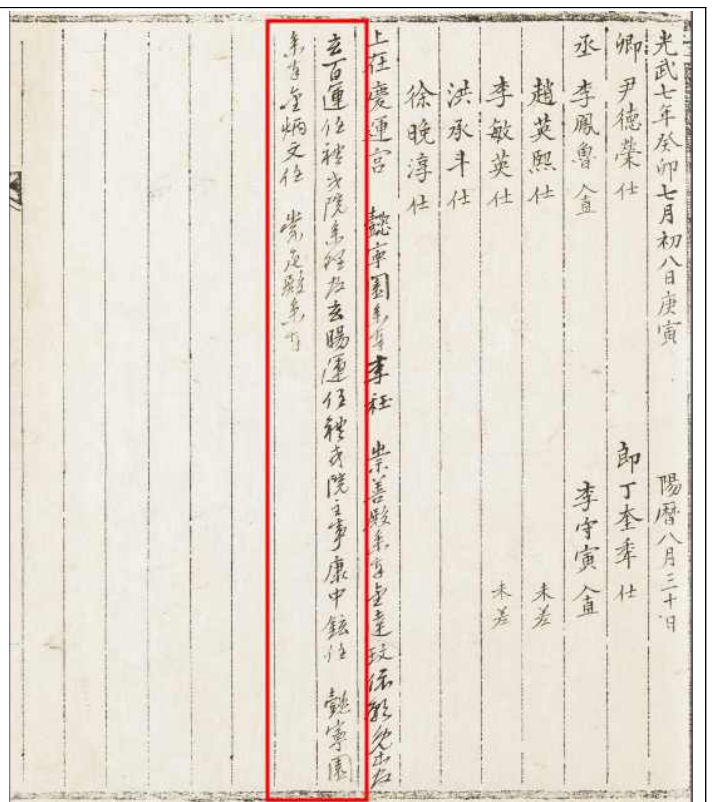


양운陽運, 24세, 대한체육구락부(대한체육회 전신前身) 조직, 한국 최초의 축구선수
1881년(고종 18년)에 창원재판소판사 학표의 4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산해(山海)이다. 관립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1892년 궁내부 예식원(宮內部禮式院)주사(主事)로 벼슬을 시작했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40년 계묘 > 7월 8일 > 최종
정보
고종 40년 계묘(1903) 7월 8일(경인,
양력 8월 30일)

○ 현백운(玄百運)을 예식원 참리관에 임용하고,
현양운(玄陽運)을 예식원 주사(禮式院主事)에 임용
하고, 강중현(康中鉉)을 의령원 참봉에 임용하고,
김병문(金炳文)을 승선전 참봉에 임용하였다.

<○> 玄百運任禮式院參理官, **玄陽運**任禮式院主事,
康中鉉任懿寧園參奉, 金炳文任崇善殿參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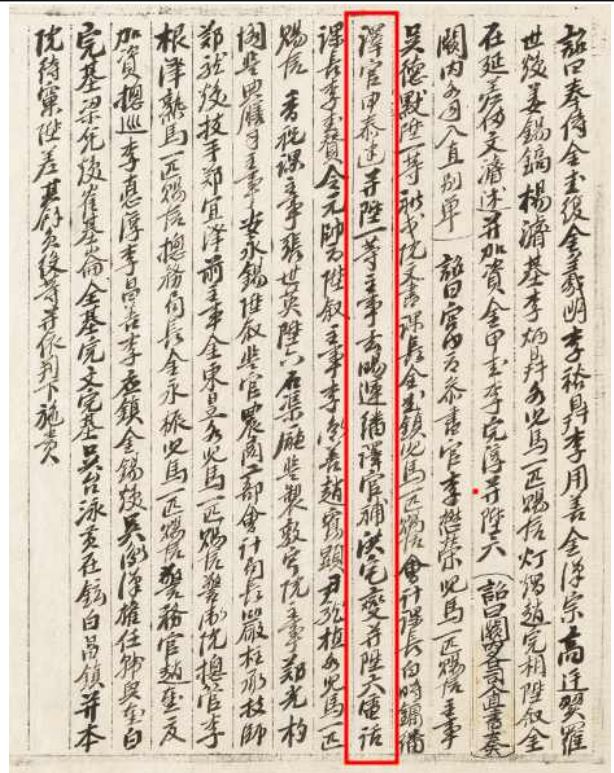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40년 계묘 > 9월 16일 >
고종 40년 계묘(1903) 9월 16일(병신,
양력 11월 4일)

40-09-16[27] 궐내 각사의 입직 별단에 대해, 궁내부 참서관 이무영 등에게 시상하라는 조령

○ 궐내 각사의 입직 별단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참서관 이무영(李懋榮)에게 아마 1필을 사급(賜給)하라. 주사 오덕묵(吳德默)은 1등을 올리라. 예식원 문서과장(禮式院文書課長) 김규진(金圭鎭)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회계과장(會計課長) 백시용(白時鏞), 번역관 신태정(申泰廷)은 모두 1등을 올리라. 주사 현양운(玄暘運), 번역관보 홍택섭(洪宅燮)은 모두 승록(陞六)하라.” 하였다.

○ 闕內各司入直別單。 詔曰, 宮內府參書官李懋榮兒馬一匹賜給。 主事吳德默陞一等。 禮式院文書課長金圭鎭兒馬一匹賜給。 會計課長白時鏞, 繙譯官申泰建, 並陞一等。 主事玄暘運, 繙譯官補洪宅燮, 並陞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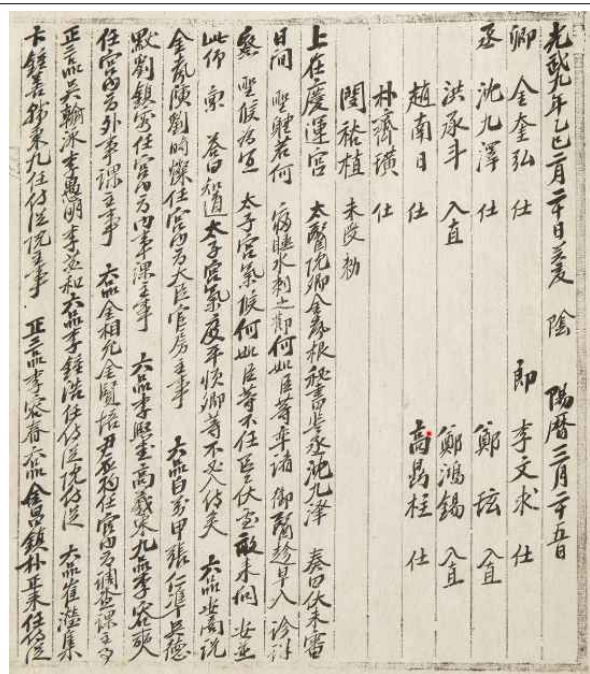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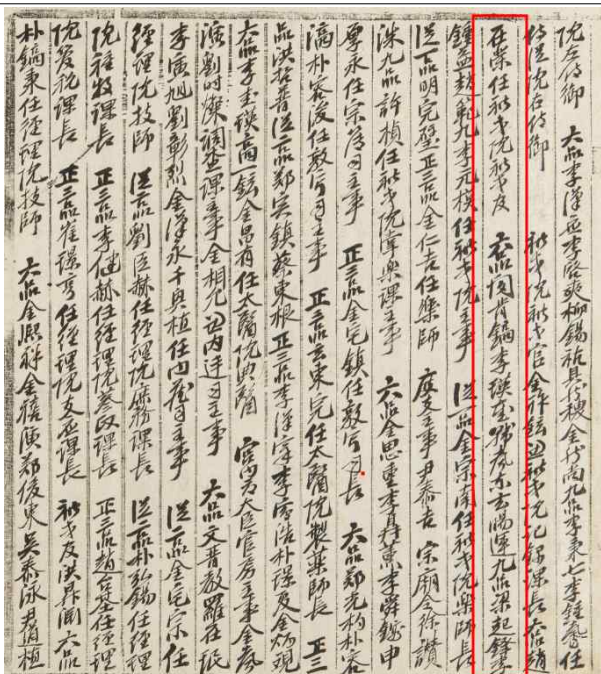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42년 을사 > 2월 20일 > 최종정보

고종 42년 을사(1905) 2월 20일(계해, 양력 3월 25일) 흐림

42-02-20[03] 궁내부 대신관방 주사에 6품 안상열 등을 임용하였다

○ 6품 안상열(安商說)·김성연(金聲演)·유시찬(劉時燦)을 궁내부 대신관방 주사(宮內府大臣官房主事)에 임용하고,(중략) 6품 민금호(閔肯鎬)·이영규(李瑛奎)·한성동(韓聲東)·현양운(玄暘運), 9품 양기탁(梁起鐸)·이종익(李鍾益)·조범구(趙範九)·이원모(李元模)를 예식원 주사(禮式院主事)에 임용하고,(중략) 6품 이규영(李圭瑛)·고일현(高一鉉)·김창유(金昌有)를 태의원 전의(太醫院典醫)에 임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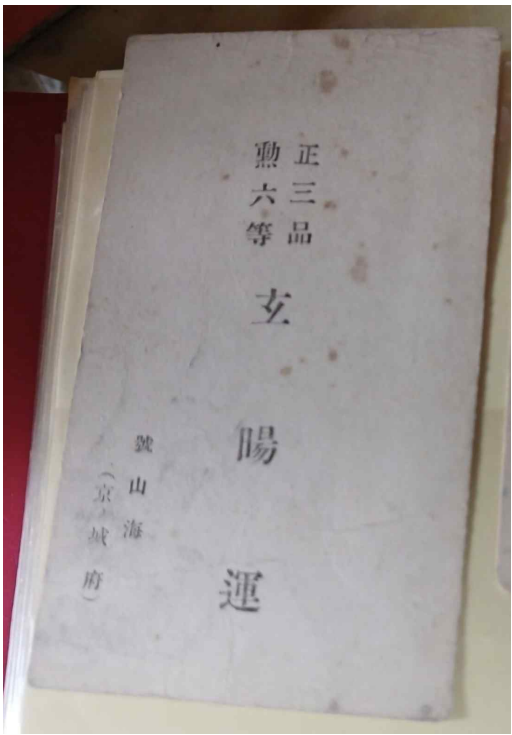
○ 六品安商說·金聲演·劉時燦任宮內府大臣官房主事,(중략) 六品閔肯鎬·李瑛奎·韓聲東·玄暘運九品梁起鐸·李鍾益·趙範九·李元模任禮式院主事,



1906년 3월 11일 대한체육구락부(대한체육회 전신前身)를 조직했으며 축구선수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경기를 개최했다. 1906년 태복사(太僕司)기사(技師), 장예원(掌禮院)전사(典祀)를 역임했다. 품계는 정삼품(正三品)이다. 해방후 원산고보교사 동래고보교사, 현대중공업 고문을 역임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 경기 내용
 1906년 3월 11일에 궁내부 예식원 주사인 현양운(玄暘運) 등 30여 명이 모여 대한체육구락부를 만들었다. 이것이 곧 완전히 조직된 최초의 축구「팀」이다. 현양운, 교육부 번역과장으로 영어와 역사를 가르쳤던 신봉휴, 덕어(德語, 독일어) 학교 교관 한상우 등 외국어학교 출신들이 조직한 팀이다. 황성기독교청년회 회원들과 삼선평에서 최초의 축구경기를 가졌는데 당시의 축구경기는 선수 인원의 제한없이 양팀 수가 같으면 경기가 성립되었고, 골문도 너비와 높이에 일정한 규격 없이 골키퍼의 키를 표준삼아 적당히 정하였으며, 경기시간도 제한이 없어 어느 팀이건 지쳐 쓰러져 백기를 들 때까지 계속되었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7920>



현양운 명함



학표와 아들 4형제 경운, (철운), 영운, 양운 묘소(이장 후 평장)



부산밀양종회 호민, 경민 직계 선조 시제

준건駿健, 25세, 부산일보 기자,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자 무서(武瑞), 1926년병인丙寅 陰3월10일생, 2013년계사癸巳 陰3월25일에 돌아가셨다.
일본 고베(神戸) 중학 졸업, 815 광복후 부산일보사 인수, 신문기자, 민주신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장, 경향신문 편집국부국장, 대한언론인회편집위원, [수필부락(隨筆部
落)] 동인(同人), 묘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 선영



영도다리 열매지

玄 駿 健



갈매기도 함께 부르는
영도다리의 노래
세월은 속절없이
쓰러진 아픔을
감싸서 흘러만 가네

바람결에 실려 부르는
영도다리의 노래
수많은 인간사와
오늘을 내일로
휘감아 날려만 가네

영도다리에 황혼이 걸치고 있었
다.
낮에 눈 부신 세찬 태양도 황혼
에 물들면서 천마산 정수리에서 마

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물감
든 야위진 햇살은 다리 난간 최간
살을 가냘프게 핏고 있었다.

난간에 양팔을 얹고 홀로 선 나,
이것이 영도다리 마지막이 될지,
영원한 이별이 되지않을까고 서글
픔이 가슴을 파고 들고 있었다.
일년중 계절을 보아서도 황혼 철
에 든 늦가을 초겨울의 사이였다.
내 일생을 나누어 보아도 백발
이 성기게 난 황혼기에 들어선지
오래일엔 몰랐었다.

해를 삼키려고 하는 천마산 그
림자는 물결 위로 빨리 쓸어 오고
있었다. 보는동안 땅거미의 밤이 한
층더 빨라졌다. 인생의 황혼이 이

- 122 -

처럼 빨라진다면 무엇을 붙잡고 버
틸것인가.

그 때, 그 시절 초롱 초롱 생기
에 넘쳤던 흥안 소년은, 생선 처럼
팔딱거리고 싱싱한 소녀는 지금
엔 어디에 있을까, 한번쯤은 찾아
가 만나고 싶었지만 차라리 안보
는것이 편할 것 같았다. 지금은 모
두 속세의 먼지에 그을고 찌들고
시달린만큼 접어진 주름투성이 일
것이다. 그들 노추의 꼴을 현실에
서 본다면 덜컥하고 얼마나 실망
을 안아다 줄것인가, 차라리 안보
는 것만 못할것이다.

은어처럼 팔딱이던 그때의 젊음도
물결에 밀려 떠내리는 海藻가 되고

아득한 그때들, 생생하던 그 모
습을 그대로 눈꺼풀에 아로새겨서
간직하는 것이 좋으리라. 언제 다
시 읊지 모르는 영도다리, 이젠 내
일을 모르는 나이로 고이 이별을
고하리라. 다리 밑에 두둥실 떠서
물결에 밀려 떠내려가는 해조(海
藻)마냥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떠나 버리네
내가 머물면 사람도 머물고
꽃아 가면 먼저 달아나네

혹진주 빛난 눈동자를
그리어 보면
사라져 버려 흔적도 없어라
눈 감으면 또한 나타나네

내년에 윤달이 들었다고 애들이
추석명절에 모이면서 누군가의 제
의로 부모수의를 만들자고 낱을 받
찬다. 만일의 경우 당황하지 않아
좋을것이었고 부모로 보면 자식들
의 마음씀이 고마울뿐이나 뜨끔 인
생의 막다른 골목에 닿았구나 절
실히 현실을 느끼게 했다. 손주들
의 떠드는 소리 새싹들, 너희들은
나이고 먹지 말고 그대로만 있어주
구라.

덧없이 저승의 길 앞 대기실에 어
느덧 머물게 되었는가 새로이, 피
부에 와닿는다. 무심한 나날을 보
내면서 퍼뜩 퍼뜩 안 느낀것은 아
니지만 주위에서 생사의 말들을 하
면 마음이 물결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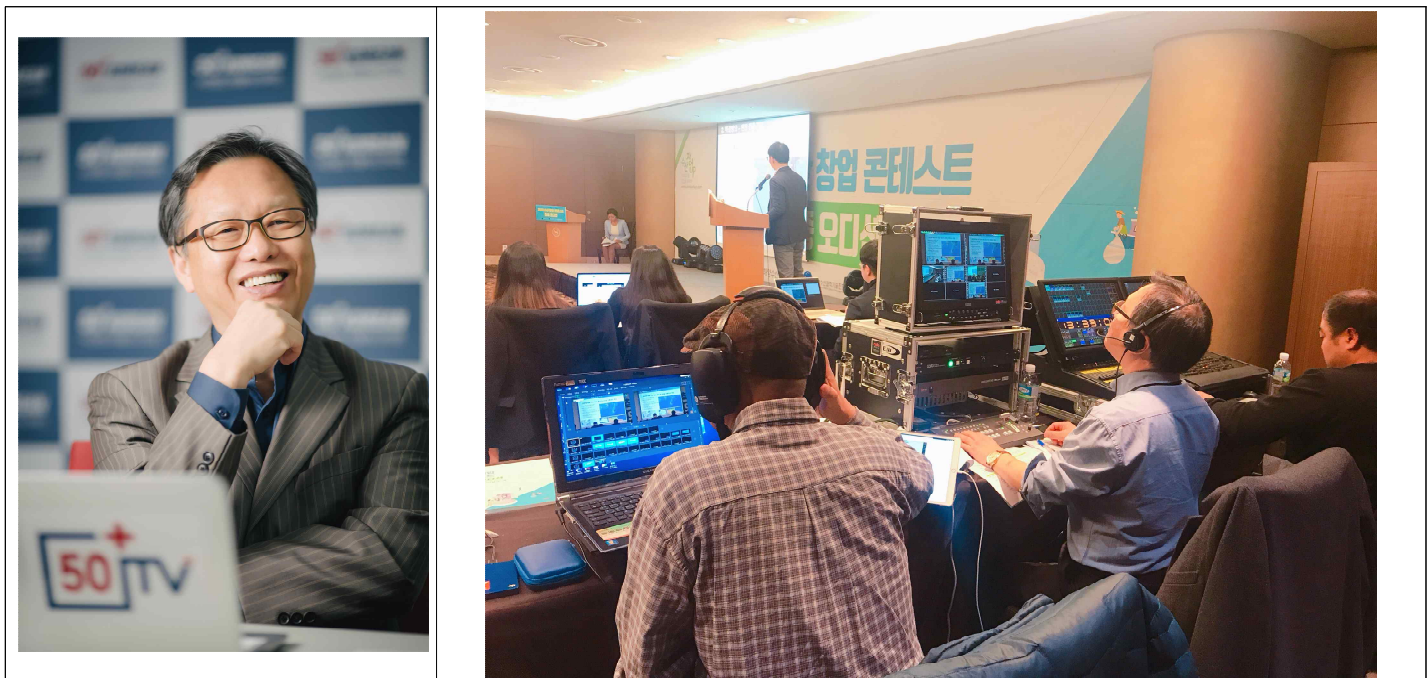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동네 꼬마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를때 내가 번쩍하
고 전류에 맞은 것 처럼 우두망찰
발을 멈추고 있을 때가 있었다.
아주 나이 어릴때는 어른들에 주
눅이 들어 어서 어린 태두리를 벗어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자유스러울

- 123 -





정주淨柱, 26세 KBS 프로듀서, 편성제작국장, 비서실장, KBS프로듀서클럽회장
 자 종우(鍾宇), 1954년갑오甲午8월29일생, 휘문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 국어국문학과졸업,
 동국대학교대학원 문학석사, 한국방송공사(KBS)TV프로듀서, 제작부장, 감사부장, 편성제작
 국장, 위성제작국장, 비서팀장, 문화예술팀장, 심의위원/백남준문화재단사무국장/제일기획삼
 성방송센터(SBC)상근고문/50플러스코리아미디어협동조합이사장/50플러스TV대표/한국예술
 종합학교 겸임교수/신경주대학교 특임교수/KBS프로듀서클럽회장/대통령표창(1998년)/연출
 작: [나의회고록], [TV미술관], [교양국사], [문화가산책], [역사의라이벌], [그때그사건], [추적
 60분], [신한국기행], [제2회광주비엔날레특집생방송], [제8회부산국제영화제특집생방송] 등
 연출, [방송80년KBS특집_백남준의미래_프로젝트] 기획제작, [문화지대], [클래식오디세이],
 [낭독의발견], [김동건의한국한국인], [TV쇼진품명품], [TV책을말하다], [KBS바둑왕전] 프로
 그램 등 기획제작/영상제작 신직업 <스마트영상작가>, <영상맥가이버>, <소셜문화PD> 양성
 교육/생성형AI 교육/배경주 김국향(慶州 金菊香) KBS아나운서, 라디오프로듀서 차장





<관련 자료>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2606776079&mibextid=ZbWKwL>

<https://m.blog.naver.com/jjhyun0829/221462083550>

<https://naver.me/GIqy50hZ>

<https://naver.me/xR0k06F4>

<https://www.facebook.com/share/p/p1u3f5dXEv5fBU84/?mibextid=oFDknk>

<https://www.facebook.com/share/p/Na7TKDRURKgrFDKD/?mibextid=qi2Omg>

<https://www.facebook.com/share/p/ESvbrr4A4GwnN4DY/?mibextid=CTbP7E>

<https://youtube.com/@tv-zl6zz?si=QcR5wc8wkbWvumau>

<https://naver.me/58N9qc9W>

2용-철상-2한일-4덕창-태형-상운-시석-4순민 계系

동섭東燮, 26세.

경찰관총경(警察官總警)

화영華營, 27세.

1943년생, 부동산중개업, 대중회 이사

용-철상-2한일-6덕연 계系

덕연德淵, 18세.

역과승록譯科承祿, 부산훈도

[역과] 숙종(肅宗) 40년(171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 1등(一等) 3위(3/19)	[출전]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계심(季深)
- 생년 갑술(甲戌) 1694년 (숙종 20)
- 합격연령 21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한일(玄漢一)
-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 품계 : 자헌대부(資憲大夫)

[조부(祖父)]

- 성명 : 현철상(玄哲祥)
- 품계 : 통정대부(通政大夫)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호(玄虎)

[외조부(外祖父)]

- 성명 : 방신효(方信孝)
- 본관 : 상주(尙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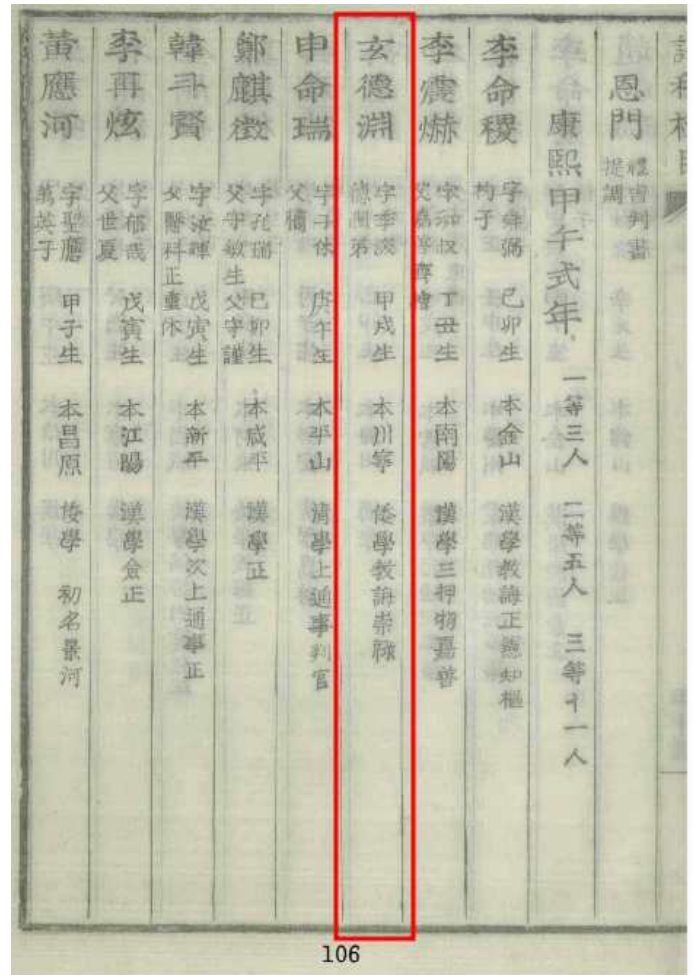
[처부(妻父)]

- 성명 : 조계범(趙啓範)
- 관직 : 사과(司果)
- 본관 : 평양(平壤)

[안향(鴈行)]

- 형(兄) : 현덕윤(玄德潤)[譯]
- 형(兄) : 현덕명(玄德明)
- 형(兄) : 현덕창(玄德昌)
- 형(兄) : 현덕화(玄德華)

- 선발인원 19명 [一等3 · 二等5 · 三等11]
- 품계 송록대부(崇祿大夫)
- 관직 교회(敎誨)
- 관직 동지(同知)
- 전공 왜학(倭學)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9년 계해 > 6월 3일 > 최종정보
영조 19년 계해(1743) 6월 3일(갑인) 맑음

19-06-03[15] 부산의 훈도 등이 죄를 지을 경우 계문해서 처치하도록 경상 감영 등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사역원의 계

또 사역원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중략) 방금 왜학(倭學)인 역관 이장(李樟) 등이 본원에 정장(呈狀)하기를 '경상 감영에서 돈을 주조할 때 쓰는 생동(生銅)을 즉시 사서 바치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 부산의 훈도 **현덕**

○ 又以司譯院官員,以都提調·提調意啓曰,(중략) 卽者倭學譯官**李樟**等,呈狀于本院曰,慶尙監營,以鑄錢所用生銅,未卽貿納事,**釜山訓導玄德淵**,捉去營門,刑推施威,此實前所未有之

연(玄德淵)을 영문(營門)으로 잡아가서 형추(刑推)하며 위협을 가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훈도 현덕연**을 우선 사역원의 사적(仕籍)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다른 사람을 면려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훈도와 별차는 본래 왜인(倭人)에게 조정의 명령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리이니 그 체모를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비록 공무상의 중죄에 관계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영문에서 직접 죄를 다스릴 수 없고 반드시 계문(啓聞)하여 처치하도록 하니, 그 취지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각자 마음대로 결단하여 형신(刑訊)을 시행하기까지 하였으니, 훈도와 별차의 유죄 여부는 논하지 않더라도 왜인이 훈도와 별차를 경시하고 모욕하여 틀림없이 하천(下賤)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명령에 관한 전유가 있다 하더라도 필시 존중과 신뢰를 받을 도리가 없게 될 것이니, 한번 체모를 잃은 뒤에는 손상되는 폐해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후에는 설혹 지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계문해서 처치하여 저쪽 나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모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경상 감영과 통제영 및 수영, 동래부(東萊府)에 엄격하고 명백하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事也。訓導玄德淵爲先削去院籍，以勵他人云。蓋訓別，本爲倭人，傳通朝命，則不可不存其體貌。故雖有係公幹重罪，諸營門，不得直自治罪，而必啓聞處置者，意非偶然也。今乃各自擅斷，至施刑訊，則毋論訓別之有罪無罪，倭人輕侮訓別，必將有同下賤。凡有朝命之傳諭，必無取重信聽之理，一失體貌之後，則虧損之弊，不一其端。此後則設或有罪犯，必皆啓聞處置，以存體貌於彼人瞻視之意。慶尙監營及統水營·東萊府良中，嚴明分付，何如？傳曰，允。

此等物入直之地... 李普昌... 訓別... 玄德淵... 慶尙監營... 統水營... 東萊府... 良中... 嚴明分付... 傳曰，允。

조선왕조실록 > 영조실록 > 영조 21년 을축 > 7월 13일 > 최종정보

영조 21년 을축(1745) 7월 13일(계미)

21-07-13[01] 역관이 《신법역상고성후편》·《세원록》을 구납하고, 일관이 신수 제법을 배워 오다

역관(譯官) 안명열(安命說)과 황력 재자관(皇曆賁咨官) 김태서(金兌瑞) 등이 《신법역상고성후편(新法曆象考成後編)》을 구납(購納)하였고, 일관(日官) 안국빈(安國賓)이 신수 제법(新修諸法)을 배워 왔으며, 역관 **현덕연(玄德淵)**이 《세원록(洗冤錄)》을 구납하였는데, 모두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원전】 43 집 187 면

【분류】 외교(外交)

○癸未/以譯官安命說、皇曆齋咨官金兌瑞等，購納《新法曆象考成後編》。日官安國賓學來新修諸法，譯官玄德淵購納《洗冤錄》，竝施賞有差。

【태백산사고본】 46책 62권 4장 B면

【국편영인본】 43책 187면

【분류】 외교(外交)



고전번역서 > 증정교린지 > 증정교린지 제3권 > 최종정보

영조 24년 무진(1748)에 동관의 세 대청(大廳), 서관의 세 대청과 다섯 행랑(行廊)을 중수하도록 허락하였다. - 25년 기사(1749)에 공사를 시작하여 27년 신미(1751)에 마쳤다. -

二十四年戊辰。東館三大廳。西館三大廳五行廊。許令重修。二十五年己巳始役。二十七年辛未畢役。

[주-D011] 영조 24년 마쳤다 :

영조 24년(1748) 9월 동관의 감동역관으로 박상순(朴尙淳), 최학령(崔鶴齡), 서관의 감동역관으로

감동(監董)

監董

肅宗四年戊午移館之時倭人多率馬島匠手而來
 惟意玩愒三閤歲而始告訖料米工價極其夥然
 米爲九千餘石銀至六千餘兩自是以後隨其夥
 茸之費皆出我國而館在濱海沮洳之地易致傾
 圯間二十五年東西館盡爲修理謂之大監董或
 燒燼處改建及改建後依限年修茸謂之小監董
 並用倭匠手而大監董則差送堂上譯官三員館
 第一員西堂下三員西館二員小監董則堂上一員
 堂下一員

增正文隣志 卷三

五

肅宗六年庚申館守倭家失火十年甲子始許改
 二十六年庚辰東西倭館許令重修始後二十八年
 三十四年戊子西館東大廳西行廊失火四十年甲
 始後四十年乙未
 景宗元年辛丑西館三大廳五行廊許令重修王
 始後三年
 英宗元年乙巳東館三大廳許令重修二年丙午始
 後三年丁未
 九年癸丑西館東大廳東行廊失火十四年戊午許
 令改建十六年

庚申始役

二十四年戊辰東館三大廳西館三大廳五行廊許
 令重修二十五年己巳始役
 四十年乙酉西館東大廳東行廊許令重修二十
 四年始役

四十八年壬辰東館三大廳西館三大廳五行廊許
 令重修五十年甲午始役五
 正宗四年庚子西館東大廳西行廊失火九年乙巳
 始役十年丙午始役十
 十年丙午東館開市大廳失火十四年庚戌許令改
 建十五年辛亥始役

增正文隣志 卷三

六

十九年乙卯西館東大廳東行廊許令重修二十年
 始役二十一年
 純祖元年辛酉東館二大廳西館三大廳五行廊許
 令重修二年壬戌始役
 十三年癸酉東大廳西行廊許令重修十五年乙亥
 始役
 二十二年壬午西館中大廳失火二十五年乙酉許
 令改建二十六年
 丙戌始役二十
 八年戊子始役
 三十一年辛卯西館四行廊許令修理同年始役二
 十二年壬辰

로 **현덕연(玄德淵)**, 신영래(愼榮來), 황하성(黃夏成), **현상로(玄尙老)** 등이 차출되었다. 동관은 1749년 9월 15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750년 12월 18일에 끝났다. 규모는 관수가(館守家)가 73칸, 대문 18칸, 중문 2칸이고, 재판가(裁判家)가 48칸, 대문 2칸, 중문 1칸, 그곳은 60칸이었다. 서관은 1749년 9월 15일 공사를 시작하여 1750년 5월 29일에 끝났다. 경비는 동관이 총 1만 886냥 6전 3푼, 서관이 2만 3203냥 9전 9푼이 사용되었다. 《邊例集要 卷11 館宇》

태순泰純, 19세, 도화서(圖畫署) 출신 화가(圖畫署 畫員), 건려심매도(蹇驢尋梅圖) 호(虎)의 현손(玄孫). 한일(漢一)의 여섯째 아들이다. 1727년(영조 3년)에 태어났다. 자(字)는 **伯純(백순)**이다. 조선 후기의 도화서(圖畫署) 출신 화가이다(圖畫署 畫員). <건려심매도(蹇驢尋梅圖)>가 간송미술관에 전한다. 이 작품은 인물을 선종화풍(禪宗畫風)의 필치로 그렸는데 화면의 구성이나 겨울 풍경의 모습이 중기의 김명국(金明國) 화풍을 참작한 듯하다.



건려심매도(현태순 작)

도화서 출신의 조선 후기의 화가인 현태순(玄泰純, 1727~?)의 인물화. 선종화풍의 필치로 그린 인물화로 화면의 구성이나 겨울 풍경의 모습 등에서 김명국의 화풍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18세기, 종이에 먹, 간송미술관 소장.

미디어ID	10aa4751
저작권	간송미술문화재단
촬영지	-
주제어	-
사진크기	2525x3022px (72dpi)

문의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문헌

『간송문화(澗松文華) 18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畫)-』(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80)/『한국회화대관(韓國繪畫大觀)』(유복렬 편, 문교원, 1969)/『근역서화징(謹域書畫徵)』(오세창, 계명구락부, 1928)

관련 미디어

(1) 건려심매도(현태순 작)

2용-철상-3오일 계系

오일悟一, 17세.

승천포별장(昇天浦別將), 1637년인조(仁祖15년)생

덕기德基, 18세.

가선嘉善, 1658년효종(孝宗9년)생

2용-철상-4승일 계系

승일承一, 17세.

자 승룡(承龍)



철상, 승일 직계 묘제

기춘基春, 28세.

전문경영인, 대보그룹 총괄사장

1954년갑오(甲午)음2월4일생, 대학졸 대기업전문경영인, 대보그룹 총괄사장

준갑俊甲, 27세. 육군 대위

號 우거치(塢居痴), 1929년기사(己巳)생, 육군대위예편, 무공훈장수훈